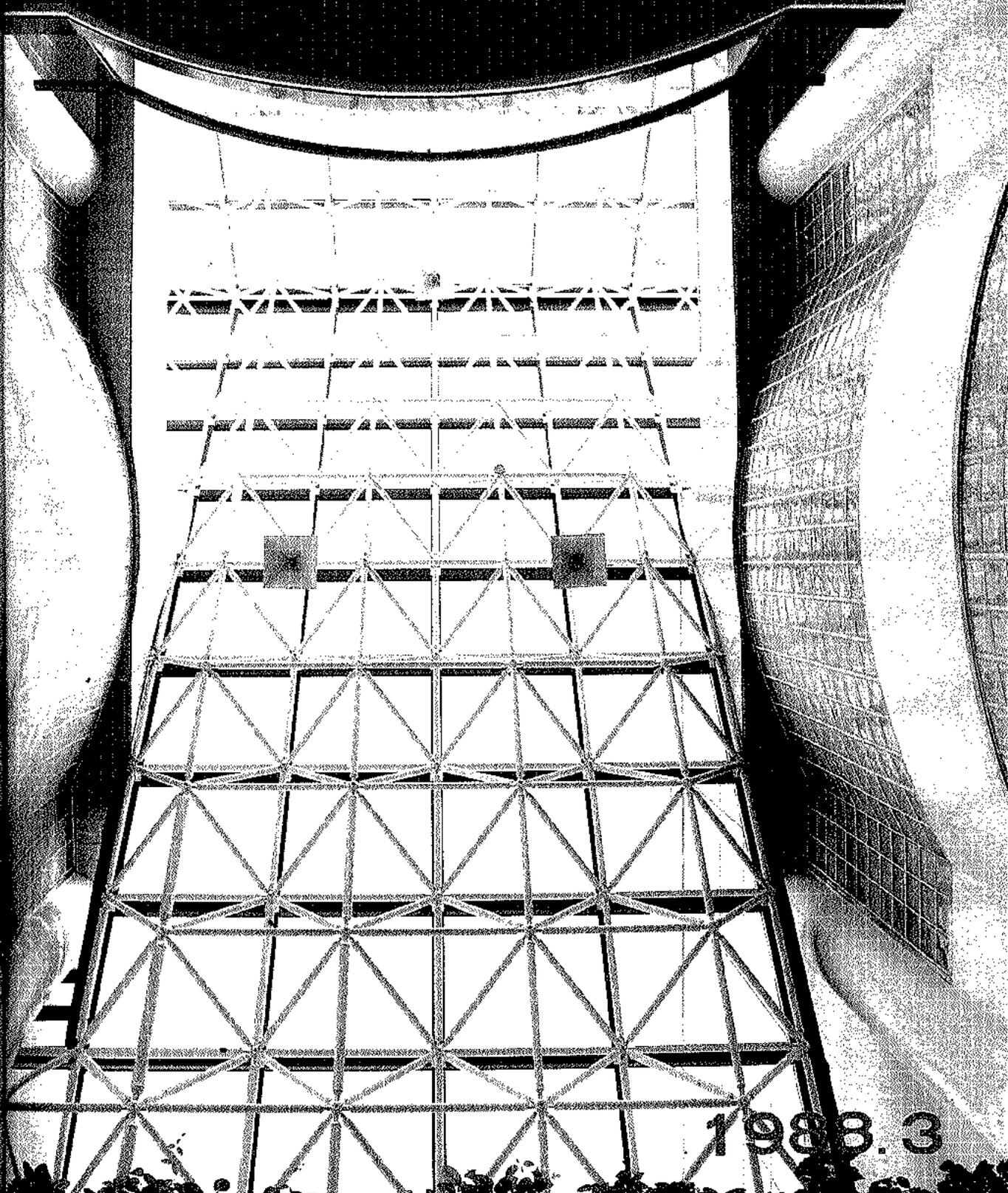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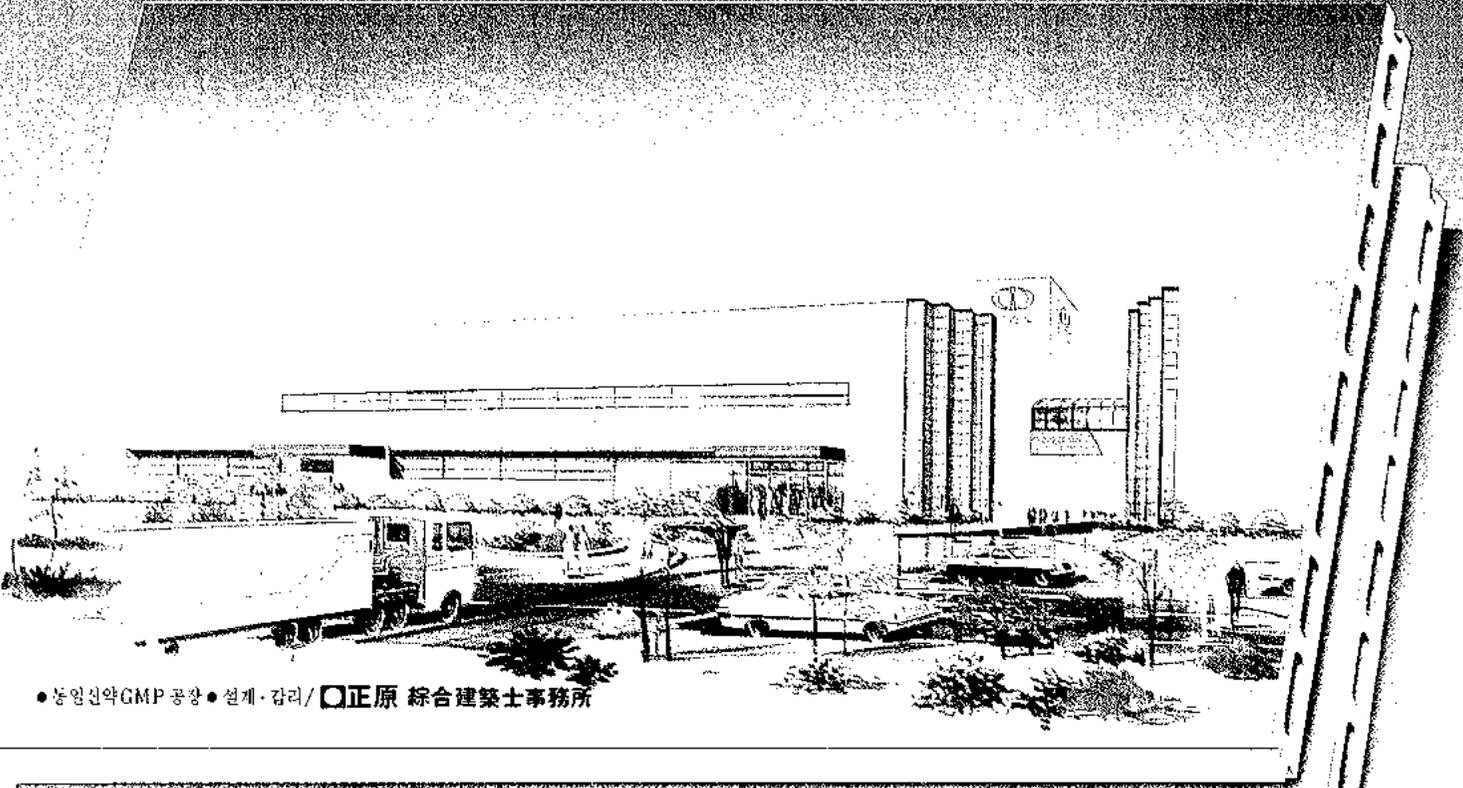
#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MARCH 1988. NO.228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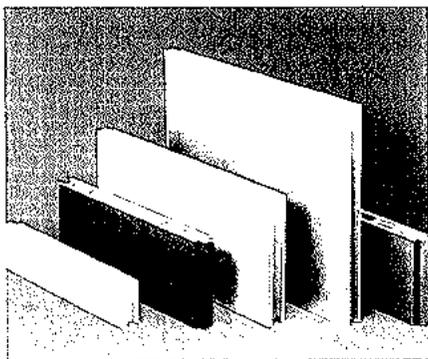
유지할 수  
없어 안전합니다.  
다.  
**큰폴**  
**회사**  
784-1171~9  
1-1141~5

1988.3



● 동원신약GMP 공장 ● 설계·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차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sup>2</sup>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차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킨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 '88優秀建築資材展示會 開催案内

—— 제 3 차 亞細亞 建築士大會 관련 ——

本協會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를 전담하고 있는 建築士로 구성된 非營利 團體로서 政府의 支援아래 제 3 차 亞細亞建築士大會(13개국 참가예정)를 개최하게됨에 따라 本協會 主催로 國際大會와 더불어 優秀建築資材 展示會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優秀建築資材의 生産意慾을 고취하고 建築物의 質向上과 優秀建築資材의 弘報 및 中共을 포함한 東南亞 국가에의 輸出基盤造成을 위하여 非營利事業으로 展示會를 개최코자 하오니 적극 參加하시어 貴社의 優秀한 製品을 널리 弘報하시기 바랍니다.

## 展示會의 特徵

- 國際大會(建築專門家)로 海外弘報 및 輸出 基盤造成(中共등)
- 建築設計를 專擔하는 建築士 全員參觀(2,700여명)
- 各國(13개국) 代表의 優秀資材 施賞 豫定
- 建設部, 工業振興廳등 關係機關의 優秀資材 施賞豫定
- 建築物의 設計時 優秀建築資材의 設計優先 反映 弘報
- 資材生産 業體의 主管하에 展示會 諸般業務 主管
- 우리나라 建設會社의 海外進出 建設施工 實績 弘報
- 規格화된 資材카다록을 FILE化하여 參加國에 送付
- 每年 本協會 주최로 優秀建築資材 展示會의 持續開催

## 開催目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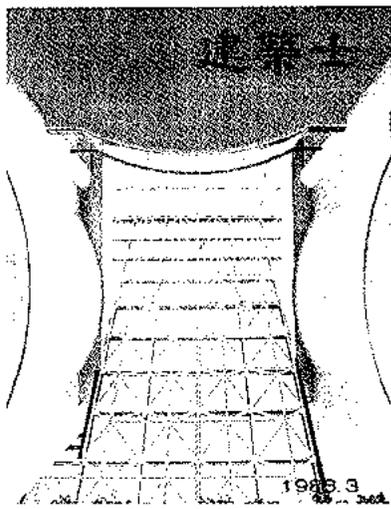
- 優秀建築資材의 生産意慾 提高  
建築物의 質 向上
- 優秀建築資材의 弘報
- 에너지節約 資材의 使用誘導
- 輸入代替 建築資材의 使用誘導
- 國產 建築資材의 海外弘報 및 輸出 基盤造成

## 展示概要

1. 期 間: 1988. 11. 9(수)~11. 20(일)
2. 場 所: 韓國機械工業振興會展示館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3. 主 催: 大韓建築士協會  
(資材展示會 推進委員會에서 一括遂行)
4. 後 援: 建設部, 工業振興廳등 關係機關
5. 展 示 部 門: • 構造材부문  
• 窓戶材부문  
• 內·外裝材부문  
• 斷熱 및 防水材부문  
• 給水·衛生設備材부문  
• 電氣設備材부문  
• 冷·暖房機資材 부문  
• 輸入資材부문 등(국내 비생산품목)

## 展示會開催 關聯 連絡處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전화: 581-5711~4)  
大韓建築士協會 88優秀建築資材展示會  
推進委員會(資材展示担当者)



# 建築士

표지사진: 대한제지사옥  
설 계: 이기범 (도시건축)

## 차 례

1988년 3월호 (통권 228호)

發行人: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翼

副委員長: 尹錫祐, 徐千植

委員: 金琪碩, 卞 鎔, 金晶東,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5-070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 렉 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 (洸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oo,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                                   |                      |
|-----------------------------------|----------------------|
| 論壇                                |                      |
| 6 生產的인 人力需給을.....                 | 金枝泰                  |
| 8 제3차 아시아建築士大會 開催案内               |                      |
| 會員作品                              |                      |
| 11 동양맥주(주) 광주공장.....              | 朱寧伯                  |
| 14 향군 서울회관.....                   | 李珏杓                  |
| 16 대한제지 사옥.....                   | 李起範                  |
| 18 한성대학 우촌관.....                  | 朴舒弘                  |
| 20 영등포 우체국.....                   | 尹泰雄                  |
| 21 서초동 K빌딩.....                   | 張錫雄                  |
| 25 학·예술원 회관.....                  | 俞元在                  |
| 28 신입 이사·감사 취임소감                  | 35 지부 운영방안(1) / 대구지부 |
| 컬 럽                               |                      |
| 32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             | 崔昌奎                  |
| 批評                                |                      |
| 48 건축·도시문화의 창조측면에서.....           | 金相景                  |
| 54 量塊·表皮·格子의 혼합형태.....            | 김광현                  |
| 連載                                |                      |
| 36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9).....            | 金晶東                  |
| 58 韓國의 傳統建築 / 三國時代 建築文化.....      | 張慶浩                  |
| 68 住宅의 庭園(1).....                 | 吳尚坪                  |
| 寄 稿                               |                      |
| 62 中國建築에 있어서의 傳統 형식과 現代기법 추구..... | 朴舒弘                  |
| 75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된 주요내용 해설(I).....   | 姜吉夫                  |
| 78 會員動靜                           |                      |
| 80 新入會員                           |                      |
| 83 올림픽광장                          |                      |
| 84 協會消息                           |                      |
| 89 '88년도 위원회 委員名單                 |                      |

|               |             |
|---------------|-------------|
| 분류번호          | 建築士誌        |
| 서번호           | 통권 제 228 호  |
| 구입년월일         | 1988 3. 31.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             |



-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55 / 581-5715~8
- 서부분소 / 서대문구연희동 169-16 / 333-1873
- 남부분소 / 관악구신림동 1422-17 / 882-6744
- 북부분소 / 도봉구수유동 191-13 / 903-3425
- 강동분소 / 강동구상내동 317-4 / 484-6387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5 / 604-7168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 923-6213
- 상동분소 / 상동구구의동 252-16 / 446-5244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가 81 / 634-2143
-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가 1 (부산대파트내) (051) 23-6284~5
-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가 1-8 / (053) 72-5141~2
-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 / (062) 521-759
-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동 558-1 / (032) 424-0146, 51c. (한국종합빌딩 204호)
-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 3가 124-5 / 7072 (0331) 42-6490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6 /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 5512 /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경부동 182 / (0351) 2-1083
- 송원분소 / 송원시신장동 21 /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유교리 38번지 16동 16-11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중리 216-8 / (0336) 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 464-7 / 682-2875
-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 / (0361) 2-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원산동 206 / (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 6 / (0391) 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6 / (0392) 2-5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 55-43 / (0397) 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흥 1리 959-35 / (03732) 2659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6-168 / (0431) 2-275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62
- 계천분소 / 계천시외림동 8-8 /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보은읍삼산리 139-4 / (0433) 2461
-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충동 487-1 / (042) 22-4088
- 원안분소 / 원안시문화동 160-14 / (0417) 2-4551
- 충성분소 / 충성군충성읍오원리 239-1 / (0451) 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농촌리 710-2 / (0463) 2-2217
-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시서농동 635-5 (대륙빌딩 508) (0652) 3-3881
-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 1가 77-22 /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85 /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화정동 106-2 / (0671) 2-6002
-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귀포시동 783-23 (추진회관) (062) 364-7567
- 목포분소 / 목포시호남동 1 / (0631) 2-7280
-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 51-3 / (0661) 2-7892
- 여수분소 / 여수시광문동 435 / (0652) 64-1144
-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7285번지 / (053) 4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 96-70 / (0562) 74-9713
- 경주분소 / 경주시노봉동 9-1 / (0561) 2-2680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 356-2 / (0546) 52-7903
- 안동분소 / 안동시상산동 125-19 / (0571) 2-3641
- 김천분소 / 김천시남산동 23-10 / (0547) 2-2263
-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 문경분소 / 문경시정촌동 261-2 / (0581) 2-2706
-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 (0551) 2-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 (0522) 74-8836 74-2555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 7-20 / (0591) 2-6403, 42-3434~5
- 충무분소 / 충무시서로동 177-101 / (0557) 2-2504,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 25B-17L / (0584) 2-3155
-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인동 67-1 /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 483-9 / (0598) 2-3777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 500-3 / (0523) 4-2669
-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 교현리 139-2 / (0558) 32-1086, 2-3372
-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동 1289-6 /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 425-1 / (0642) 62-3920, 3322

CONTENTS

February 1988 Vol. 228

FOCUS

On the 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 Kim, Ji-Tae 6

INTRODUCTION OF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8

WORKS

- Oriental Brewery Co., Ltd, Kwang Ju ..... Ju, Yong-Baik 11
- The Korea Veterans Association ..... Lee, Kak-Pyo 14
- Tae-Han Paper Company Headquarters ..... Lee, Ki-Beom 16
- Woochon Hall, Han-Sung College ..... Park, Suh-Hong 18
- Young Deung Po Post Office ..... Yoon, Tae-Woong 20
- K-Building (Seocho-Dong) ..... Chang, Suk-Woong 22
-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tional Academy of Arts ..... Yoo, Won-Jai 25

IMPRESSIONS OF INAUGURATION

..... 28

COLUMN

Monolog of the times ..... Choi, Chang-Kyu 32

NEW YEARS'S POLICY FOR TAGUE CHAPTER

..... 35

CRITICISM

- Urban Renewal Project of Ulchiro 2Ka 16th. 17th Downtown District, Seoul, Korea ..... Kim, Sang-Kyung 48
- Architectural Form Mixed with Mass, Skin and Grid ..... Kim, Koang-Hyun 54

SERIAL

-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 Kim, Chung-Dong 36
-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 Chang, Kyung-Ho 50
- Landscape Gardening ..... Oh, Sang-Pyong 68

FEATURE

- The Search for National Forms and Modern Techniquer in China Architecture ..... Park, Suh-Hong 62
- Commentary on the Revised Contents of Architecture Entorcement Regulations ..... Kang, Kil-Boo 75

MOVEMENT OF THE MEMBER

..... 78

NEWLY ADMITTED MEMBER

..... 80

OLYMPIC PLAZA

..... 83

KIRA NEWS

..... 84

LIST OF COMMITTEE MEMBER NEWLY APPOINTE

..... 89

# 生産的인 人力需給을...

金枝泰

三亞건축사사무소 대표 前任會長



해마다 봄철이 되면 각급학교(대학, 전문대학, 공업고교 등)에서 수많은 건축전공 후진들이 배출되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현실사회의 물정에 어두울뿐만 아니라 몸담고자 하는 건축계에 관하여는 더욱 미지의 세계인 까닭에 많은 관심과 막연한 憧憬 속에 기대를 갖는 반면, 장래 진로 선택에 따른 어려움과 초조감등으로 당혹한 상황에 놓이는 이들의 입장을 선배 건축인들은 일찍 경험한 바 있어 同情이 갈 수만 없다.

개구리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경칩도 지났다. 따사로운 햇빛과 지구상의 森羅萬象의 변화속에 봄의 생동감이 온누리에 넘치고 있다. 작년 봄보다 올해의 봄은 유난히도 밝아보인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민주화운동의 뜨거웠던 열기속에 끝내 6.29선언이란 귀중한 열매를 얻어냄으로써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못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대열에 끼어있는 인간의 민주화시대를 맞게된 기대때문이 아닌가싶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시대를 맞게된 봄의 길목에서 우리 건축계의 주변상황을 俯瞰해 볼때 인력수급정책면에서 또는 건축전문인들의 발전향상 면에서 시정, 개선되어야할 일들이 한두가지 아닌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 떨어지지 않는다.

해마다 봄철이되면 각급학교(대학, 전문대학, 공업고교 등)에서 수많은 건축전공 후진들이 배출되어 희망과 포부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현실사회의 물정에 어두울뿐만 아니라 몸담고자하는 건축계에 관여하는 더욱 미지의 세계인 까닭에 많은 관심과 막연한 憧憬속에 기대를 갖는 반면, 장래 진로선택에 따른 어려움과 초조감등으로 당혹한 상황에 놓이는 이들의 입장을 선배건축인들은 일찍 경험한바 있어 同情이 갈수만 없다.

문제는 이들을 전부수용할수 없는 사회적 여건 즉 취업의 마당이 극히 한정되어 활동할 기회를 얻지못한 많은 후진들한테 적지아니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비생산적인 현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이들이 학창에서 배우고 익힌것은 초보적인 지식과 기술에 불과하지만 모름지기 건축계의 역군으로 동참시켜 적극적인 지도육성방법으로 건축에 관하여 깊고 넓은 식견을 갖게함과 아울러 건축계의 전문역군이 되기위한 자질향상은 물론이러니와 사회에 봉사하는 장인(匠人)정신을 심어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조성에 官이든, 민간이든 다함께 힘을써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여건조성의 비속으로 어쩔수없다고는 하지만 이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전문분야 인력수급의 정책적 초점이 빛나간데서, 그야말로 앞을 내다보지못한 무정견한 수급시책으로보아 정책당국이 그 책임의 일부를 져야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국내외로 건축계의 건설경기가 호황일때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당치 못하여 곤욕을 치루었던 시기를 상기할때, 비록 건축계의 景氣가 근간 침체이긴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냉장히 살필때 제도적인 현행 건축사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치 않고서는 (예 : 응시자격기준, 시험제도, 개업기준, 특별전형 및 기타 등) 방향없이 늘어나는 인력과 한정된 업무량 관계에서 균형있는 수급은 바랄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비생산적인 인력과잉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더욱 곤혹스럽기만 하다.

인력과잉현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양상이 달라진것을 볼때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해방후 40여년간에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면도 시대적인 변천속에 오늘과 같은 괄목한만한 발전을 이룩한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그늘에는 이들 건축역군들의 공헌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이들 후진들도 선배건축인들이 이룩한 업적만큼이나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지 못했을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측면에서도 어떤 누를 끼치는 일들이 생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인력수급 정책면에서 재고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인력과잉현상은 기성건축인들의 사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수없다. 그 실례로서 건축시험회 회원으로 등록된 건축사들의 사무소운영상 업무수주에 따른 회원간의 과당경쟁에서 소위 덩핑행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건축사의 숫적 팽창이 그 원인이라기보다 회원 모두에게 골고루 업무량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물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또는 적절한 선택 방법으로 책임자를 결정함은 발주자로서는 자유이며 또한 당연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건축문화창달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지적소유권자격의(저작권)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위치에서 보더라도 투매행위 이전에 좀더 신중하고도 비굴함 없이 대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그 자신의 권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품위마저 떨어뜨릴뿐 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께도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지각하면서도 체면불구하고 자행하는 일부 회원들에 있어 그렇게라도 하지않고는 사무실의 현상유지조차 어려워 어쩔수없다고 항변할런지 모르지만 一魚濁水 라는 말이 있듯이 투매행위로 회원상호간의 업무상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조차 어렵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評價切下의 대상밖에 안되는 건축사라고 볼때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진것이나 다를바없다. 국가가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 어려운고시에 합격하고 당당하게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이상 그 권리를 행사함에 하등의 異議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공동이익을 위한 유대의식을 갖는한 편 면허에 대한 품격을 지녀줌으로써 지성적인 건축전문인의 진면목과 품위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협회에 등록된 개업건축사의 수는 '83년도의 2천여명이던 것이 '88년

3월 현재 2천7백50여명의 대가족으로 구성 되었다. 그간 5년동안 무려 7백50여명의 회원증가를 보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1백50여명 안팎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본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건축전문인에 대한 수급대책 및 개선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는 것으로 안다. 해마다 새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건축사들이 탄생되어 이나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함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면에서, 또 회원이된 것에서도 반가운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냉정히 살필때 제도적인 현행건축사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치 않고서는(예 : 응시자격기준, 시험제도, 개업기준, 특별전형 및 기타등) 방향없이 늘어나는 인력과 한정된 업무량 관계에서 균형있는 수급은 바랄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비생산적인 인력과잉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더욱 곤혹스럽기만하다. 시대적 추이로 보아 이제는 어느분야를 막론하고 “量”보다는 “質”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듯이 우리 건축사의 사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때가 왔다고 본다.

# 제 3 차 아시아 建築士大會 開催案内

주최: 大韓 建築士 協會

협찬: 아시아建築士協議會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V. 7-11, 1988, SEOUL, KOREA



1988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 협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3)의 각종 세부 행사의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가고 있으며, 금번 ACA-3에는 본 협회 전회원은 물론 ARCASIA 전 회원국 및 기타 국가에서 200여 건축사와 국내외 건축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대회 추진 위원회에서는 금번 ACA-3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미국 M.I.T의 N.J.Habraken교수, AIA(미국건축가협회) 회장 Benjamin E.Brewer, UIA(국제건축가연맹) 회장 Rod Hackney 그리고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부총장이며 건축학과 교수인 C.B.Wilson 등을 기조연설 또는 주제 발표를 위하여 초청연사로 모실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다.

또한 Architecture Review지의 Peter Davey 편집장 및 유럽 건축문화 잡지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가칸 재단의 대표와 인도 건축사 Charles Correa, 말레이시아 건축사의 대부 Kington Loo, 싱가포르의 Tay Kheng Soon씨 등을 모시고 공동주제에 대한 토론을 가질수 있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

본 대회 추진 위원회에서는 ACA-3를 내실있고 알찬 대회가 되게하기 위하여 그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본 대회에 참석하는 외국 건축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나라의 발전된 건축문화를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으며, 우리 건축사들과 외국 건축사들간에 대화를 가질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상호 건축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우정을 나눌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본 대회와 아울러 후진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ARCASIA 각 회원국 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전공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건축에 관한 학술 토론과 친교행사를 갖는 학생샘포리 대회도 병행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건축사간의 유대강화와 회원국간의 기술교류 및 건축환경 분야의 체계적 발전 추구의 계기와 우리나라의 도시 건축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기위한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며, 더우기 건축의 해외시장 확대에도 큰기여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번 ACA-3에 초청하고자 하는 연사들은 건축계의 세계적인 대가들로서 우리 모두가 본 대회에 참여하여 그들의 건축에 대한 사상과 작품이념 등을 공부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금번 ACA-3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참여를 정원드리는 바이다.

아시아 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

1987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8회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와 병행해서 열렸던 아카시아 토론회(ARCASIA FORUM)에서는 발리인의 건축사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인 "운다기"(Undagi)에 대한 논의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운다기"는 모든사람이 스스로 각자의 건축사이기를 가르칠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업무를 사회적 의무로 받아들인다.

그곳에서는 건축행위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발원하여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온 사회가 그들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의 모든 존재를 위한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회인 아시아 국가들, 특히 급속히 변천되어 가고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이미지와 역할을 재고하게 하고 있다. 각 국가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건축사의 전통적 역할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THEME The Asian Spirit: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The Bali Meeting of ARCASIA 1987 left a strong imprint of the traditional Balinese image of the architect called "Undagi" in the minds of the participants. There "Undagi" considers their works as a social obligation aside to teach all people to be the architect of their own. The whole society is oriented towards architecture by the people, from the people, as well as, for all beings concerned. This reiterates the image and role of the architect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especially of Asian Countries which are undergoing rapid transition into highly industrialised societies. Each country may have had a traditional role structure of architect in its own name.

**제 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프로그램**

| 도 착 일<br>ARRIVAL   | 아카시아 이사회<br>COUNCIL MEETINGS  |  | 아시아 건축사 대회<br>CONFERENCE   |  | 관 광<br>TOUR  |
|--|---|--|--|--|--|
|  | 11.6<br>SUNDAY  | 11.7<br>MONDAY   | 11.8<br>TUESDAY  | 11.9<br>WEDNESDAY  |  |
|  | 1 일<br>DAY 1  | 2 일<br>DAY 2   | 3 일<br>DAY 3   | 4 일<br>DAY 4   | 5 일<br>DAY 5   |
| 대표단 및 학생<br>도착<br>Delegates<br>and<br>Students<br>Arrive               | 아카시아 이사회 1<br><br>ARCASIA<br>COUNCIL<br>SESSION 1<br><br>중 식<br>LUNCH | 아카시아 이사회 3<br><br>ARCASIA<br>COUNCIL<br>SESSION 3<br><br>중 식<br>LUNCH  | 대회 발표회 1<br>주제 : 건축사와 공동<br>사회<br>ACA-3 SESSION 1<br>Architects and the<br>Community<br><br>중 식<br>LUNCH | 대회 발표 3<br>주제 : 미래의 건축사<br>역할<br>ACA-3 SESSION-3<br>The role of Architeds<br>in the Coming Age<br><br>중 식<br>LUNCH | 관 광<br>독립기념관 및<br>민속촌<br><br>TRIP TO<br>Independence<br>Memorial Hall<br>and<br>Folk Village |
|  | 아카시아 이사회 2<br><br>ARCASIA<br>COUNCIL<br>SESSION 2                     | 아카시아 자문기구<br>회의<br>ARCASIA<br>THINK<br>TANK<br>MEE-<br>TI-<br>NG<br>아시아<br>건축<br>교육위원회<br>회의<br>ACAE MEETING | 대회 발표회 2<br>주제 : 건축사의 사회<br>적 임무<br>ACA-3 SESSION 2<br>The Social Commitmen<br>nt of the Architect       | 대회 발표회 4<br>종합토론<br>ACA-3 SESSION 4<br>Workshop<br>결의문 채택<br>Committee on<br>Resolutions.                          |  |
| 학생잼보리 개<br>회식 및 식대표<br>단만찬<br>Opening Eve of<br>Students Jam-<br>boree | 환영 연회<br><br>Welcome Party  | 개 회 식<br><br>Opening of Exhibit<br>and Congress Open<br>Opening Ceremony                                     | 문화의 밤<br><br>Friendship<br>Night   | 폐 회 식<br><br>Closing Ceremony  |  |

#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그 특성은 물질적인 면을 넘어서 내재적으로 영적이고 의식적이며 또한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녔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건축사들은 그들의 건축행위에 있어 광의의 공동사회를 더욱 의식하였으며 이것은 즉 미시우주와 거시우주의 조화와 더불어 이웃과의 조화된 생활을 그들의 건축행위의 목표로서 추구했음을 뜻한다.

반면에, 아시아의 산업화된 지역에서는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영역이 매우 전문화된 분야로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고객층은 다변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 사항 또한 너무도 복잡적이고 높은 기술적 수준을 요구하므로 건축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건축사들은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회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물리적 성능의 최대 효율이나 혹은 단순히 시각적인 외양의 세련됨을 기준으로 한 건축주의 요구의 심해속으로 빠지게끔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건축사들은 생활환경의 시각적 측면을 변안하는 위에 단순히 여러 전문분야들을 교묘히 조정하는 역할로 후퇴해야만 하는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건축사의 전통적인 역할 혹은 “운다기”의 이미지가 우리 건축사들에게 한가닥의 불빛을 던져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공동사회의 정신인 것이다.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지향하는 조류속에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우리는 아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완전히 지워져버리지 않은 이 공동사회 정신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건축사들이 공동사회로 부터 어떻게 기대되고 있으며 생활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건축사들 개개인 뿐만아니라 건축계 전반에 부여된 급속도로 변천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공동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길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건축사의 역할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을 모으는 것일 것이다.

제3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이 논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may have been more or less spiritual, ritual, and communal as much as physical in its character. Architects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are more conscious of community in its widest sense; that is the harmonious living with their neighbours as well as the harmony between micro cosmos and macro cosmos.

On the other hand, in the industrialised part of Asia, the workscope of providing built environment has become compartmentalised into deeply specialised fields. Furthermore, the strata of clients are diverse and wide such that requirements are too complicated and technological standards too high to be solved by architects alone.

The profession may be submerged into the deep sea of requirements under the burden of standards set within criteria of maximum efficiency in physical performance or of mere sophistication in visual appearance rather than concerned for the living community. Amid this, the profession is faced with a dilemma of being retreated to a mere skillful coordinator of expertise on top of being an interpreter of the visual context of the living environment. Here the traditional role of architect or the image of the “Undagi” may shed a dim light onto our profession. That is the community spirit.

On the brink of the wave rolling towards materialistic and technologically oriented society, we need to vitalize the community spirit in providing for our living environment, which is not yet totally faded away from the Asian’s mind. Time has come for architects themselves to rethink on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and should do for the community. This is the request of our time in rapid transition addressed not only to individual architects but also to the profession as a whole. The best way to enhance the architects’ role in their community seems to be focussed on the social dimension of the profession to which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he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w addresses this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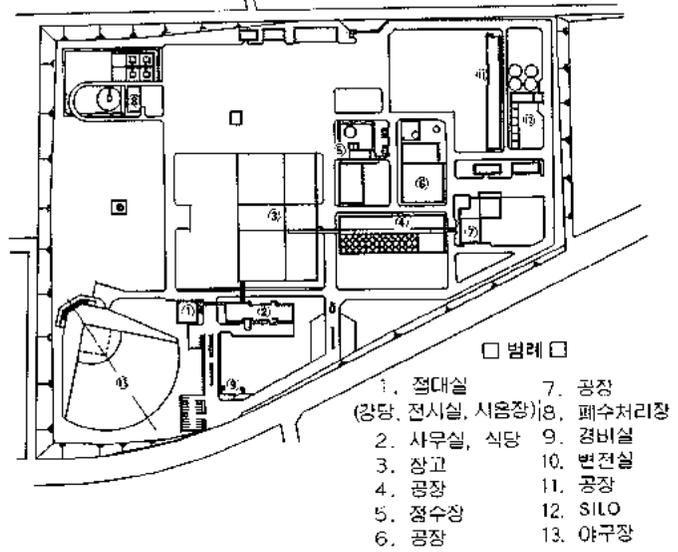
# 동양맥주 (주) 광주공장

**Oriental Brewery Co.,Ltd. Kwang Ju Factory**  
 Designed by Ju, Yong-Ba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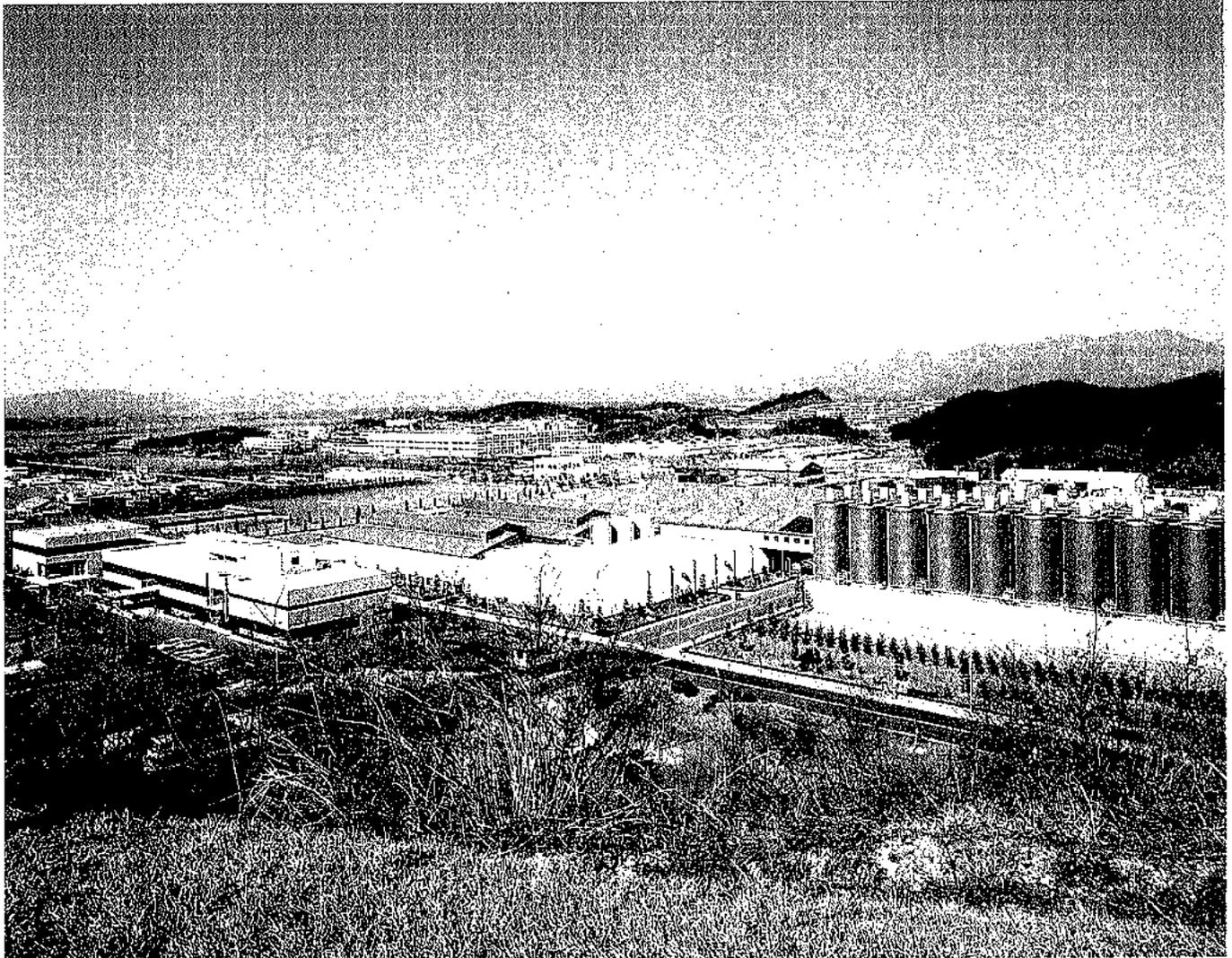
朱寧伯 / (주)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783-4147

-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북구 일곡동 685
- 대지면적 / 206,896.20㎡
- 건축면적 / 29,861.92㎡
- 연면적 / 39,241.48㎡
- 건폐율 / 14.4%
- 용적률 / 18.97%
- 건물구조특성 / 1. 구조상특수성 : R, C조 건축물에 탱크를 노출 설치하므로써 하나의 일체 건축물로 형성.
- 2. 외벽 : Hollow Core Panel+Wire Panel (단열재) +시멘트몰탈  
저온부분 : 125mm Insulated Metal Panel
- 3. 외래자 경락 : 맥주생산과정을 볼 수 있도록 주요부분에 견학자용 통로와 부대시설 설치  
접대실등-강당 (Multy Vision 시설) 전사실, 시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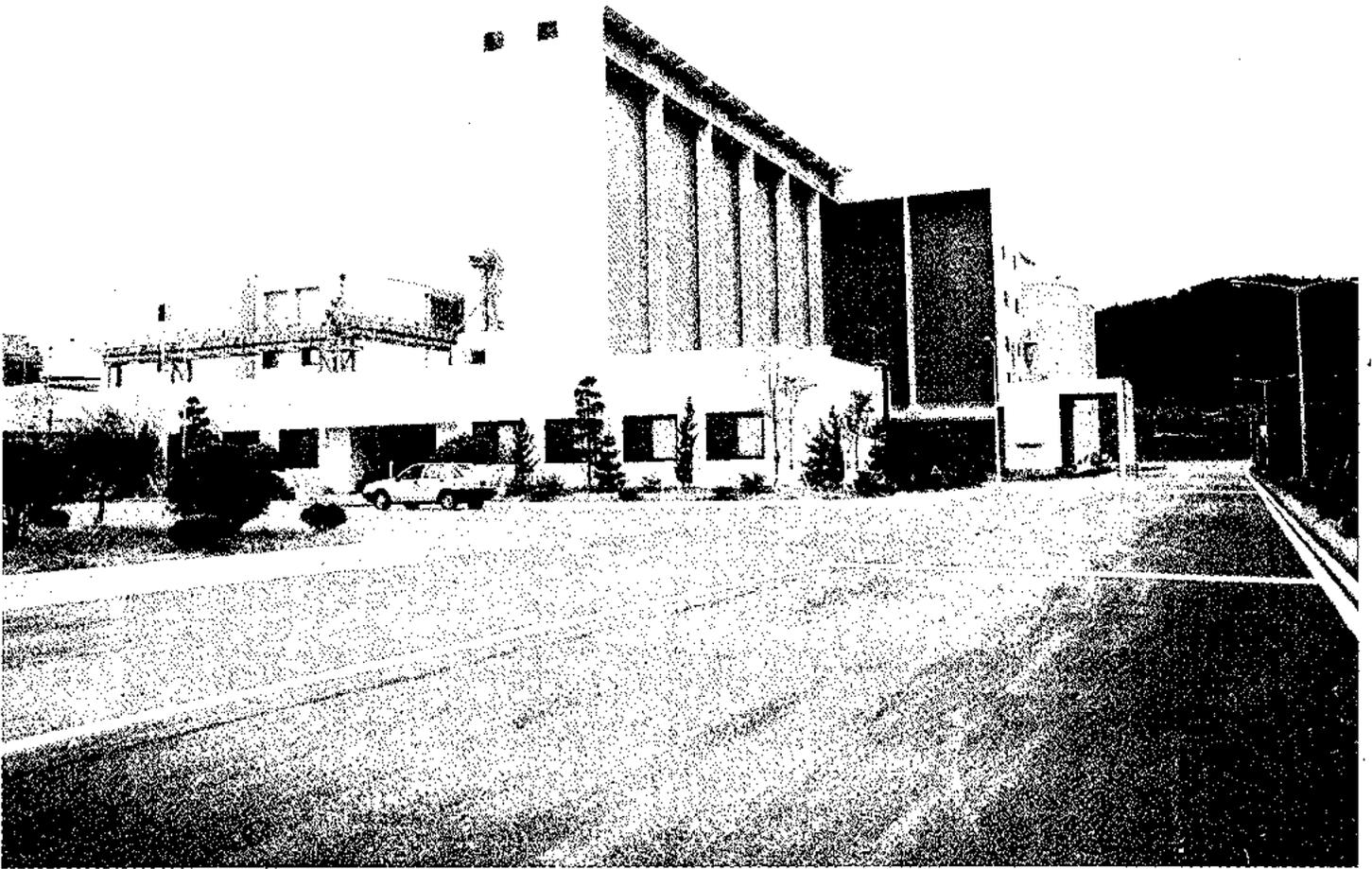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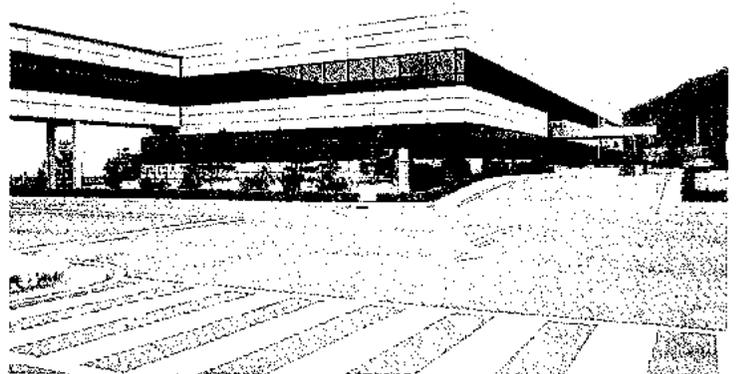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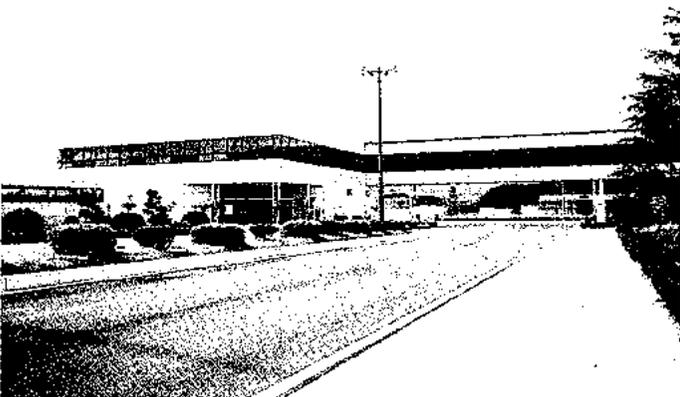
동양맥주 광주공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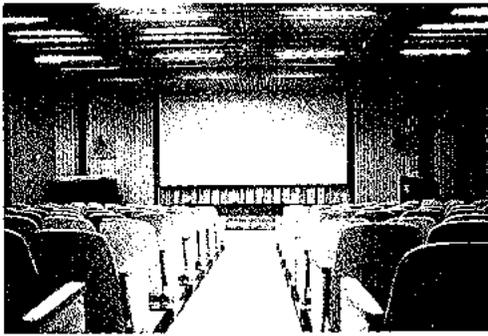


▼S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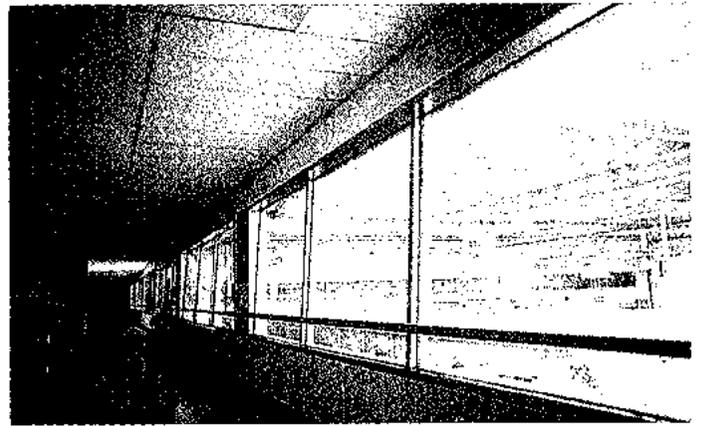


점대실 ▼ ▼사무실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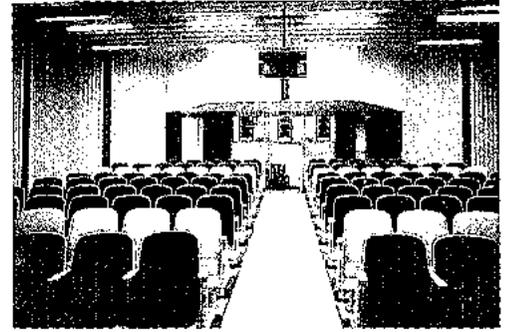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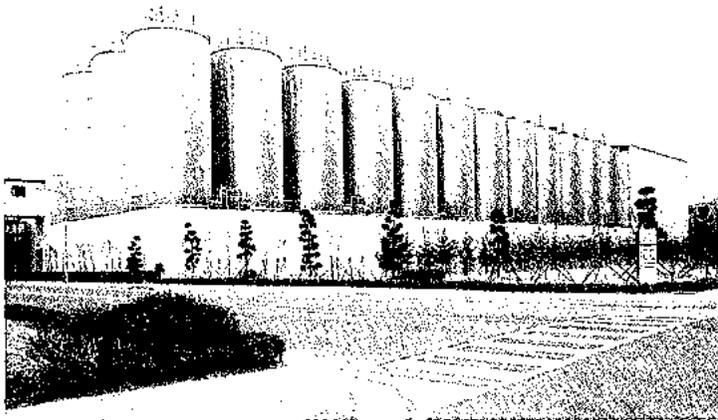


▲건학통로

공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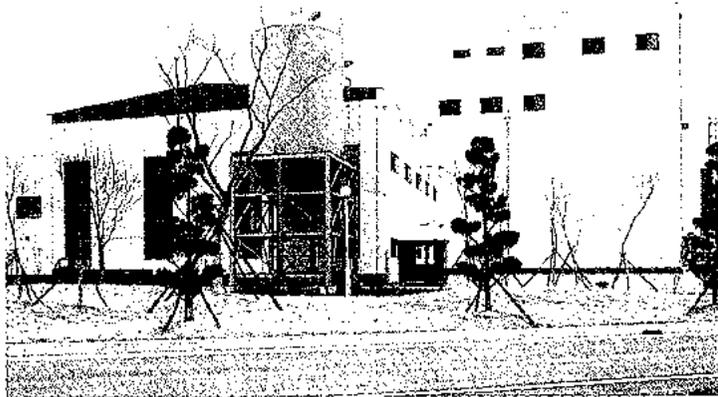


▲강당 (영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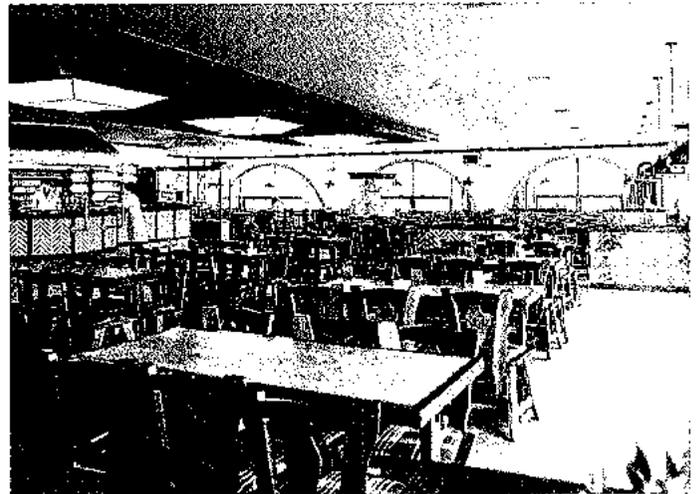


공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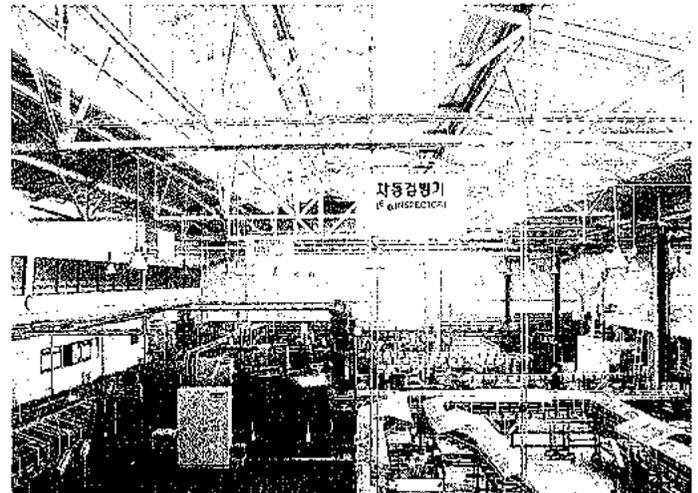
▼사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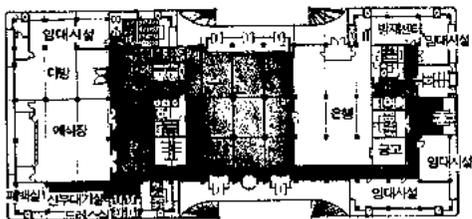
창고▼



▼장고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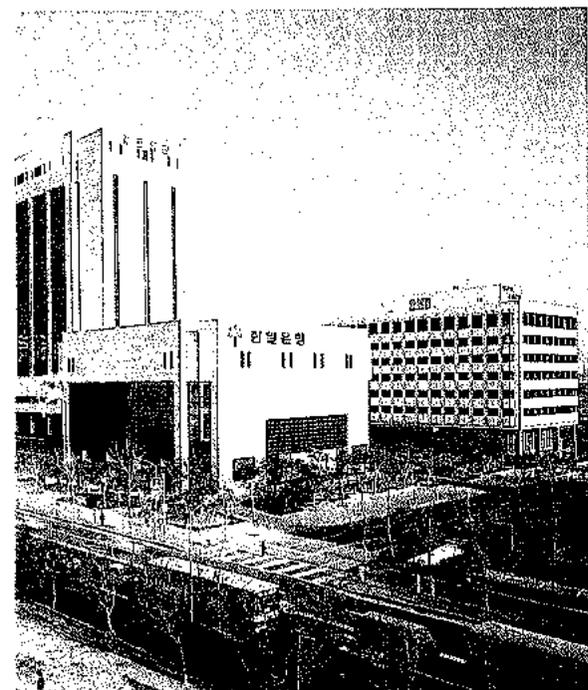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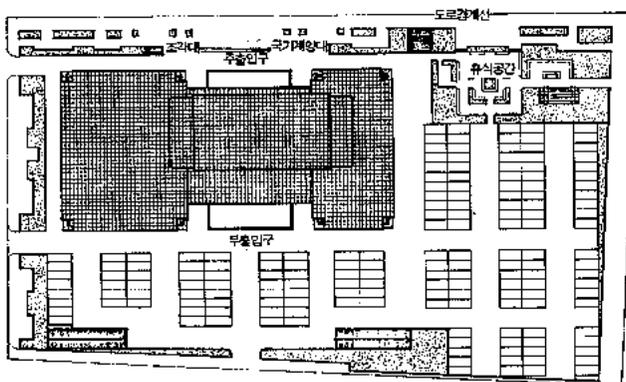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옥탑층평면도



1층로비 ▼



배치도

축척: 1/2000

동측에서 본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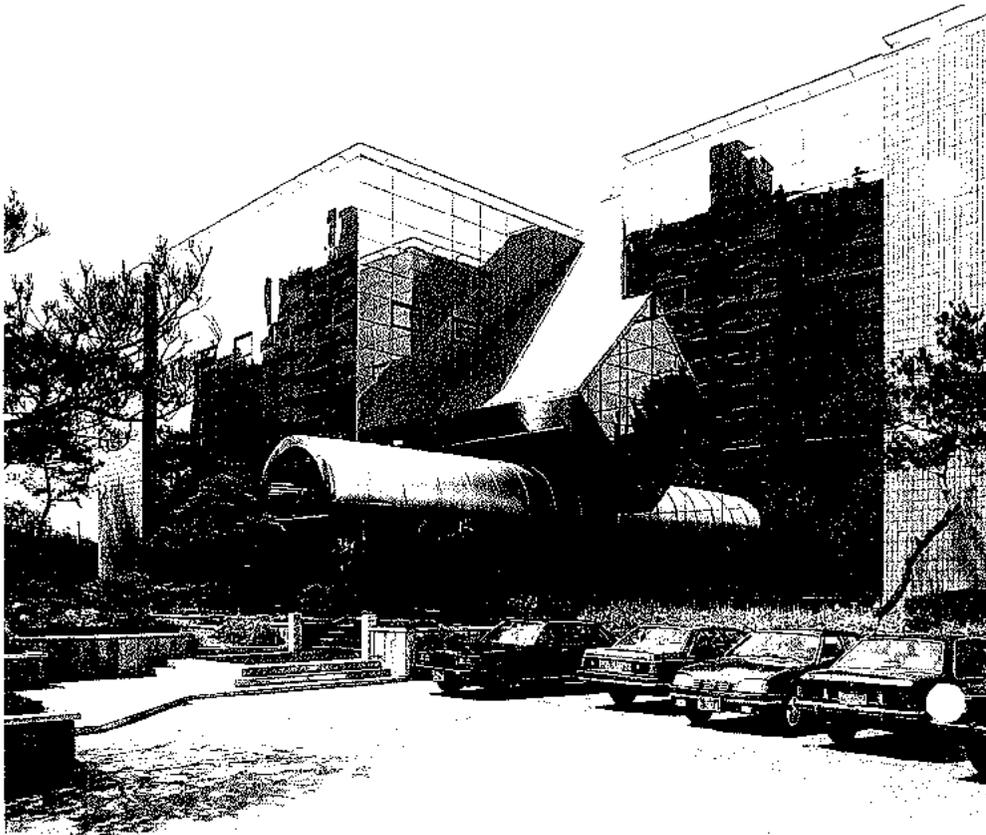


# 대한제지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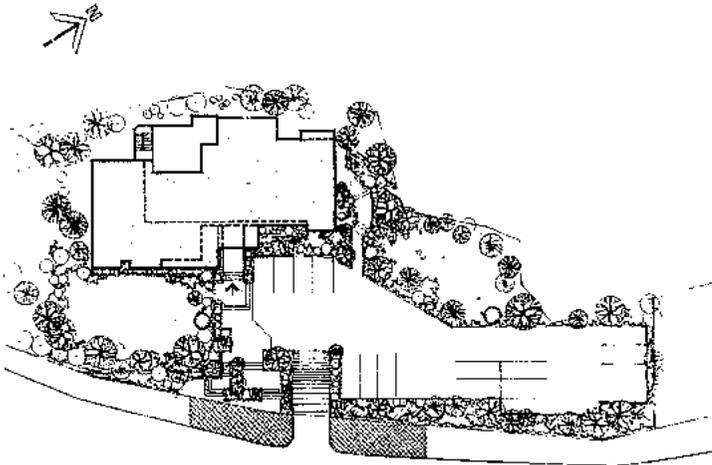
**Tae-Han Paper Company Headquarters**  
Designed by Lee, Ki-Beom

李起範 / (주)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45 / 547-7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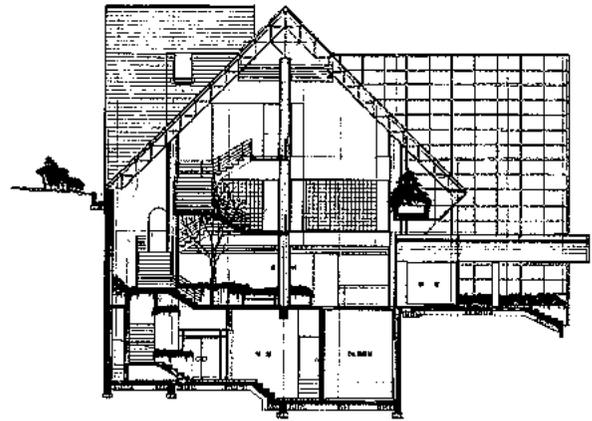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광장동
- 지역·지구 / 주거지역, 제2종 미린지구, 주차장정비 지구
- 대지면적 / 1,309.35㎡
- 건축면적 / 511.31㎡
- 연면적 / 1,581.37㎡
- 건폐율 / 27.7%
- 용적률 / 52.48%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구조 / R, C 일체트러스
- 주요마감 / 파스텔타일, 18mm 열선반사유리 (실바)  
유리블럭 (브론즈), 9mm 슬라트
- 설계 / 1985. 10~1986. 3
- 준공 / 198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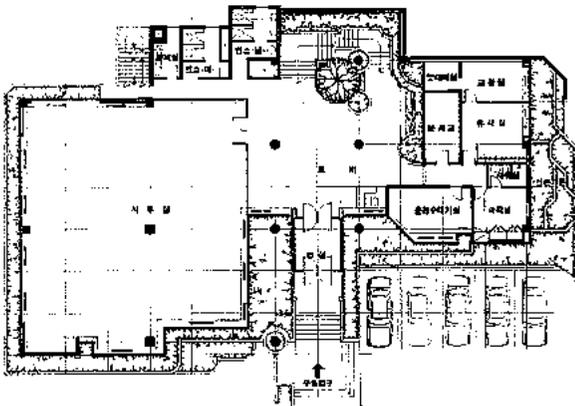
▲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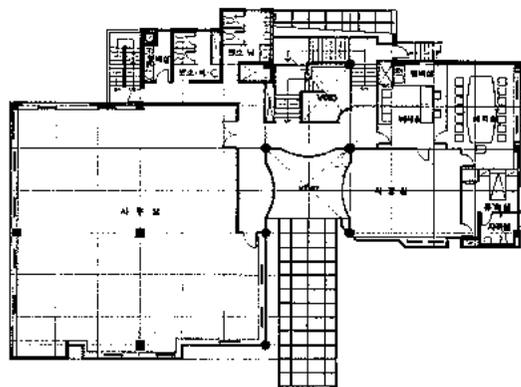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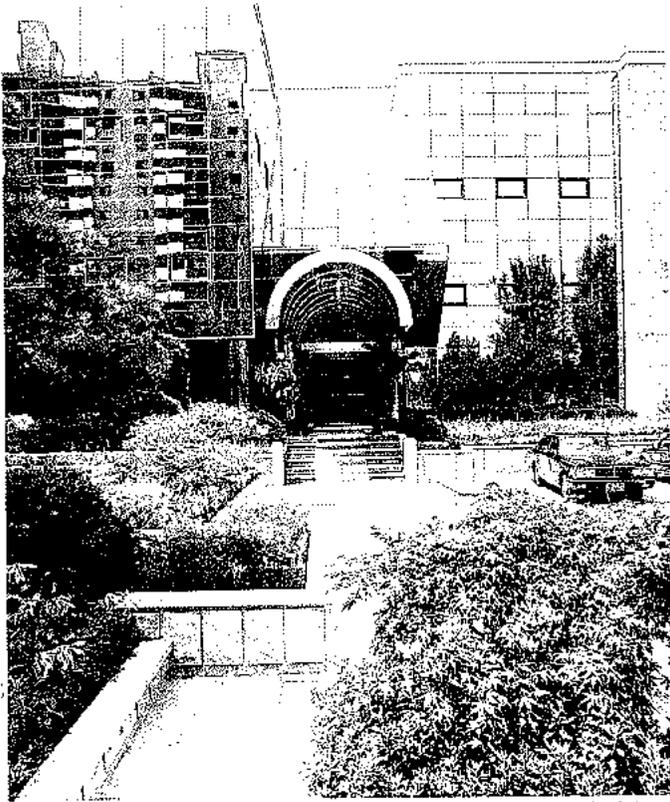
단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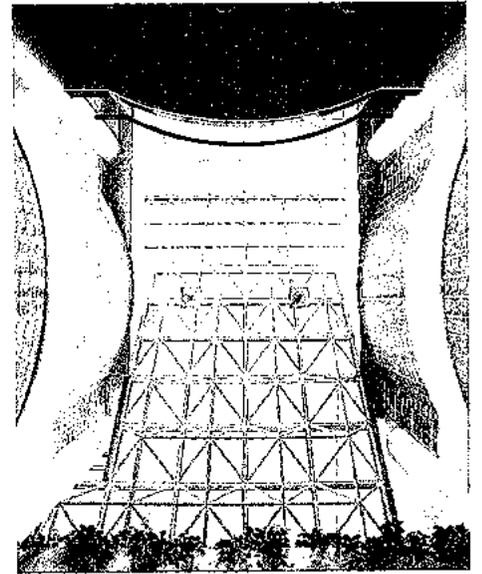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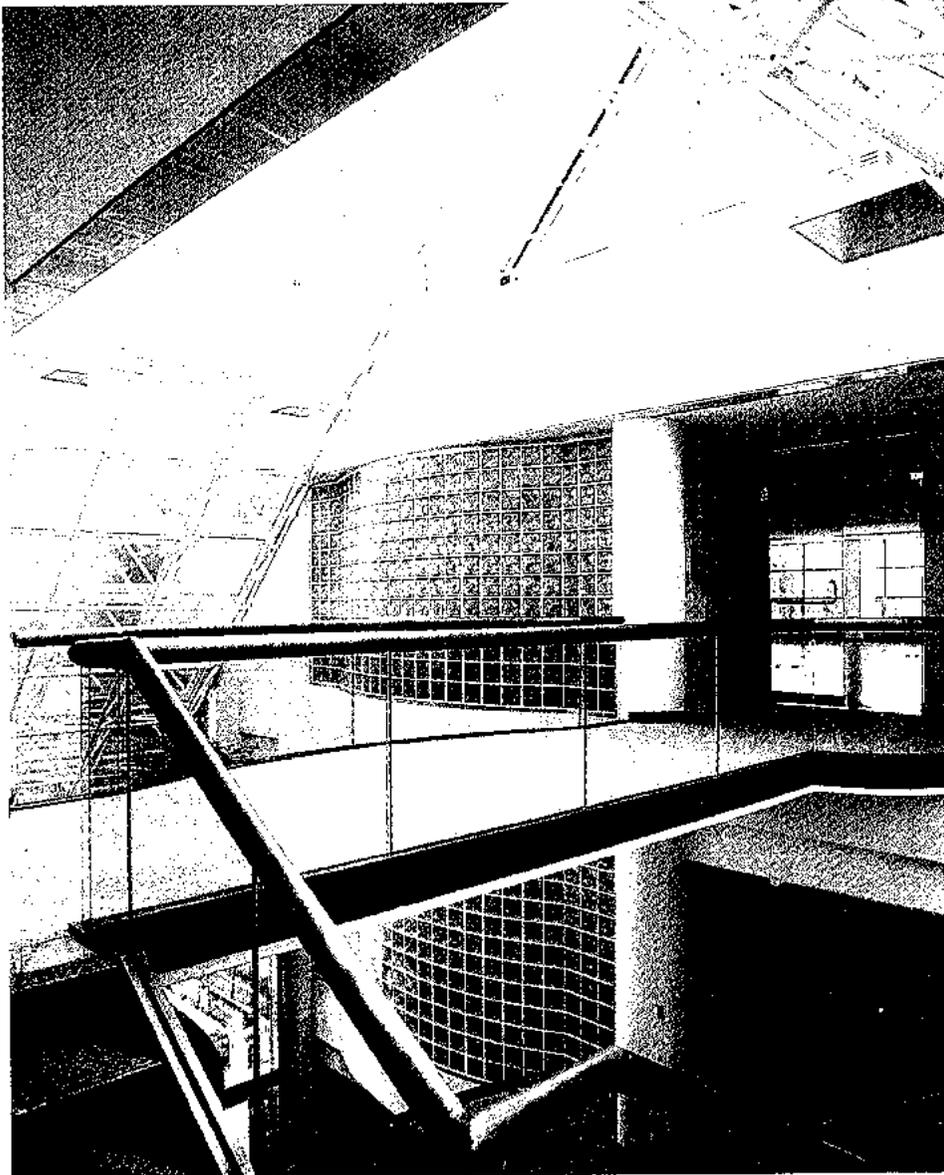
■ 설계소묘

기존공장의 이전계획에 따라 넓고 조악한 환경의 기존 사무실을 헐고 대지의 도로 건너편에 새로운 사옥건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의 기획에서 출발되어 잡목으로 형성된 경사가 심한 대지지만 현장 답사를 하는 순간 캔버스(대지)에 사계절의 변화를 전부 담을 수 있는 한복의 그림(건물)을 그려보고 싶은 욕망과 어떤 모험심이 꿈틀거렸다.

흔히 경제성과 기능만 강조된 사옥 건축으로 인식되는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해 보고 싶었고, 완공된 계획안을 포함한 몇개의 대안들을 놓고 수차례 걸친 건축주와의 협의를 가진 결과 처음의 설계 Concept로 설정된 사내 근무자들과 방문객들의 Communication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수법으로 개방된 공간과 자연광을 충분히 도입시키는 Atrium의 채택과 공중에 걸쳐있는 복도와 계단등이 디자인의 중요한 Element로서 비중을 두었으며, 평소에 인테리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차에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이원화된 방법을 Total Design 으로서 통합시켜 표현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Atrium 뿐만 아니라 가구를 포함한 집무공간 실내 마감의 질감과 색상 옥내외의 조경까지도 설계 당초부터 시공 완료시까지 스터디와 철저한 감리를 통해 완성시켜 보았다. 주위에 분포된 자연녹지와 인공의 조경을 솔직하게 반영시키는 반사유리와 동질성을 가지는 반짝이는 금속을 외피(외장재)로 통일시켜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하이테크건축의 소재들로 숲속의 보석처럼 보이게 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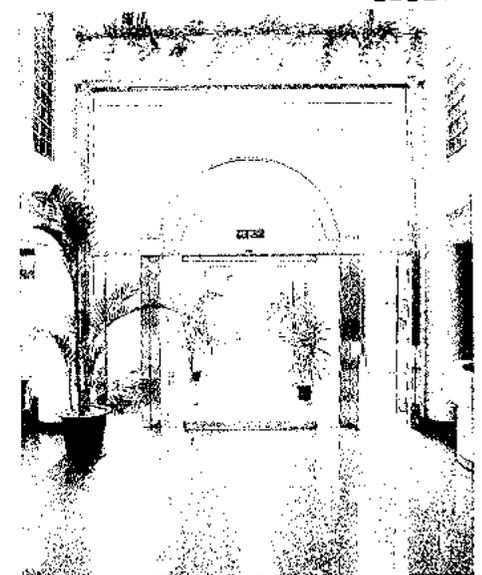
▼ 2, 3층계단실에서 본 남동측면

남측면 파사드▲



▲로비상부

현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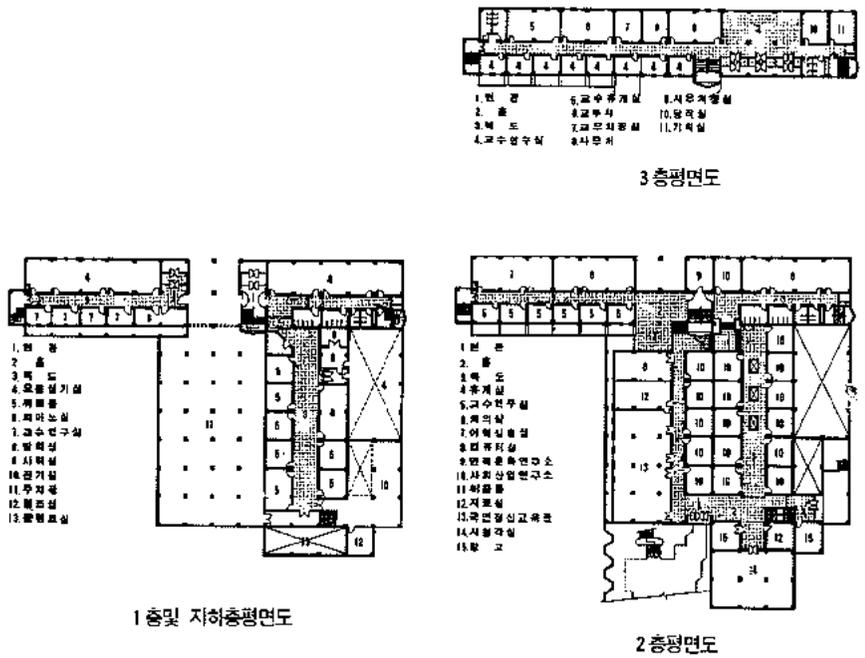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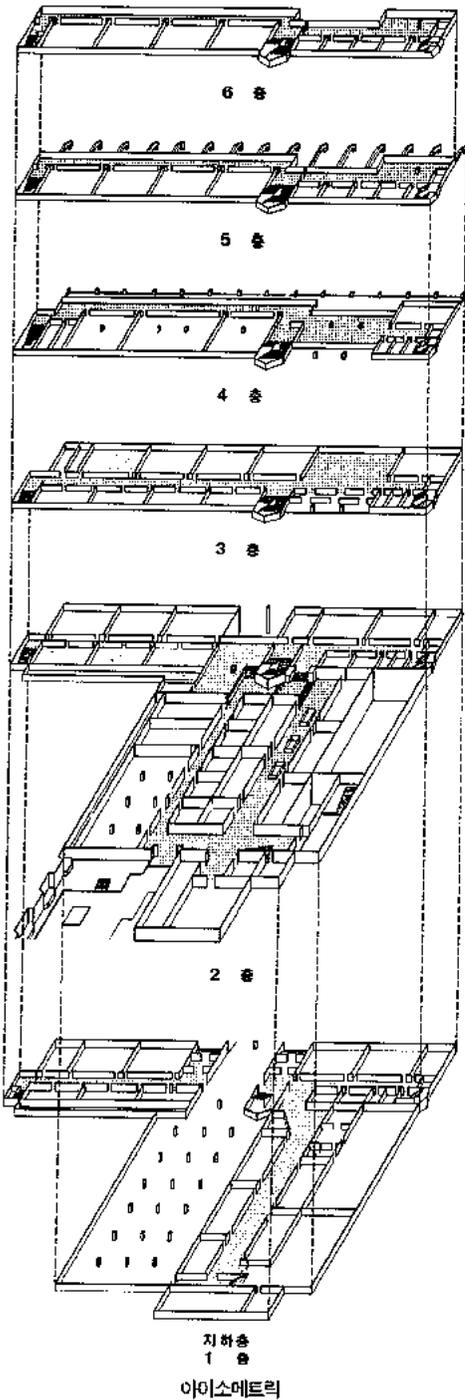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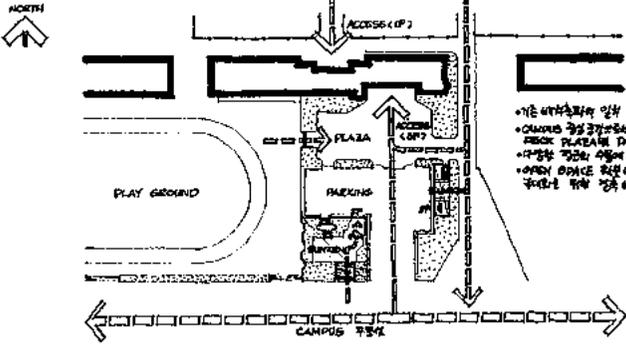
# 한성대학 우촌관

Woochon Hall, Han-Sung College  
Designed by Park, Suh-Hong

朴舒弘 / 회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038 / 364-4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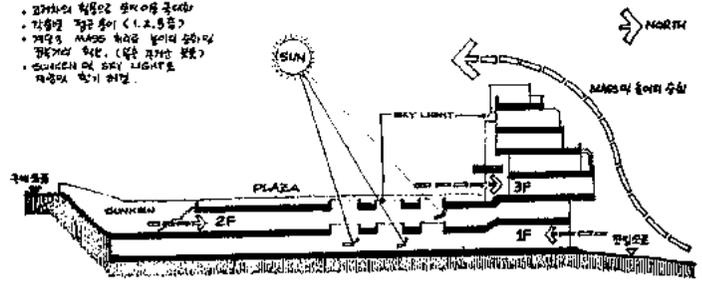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389
- 대지면적 / 7,571.3㎡
- 건축면적 / 3,359.7㎡
- 연면적 / 10,110.25㎡
- 건폐율 / 44.25%
- 용적률 / 121.23%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 지하1층, 지상6층
- 외장재 / 적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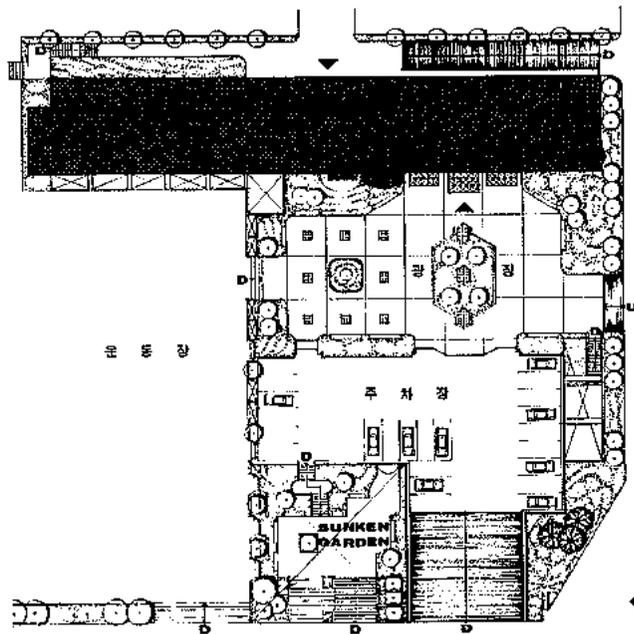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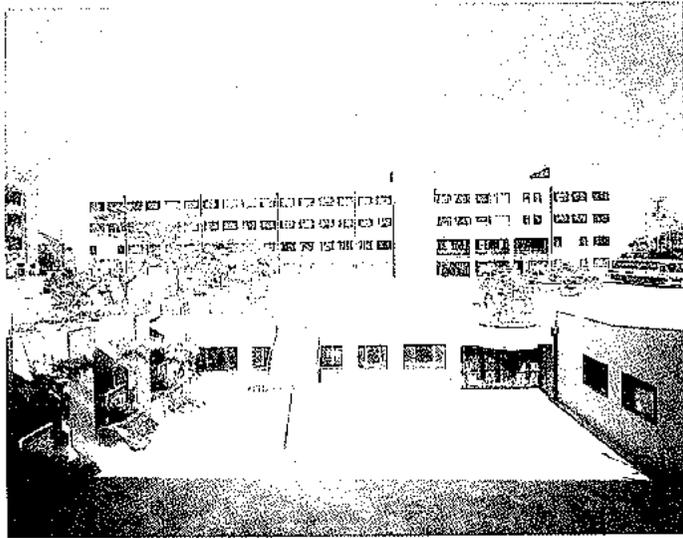


배치개념도

- 기존 배치계획의 일부
- OPEN SPACE 확충을 위한 주차장 확보
- OPEN SPACE 확충을 위한 주차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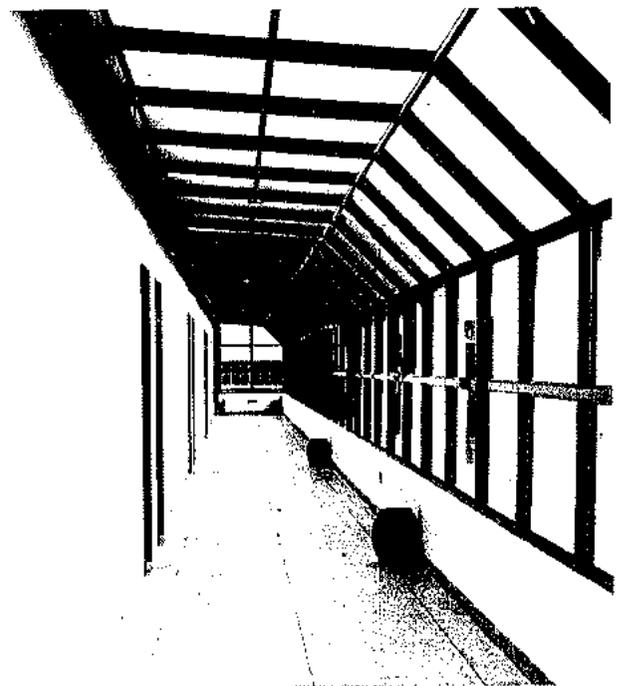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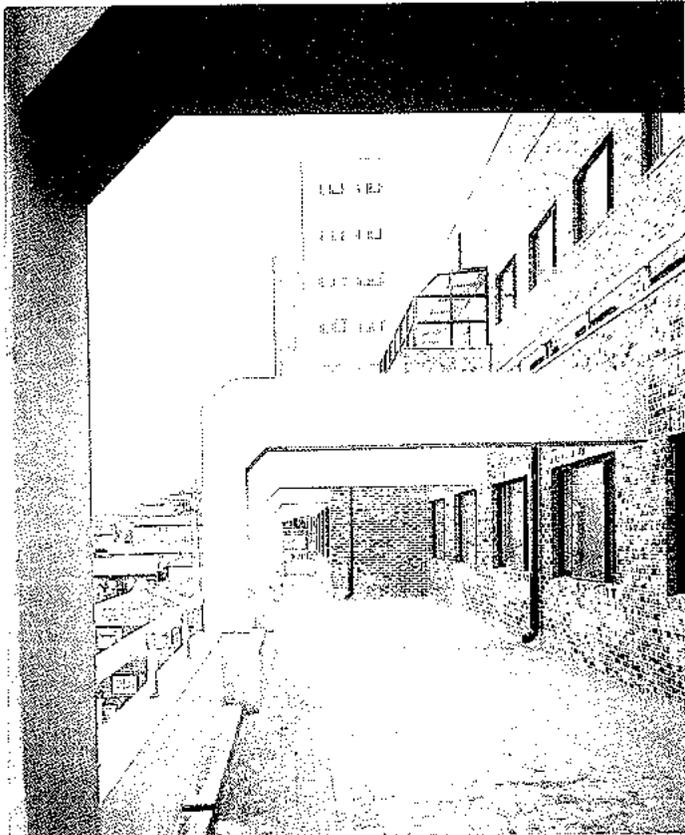


단면개념도



배치도

0 12 2 10 A  
SCALE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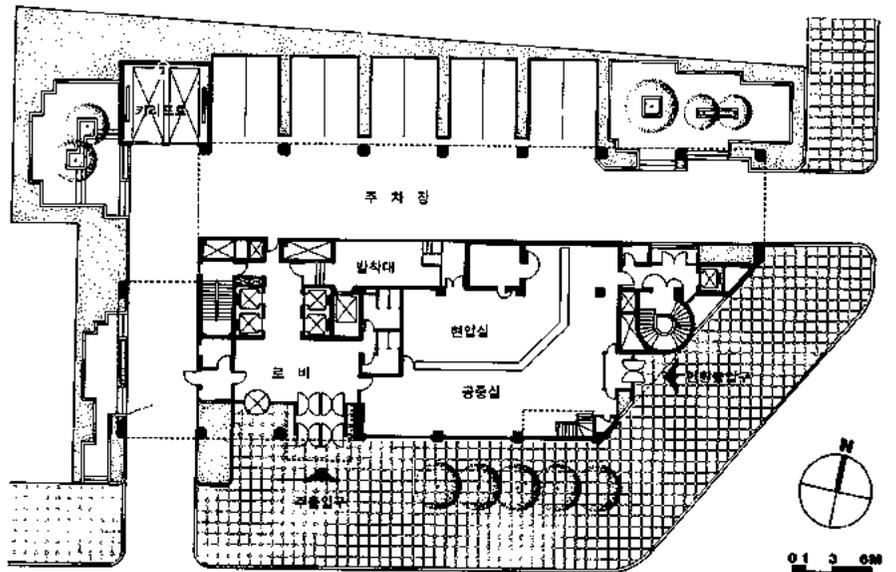


# 영등포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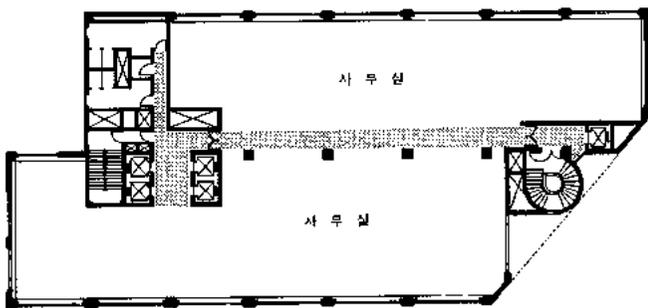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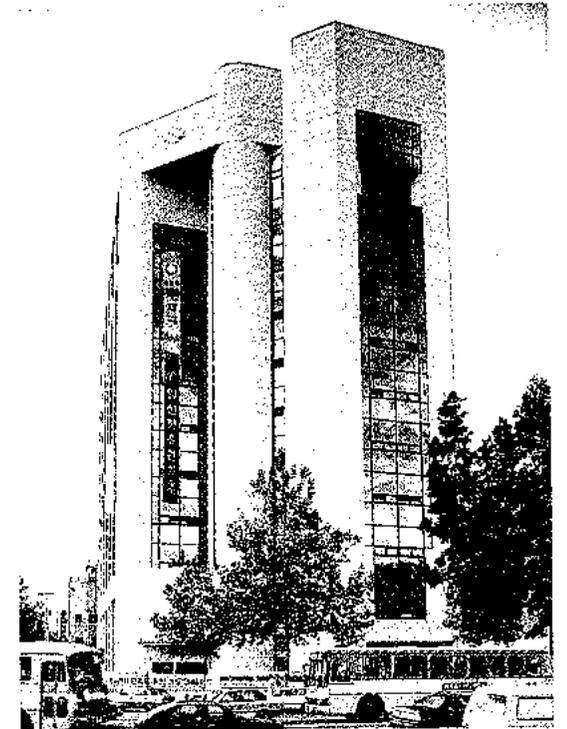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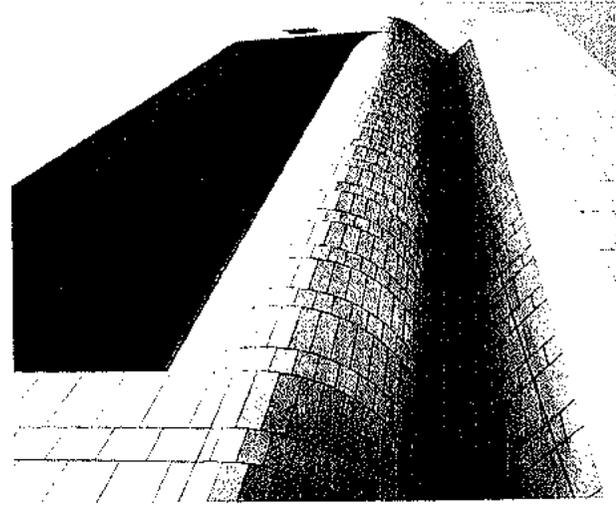
Young Deung Po Post Office  
Designed by Yoon, Tae-Woong

尹泰雄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7-45 / 555-2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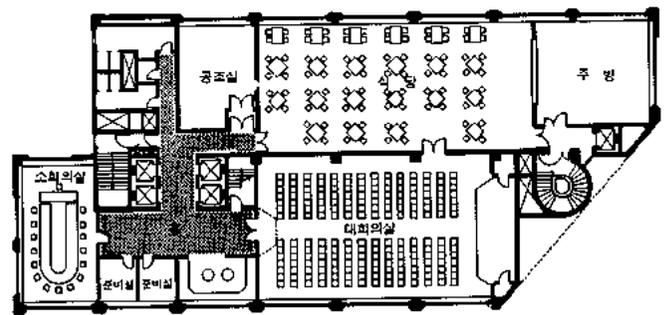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5-2
- 대지면적 / 1,928㎡
- 건축면적 / 956.32㎡
- 연면적 / 13,950.55㎡
- 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 외장재료 / 화강석버너꾸아+18mm 열선흡수 반사유리



배치도 및 1층평면도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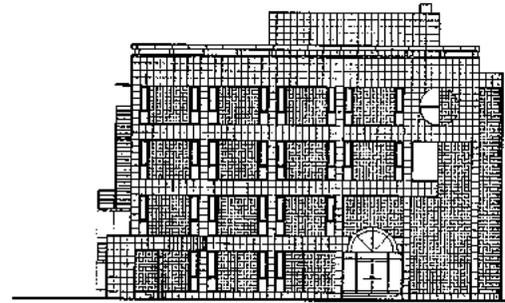


11층평면도

# 서초동 K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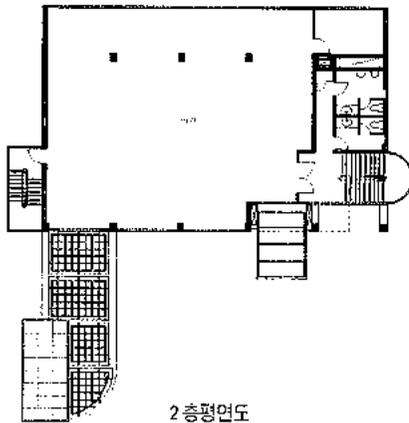
**K Building ( Seocho-Dong )**  
Designed by Chang, Suk-Woong

張錫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도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51 / 583-8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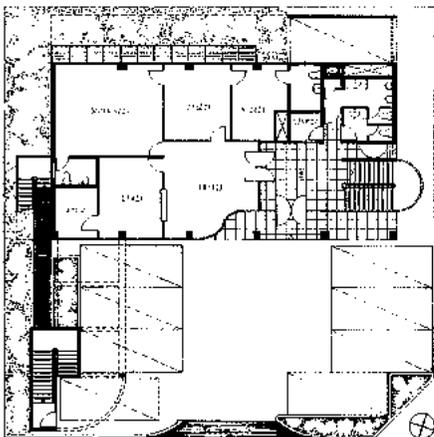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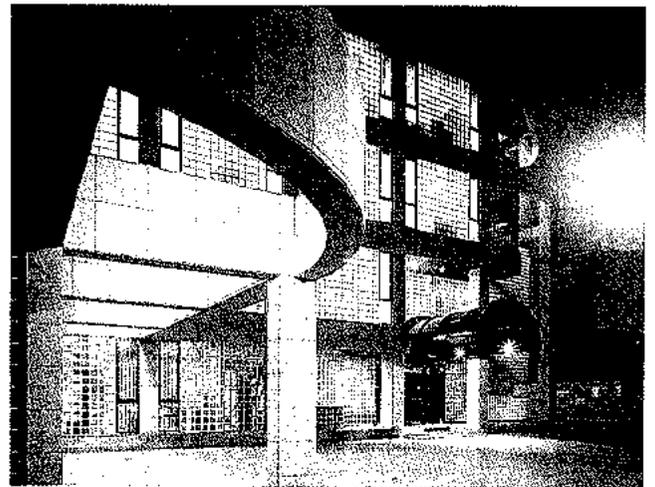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7-1
- 지역 / 주거지역
- 지구 / 주차장 정비지구
- 도로현황 / 전면 8m도로, 좌측 6m도로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 642.8㎡
- 건축면적 / 282.22㎡
- 연면적 / 1,494.03㎡
- 건폐율 / 44.6%
- 용적률 / 164.3%
-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 조고높이 / 17.2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층면적 / 436.48㎡
- 주차대수 / 10대, 주차면적 / 135㎡
- 조경면적 / 64.26㎡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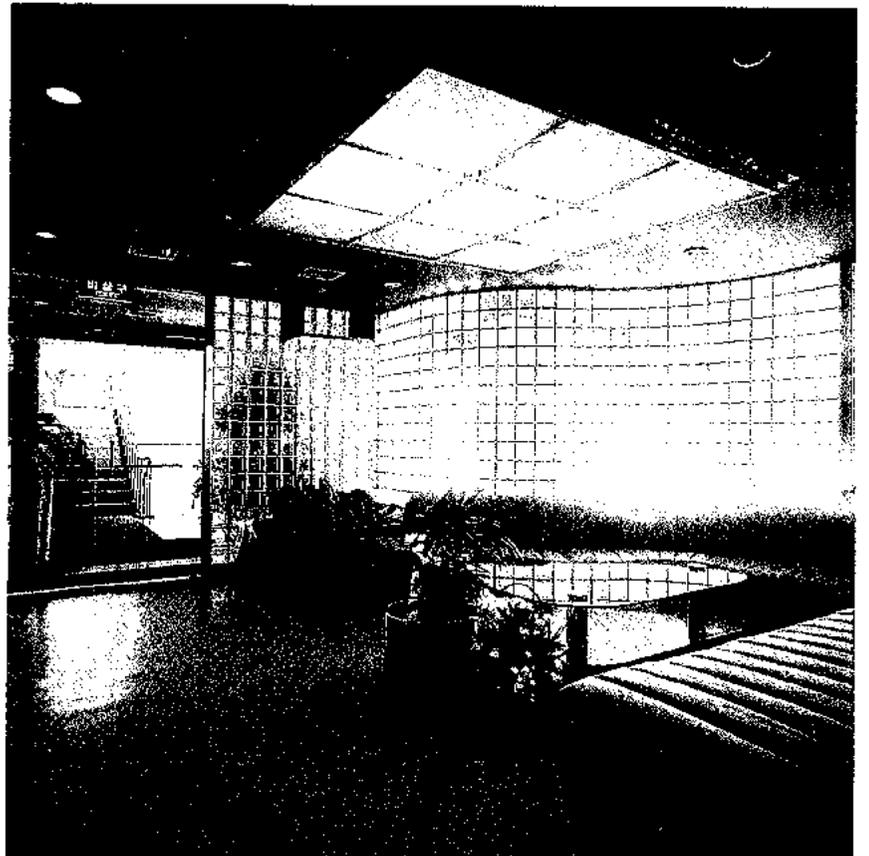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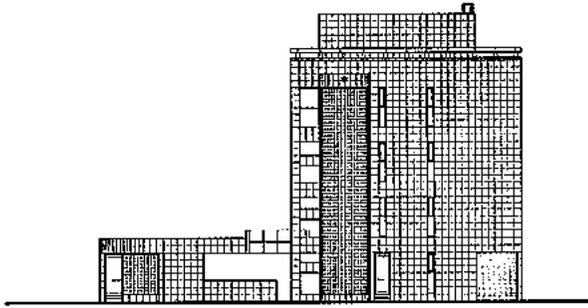
배치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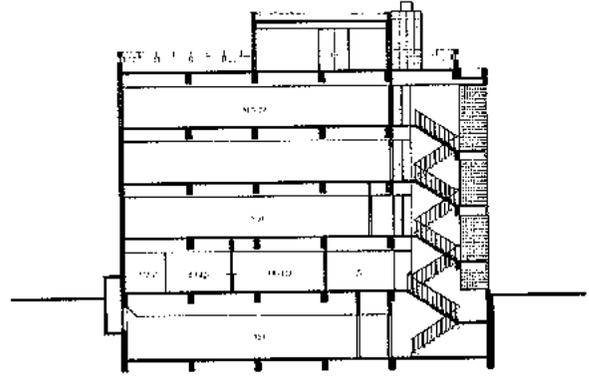
북측에서 본 주출입구야경▲

▼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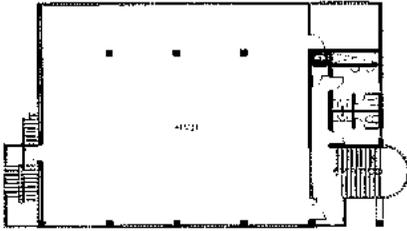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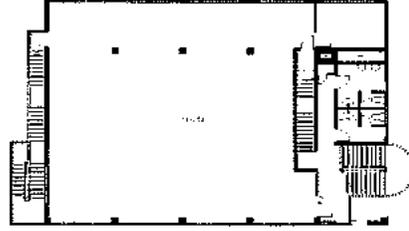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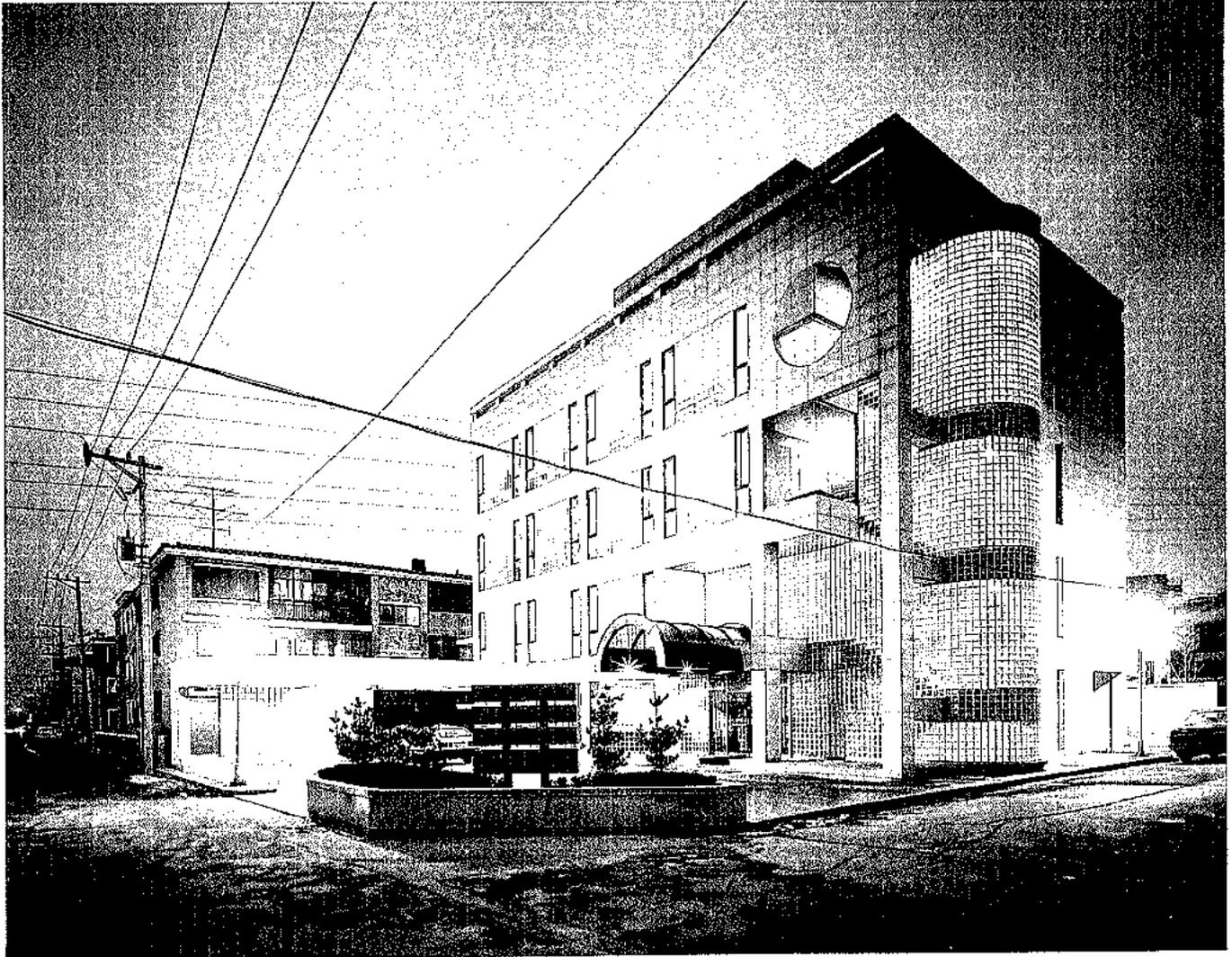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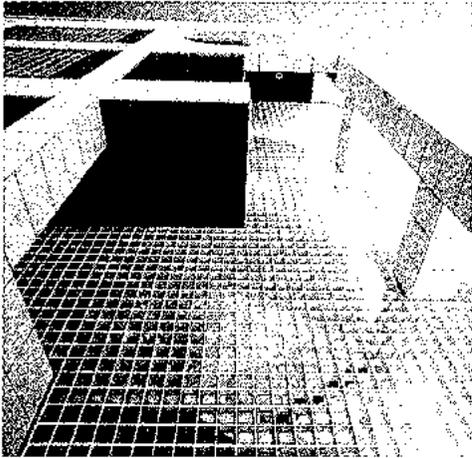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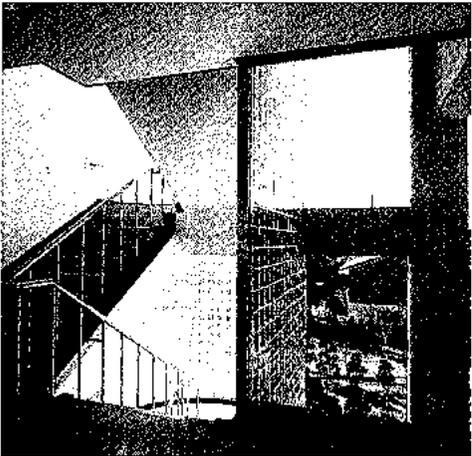
4층평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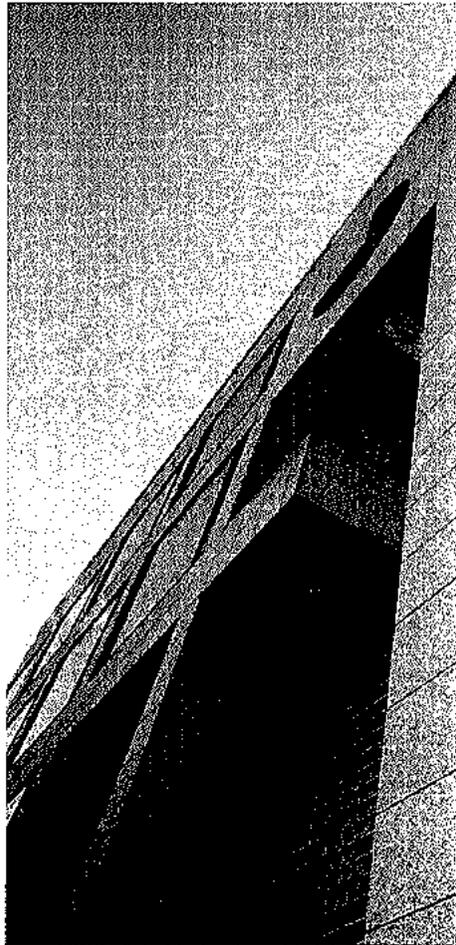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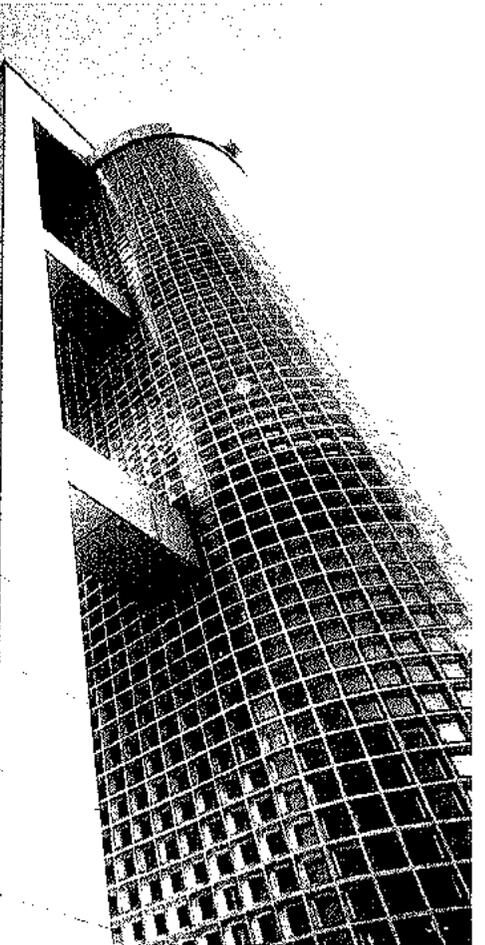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본 외부상세▲



3층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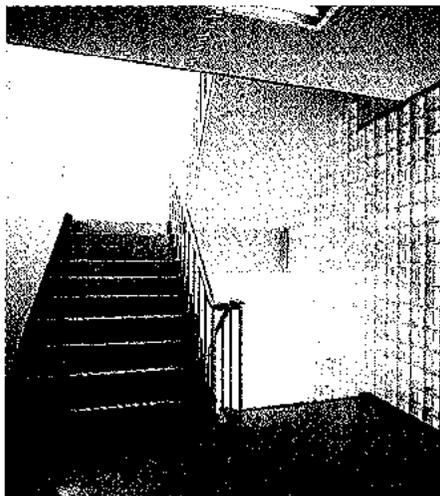


▲ 계단실외부상세



2층계단실▼

▼ 1층로비



# 학예술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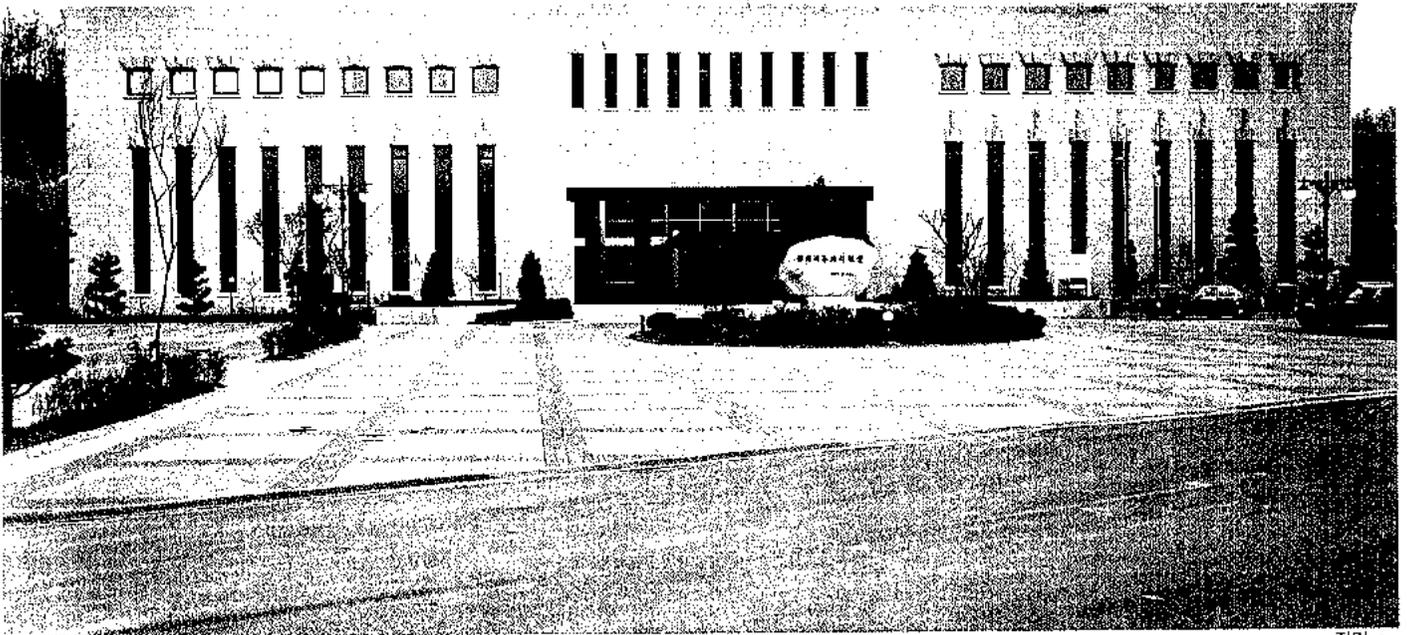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tional Academy of Arts

Designed by Yoo, Won-Jai

俞元在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3-2 / 544-4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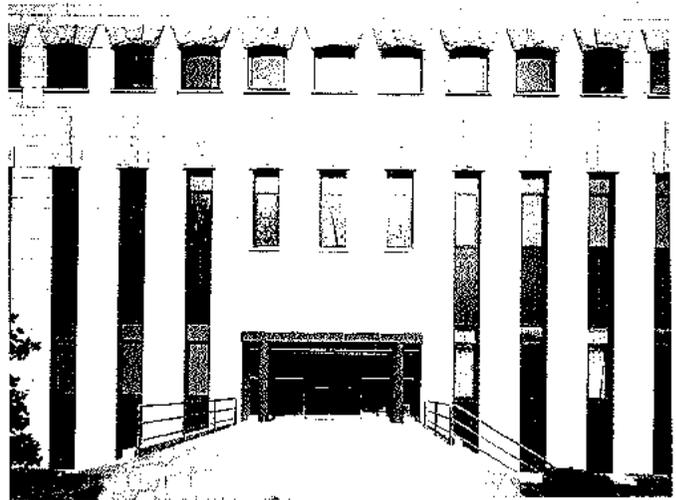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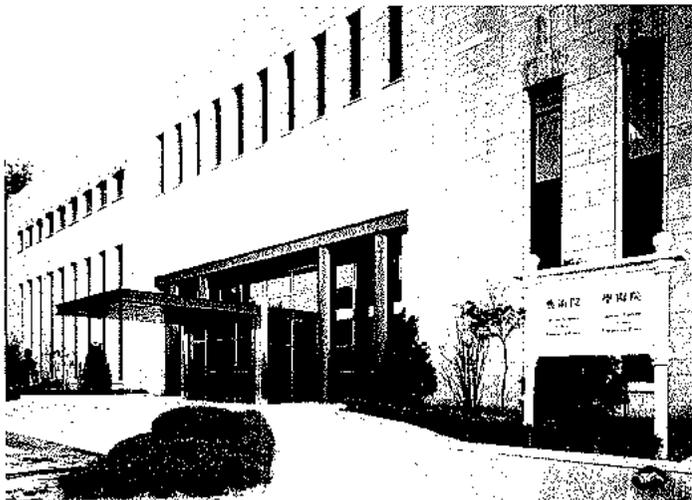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산94-4, 94-1
- 대지면적 / 6,610㎡
- 건축면적 / 1,498.72㎡
- 연면적 / 4,948.93㎡
  - 지하층 : 1,096.54㎡
  - 1 층 : 1,440.87㎡
  - 2 층 : 1,300.44㎡
  - 3 층 : 1,111.08㎡
- 건폐율 : 22.67% /
- 용적률 / 58.2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외부마감 / 화강석바너구이 간석붙이기 마감  
(일부분 록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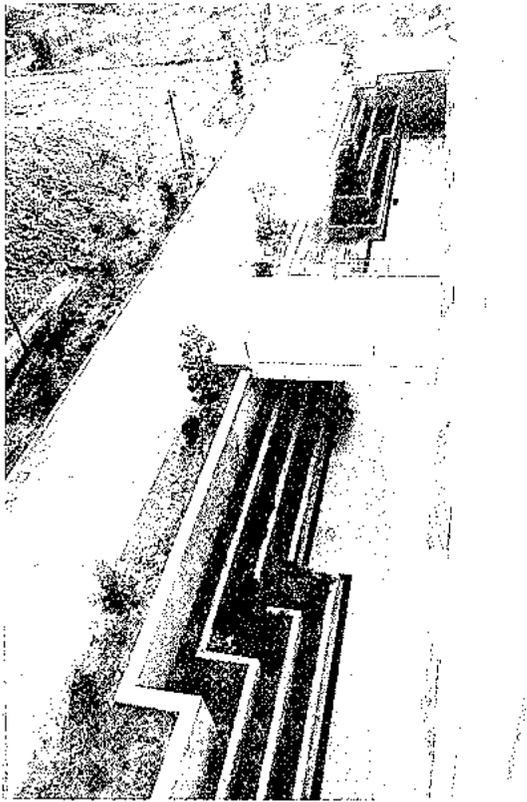


주출입구▼

▼ 남측출입구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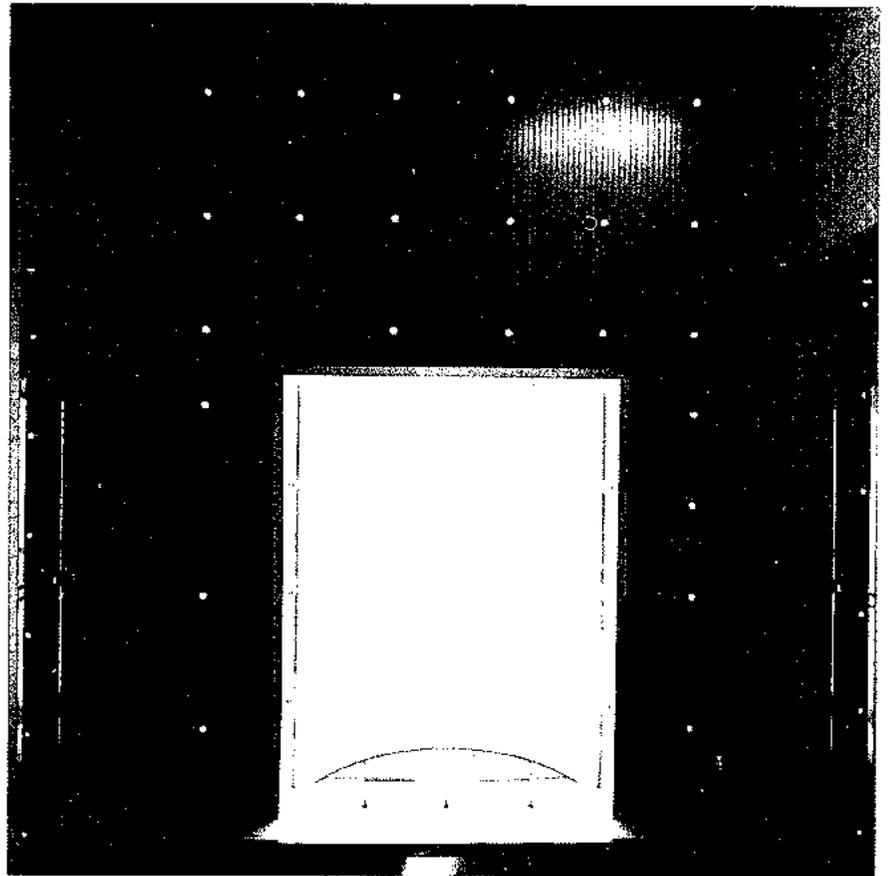
전경▲





▼ 로비계단상세

▲ 배면의 선관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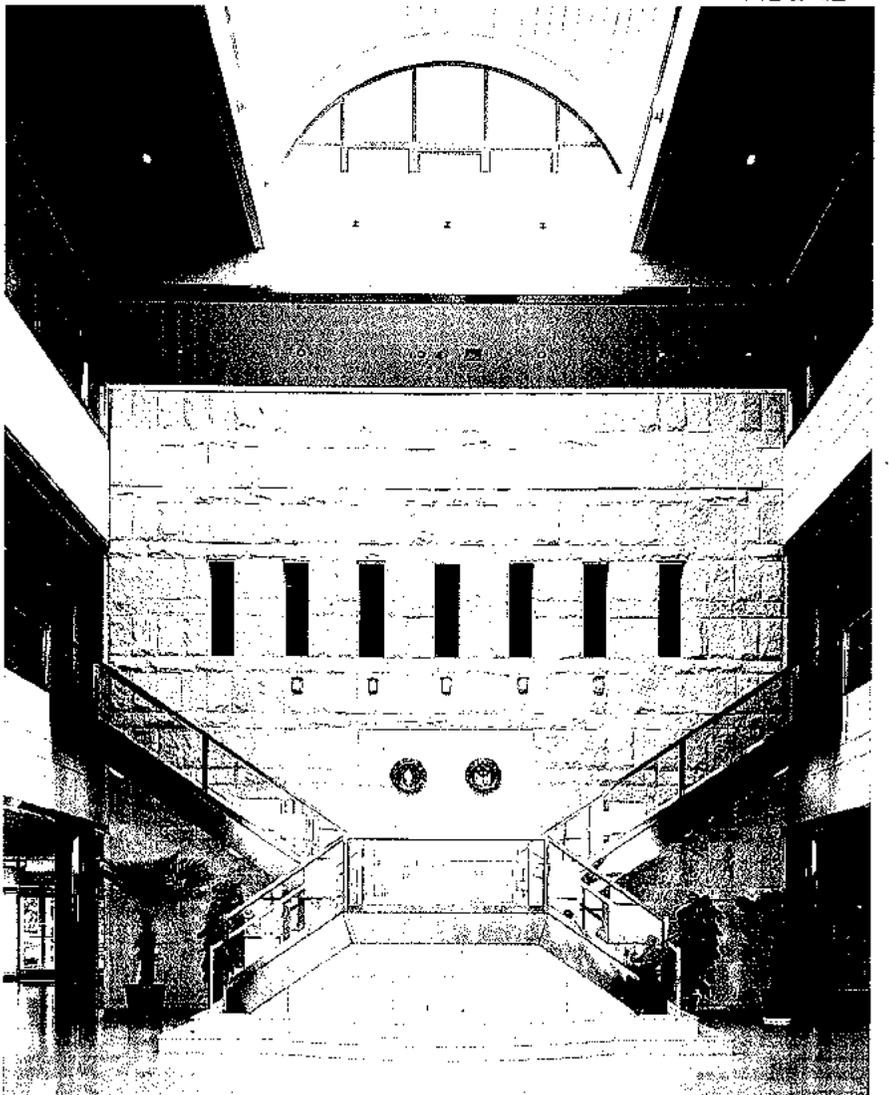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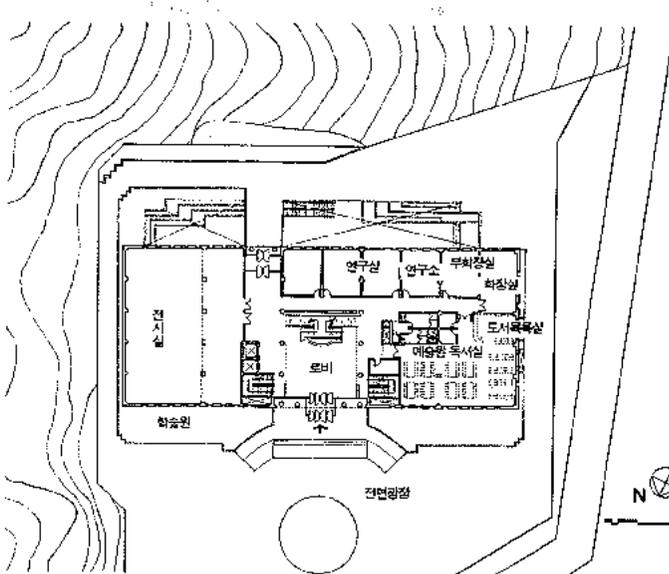
▲ 천장

▼ 로비벽면 및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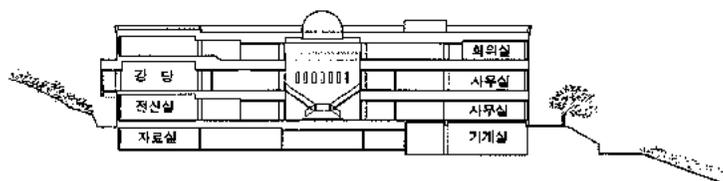


▼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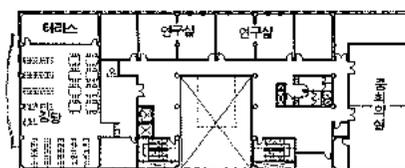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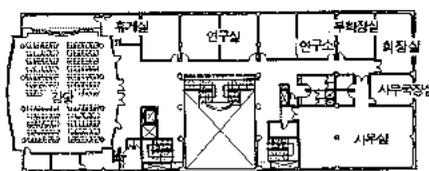
횡단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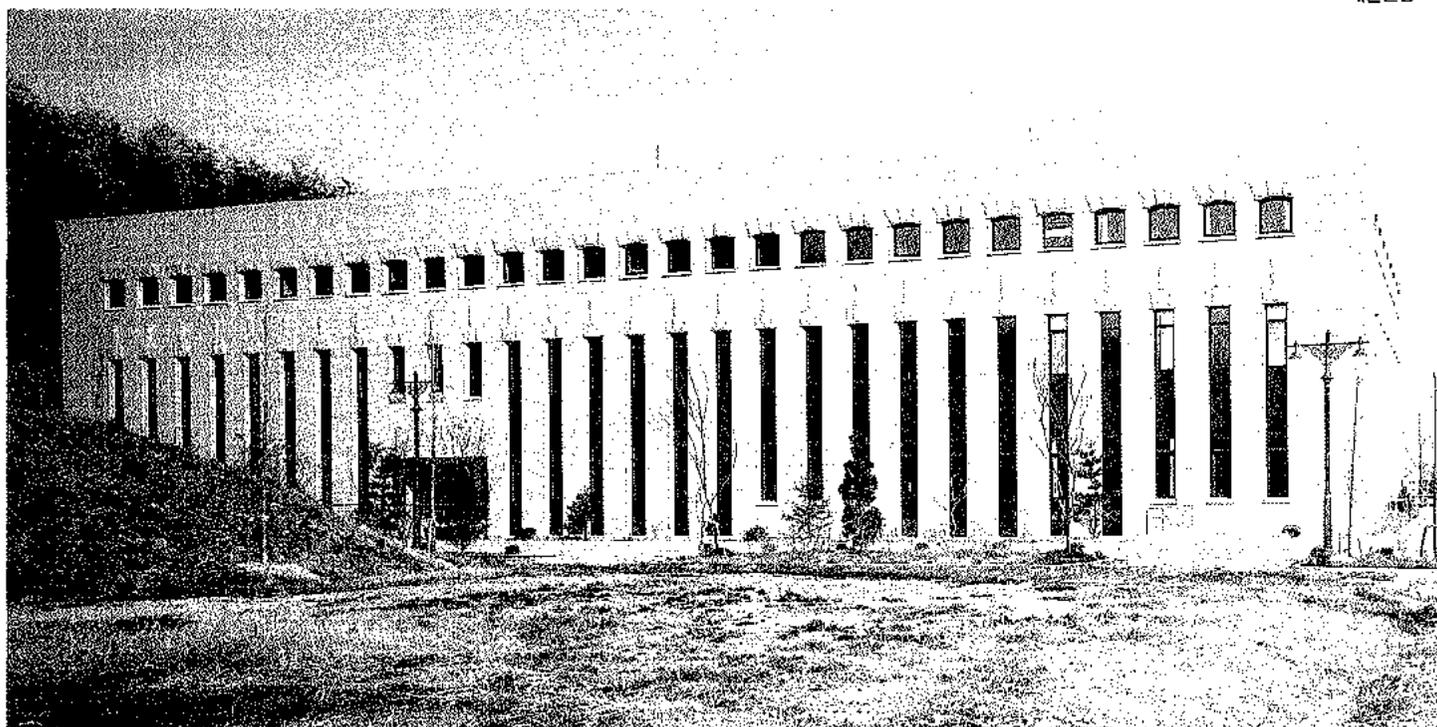


종단면도



3층 평면도

배면전경 ▼



倫理委員會

委員長 黃在濤



■ 略歷

- 1922년 부산생
- 1940년 부산공립직업학교 건축과졸업
- 1958~61년 삼성공업(주) 건축부장
- 1961~68년 국방부 건설본부
- 1968~현재 오주·일민건축사사무소 자영

戊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건축사연금사업 시행과 지부별로 독립예산제도를 시행토록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협회로서는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설치 운영되는 支部 倫理委員會 制度도 앞으로 정부의 지방자치제도에 발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聯合會制度와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명예롭지 못한 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지탄을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이 금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부 윤리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감소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成年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굳혀진 성숙된 터전을 발판으로하여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회적, 제도적 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 원인과 실상을 타하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의 자질과 품위에도 문제가 있음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과 시련의 연속성속에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른스럽고 용기있는 너그러움을 간직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에는 기필코 "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建築士像을 정립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翼



■ 略歷

- 1939년 서울생
- 1961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73~1975년 보건사회부 및 노동부 기술협력 보좌관
- 1976~1978년 신성공업주식회사 건축부장
- 1978~1980년 풍림산업(주) 이사
- 1980~현재 원·안산·다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言論自律化의 물결을 타고 新聞 放送등 언론매체의 신규 출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언론관계법인 定期刊行物 등록에 관한 法이 확정 되면서 작년말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일간신문을 비롯 4개의 방송국, 40여종의 주간지, 80여종의 월간지가 장간 또는 설립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상반기 중에 言論社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도 적지않은 週刊紙와 월간지가 좋은 내용으로 편집 발간되고 있으므로 우리 建築士誌는 協會의 내적 활동과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여 2천8백여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관련 他分野에 홍보도 겸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흐름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역대 前任 편찬위원들께서 쏟아주신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된 바탕위에서 제 때에 회원이 받아들 수 있는 建築士誌가 되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 하겠습니다. 弘報業務와 관련 하여서는, 현재의 체제하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弘報業務란 당장 투자효과를 可視的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前任 위원들께서 制圖士, 設計士로 인식되던 우리들 <建築士>로 인식되도록 몇년간의 노력끝에 바로 잡은 결과가 오늘에 나타나고 있음을 교훈삼아,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홍보적측면에서 능률적으로 꾸준히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 몇 분이 애쓴다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뜻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聲援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建築委員會

委員長 姜基世



略歷

- 1935년 서울생
- 1960년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6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1966년 유신특수설계공단 대표
- 1974년 중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1981년 (주) 서울건축컨설팅 대표이사
- 1983년~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대표

인간의 환경이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우리나라 建築文化도 Shelter의 차원에서 벗어나 美와 文化的 가치를 지닌 藝術性까지 追求 되었고 설계자의 철학이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건축계를 주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建築委員會에 몸담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뜻밖의 건축위원회를 主管하게 되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들에게 넘겨진 과제들을 부끄럽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노파심이 앞서지만 다행히 前위원들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되어 마음이 놓이고 그 분들의 도움을 바랄뿐입니다. 그동안에 각 分科委員會에서 연구한 좋은 내용들의 원고가 작성되어 印刷를 눈앞에 두고있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인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좋은 원고들이 하루 빨리 印刷되어 회원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前任委員께서 이뤄놓은 업적들이 하루빨리 여러 회원에게 전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의견을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이라는 大義아래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法制委員會

委員長 李宗燁



略歷

- 1935년 경남진주생
- 1960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65년 공군시설장교 만기제대
- 1965년 미국인계 A. A. E. 설계용역회사 근무
- 1969년~현재 건축사사무소 <우일>대표
- 1970년 건축시공기술사 합격

우리 協會는 바야흐로 跳躍의 時點에 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야말로 박차를 가하고 정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不滿과 怨聲은, 회원들의 發展指向의 意志는 뚜렷한데 그것이 수용되지 못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協會 운영에 대한 불만, 建築士法이나 制度에 대한 敏感性 등이 바로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인 예일 것입니다.

저는 法制委員會를 먼저 이와같은 會員들의 불만이 만족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不滿解消窓口化하여 根源의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立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法을 가려내어 회원들의 總意의 기반 위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合理化 하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 改正(案)과 관련하여 協會의 총력을 다하여 우리의 의견과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법의 시행과 연관된 山積한 우리의 업무를 단기간에 끝내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법 및 건축관계법과 이에대한 건축사 처벌에 관한 관계법의 개정(안),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의 개정(안), 定款 및 기타 규정과 協會의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 건축사시험의 운영 개선 등을 <깊이 생각>하고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바른 일과 소신을 우정의 설득>으로 <책임과 과감성>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國際委員會

委員長 李世勳



■ 略歷

- 1963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78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석사학위 취득
- 1966년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가입 및 이세훈건축연구소 설립·운영
- 1972~78년 KBS, TBC 건축대담 방송위원
- 1975~81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강사
- 1981~84년 중앙대학교 건축미술과 강사
- 1966~현재 건축사사무소 세하 자영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8년도 國際委員會 委員長으로 선임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미약하나마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日本建築士會聯合會와 상호 건축사 친선 교류를 위한 각서 교환과 ARCASIA 회원국 가입 및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ACA-3) 서울 유치등 대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신 前任 委員長과 委員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國際委員會 業務推進方向은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와 ARCASIA 및 ARCASIA 회원국과의 상호 친선 교류 도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한일 양국 상호초청방문교류를 격년제로 할것이며, 그 가운데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한 회원 연수단(가칭)도 파견, 교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인구 10억6천만명과 국토면적 9백60만km<sup>2</sup>의 거대한 나라이며 무한한 자원을 갖고 발전의 가능성이 큰 나라, 또 개발되지 않은, 그만큼 잠재력도 있는 나라, 중공과의 친선 교류(가칭, 韓·中 友好協議會)를 추진하여 민간 차원에서 우리 建築士가 進出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둘째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 건축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심분활용하여 우리 회원의 해외 진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협회의 對外的인 弘報窓口마련을 위하여 海外支部(支會)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이 선진 외국의 건축기술을 습득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케 하고자 해외 건축계 시찰단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작품교류(건축사진전등)를 계획하여 우리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일련의 업무를 無可無不可(꼭 가능하다고 할 수 없지만 꼭 불가능 하다고 할 수도 없다)의 신념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호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研修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 略歷

- 1932년 경남 진해시 생
- 1963년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70년~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증 대표

現代를 情報化時代라고 합니다.

세계 유수한 연구전문기관에서 분야별로 발표되는 論文만도 매달 수 백편에 이른다니 이렇게 쏟아지는 情報洪水 속의 오늘을 정보화시대라고 일컫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情報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일뜰하게 소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보 획득량이 남에게 뒤져서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適者로서 존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람은 평생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建築士에게 매년 실시되는 建築士研修教育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가르쳐 준다는 뜻에서 평생교육의 취지와 잘 조화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建築士研修라는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情報를 媒介하여 補充的 차원에서 專門性을 높이고 創意性을 자극하여 주는 제도로써 정착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本人은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적은 힘이나마 바쳐 건축사에게 합당한 研修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方法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理事

朴成圭



■ 略歷

- 1935년 서울생
- 1958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78년~1981년 본협회 감사
- 1977~1981년 서울중구청 도시정비위원
- 1984~현재 종합건축사 경신·장·합성·고려건축대표

本協會의 실질적인 정책결정 부서라 할 수 있는 理事會에 참여할 수 있도록 理事의 일원으로 선정해 주신 會長님에게 감사드립니다.

淺學非才하여 협회발전에 도움드릴 수 있을런지 자문해 봅니다만 7代·8代 理事로서 협회 업무에 참여했던 경험을 기초삼아 여러 유능하신 理事님들을 협조해 드리면서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협회 理事는 2천8백여 회원의 權益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로부터 주문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무소의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적극적인 희생과 봉사를 바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協會理事라는 職位는 결코 명예직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協會가 본인에게서 희생과 봉사를 필요로 하고 이사로서 불러주었다는 이 귀중한 뜻을 받들어 보람있게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지난 3회 理事會 때에는 지명에 의하여 年金管理를 연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는 바 구성하여 주신 委員님과 또한 회장단과 이사진 여러분들의 經綸의 힘에 의지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監事

尹鳳源



■ 略歷

- 1937년 경기 이천 생
- 1961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81년 한양대학원 졸업
- 1982년~현재 건축사사무소 원건사 자영

協會는 會員의 社會的地位를 높이고 權益을 伸張하는 機能에서 그 존재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협회가 협회로서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여 그 存在價値를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法令과 制度的 측면에서 회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對官廳業務가 활발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국민에게 建築士를 알리고 理解를 높일 수 있도록 對民弘報業務가 주도면밀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對官廳業務와 對民弘報業務야말로 協會業務의 根幹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視角에서 협회업무를 파악해 볼 때 未洽感을 덜 수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본인은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方案을 研究하고 또한 會長團에게 건의하는 것을 監事로서의 職務目標로 삼고자 합니다.

監査의 機能에 관해 소신을 밝힌다면 과해치고 들추어내는 것만이 監査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협회운영상 制度的 矛盾은 없는지, 사무처(국) 직원의 創意가 외면당하거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이런 단점과 결점을 찾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에 감사의 優先을 두고자 합니다.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년이면 임기를 마치고 물러 서십니다. 후임자가 취임하므로 連續性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무처(국) 직원은 협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實務的으로 담당시킬 필요에서 확보한 人力이므로 직원의 근무자세는 협회의 기능 발휘 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러한 뜻에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케 하여 能力을 다해 근무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事項에 유의하면서 任期동안 협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監事로서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 시대 建築士들의 獨白

— 建築士 國家考試를 中心으로 —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이란 없다. 당대에 본인이 못한 말이나 노래는 언젠가 후일에 반드시 누군가가 부르게 된다는 역사의 체험을 알고 있다. 우리 직업이 건축사란 전문직이다. “노가다”도 아니고 代書쟁이도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建築士 國家考試란, 옛날로 치면 科擧같은 것을 치루어 합격하고 (장원급제),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장관으로부터 사무실개설 허가를 받아서, 건축시험회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어, 면허증과 사무소등록증을 나란히 벽에 걸어 놓아야 했고, 사무실 명칭도 自營은 규제나 지시(행정관서에서)를 받아서 비로소 건축의 창작활동(그들은 영업행위라고 영업세를 매년 내게 했다)을 하는데 말로는 간단하지만 복잡하기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전공분야 쪽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까다로와야 하는지 분노를 느낄 정도였다.

獨白이란 대상없이 혼자하는 말 즉,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웅변보다는 더 큰 대상에게 호소하고 고향지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늘이 1988년 2월 25일이다. 즉 國民總選에 의해 처음으로 正統性을 획득한 13대 大統領의 취임식 날이다. T.V. 로 그 광경을 보고 이 붓을 든 것이다. 오늘이 오기까지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파란많은 혼란과 사건들도 많았다. 취임식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실감있게 역사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평화적 정권의 이양이니, 새로운 民主化 時代의 시작이니, 또는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고 정직한 행정,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개방, 자율화, 권위주의의 타파라는 등의 생동하는 낱말들로 수놓아 지면서 이어져 나갔다. Show 적인 면은 보이지 않았고 기계적인 박수도 적었다. 각하니 하는 말도 들리지 않았고 좌석배치에 있어서도 어떤 신경을 쓰거나 격차를 두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해내는데 왜 이때까지는 이와 정반대적인 작태가 벌어졌으며 구토증나는 權威主義나 獨善이 판을 쳤을까? 그때는 우리 무서웠고, 겁을 먹고 있었고, 하고싶은 말을 할수 없었고, 수많은 제약을 받았었다.

누가 우리에게 겁을 주었고 독선과 권위의 판을 만들었던가? 偉人한 普通사람도 될 수 없는 우리 건축사들. 어쩌면 小市民, 凡人 零細庶民들이었던 건축사들은 겁을 먹고 살았고, 말을 못하고 살았고, 기가 죽어서 살았고,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살아왔고, 어떤 체제나 기구에 종속된 모습으로 살아왔다. 누가,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했던가? 아무도 그 대상을 본적이 없다. 그러나 어슴프레나마 속으로는 함말이 많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자위도 해왔다. 아니 어제까지 용케도 참아왔다고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自慰란, 사회의 제반상황이 힘의 함수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대항할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쓸개를 씹듯 스스로 터득한 처세술이었다 할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만 두고보자, 기다려보자, 우리도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응어리가 만천하에 포효할 날이 올 것이며 겁을 먹은 우리 우리들에게 겁을 준 대상에게 겁나는 일을 해줄수 있을 것이고 도리어 그들에게 겁을 줄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자위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13대 대통령 취임식의 광경을 보고 새대통령의 취임사 속에 확실히 국민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성인의 말같은 어구가 나열되어 있음을 들었다. 여기서 이런 말을 믿어도

좋은가? 라는 일말의 起憂도 없진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나 결의가 엿보여 “아, 이렇다면 믿어볼만하고 그곳이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民主나 言論에 대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자유, 자율화, 협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때까지 해야하면서도 못한 말들을, 봄 시냇물에 얼음이 녹아 흐르듯이 풀어내 독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와 무관한 남의 일이란 없다. 당대에 본인이 못한 말이나 노래는 언젠가 후일에 반드시 누군가가 부르게 된다는 역사의 체험을 알고있다. 우린 직업이 건축사란 전문직이다. “노가다”도 아니고 代書쟁이도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建築士國家考試란 옛날로치면 科擧 같은 것을 치루고, 합격하고(장원급제),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지방장관으로부터 사무실개설허가를 받아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어, 면허증과 사무소등록증을 나란히 벽에 걸어 놓아야 했고, 사무실 명칭도 自營은 규제나 지시령(행정관서에서)받아서 비로소 건축의 창작활동을(그들은 영업행위라고 영업세를 매년내야 했다)하는데 말로는 간단하지만 복잡하기 말할 수 없고 자기의 전공분야쪽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까다로워야 하는지 분노를 느낄 정도였다.

위의 이야기는 建築士國家考試에 합격한 다음의 이야기이지만 이 고시를 치루는데의 절차나 양식이나 규정 또한 복잡한 것이고, 응시자격에서부터 절차, 과정의 迷路같은 규정들, 시험요원의 위임에서 출제·채점 및 당락 결정등, 이 모두가 어떤 기록되지 않은 묵안된 要領이나 體質어였던 것이고, 그런것들이 앞에 말한 권위주의, 독존주의나, 응시자들의 건축설계 능력을 가늠한다기보다 출제의 권위와 관의 위엄과 권한,

체점의 효율이나 편리,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의 배합율등, 합격자수의 커트라인의 결정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건설부)의 힘과 독선이 이런 일을 당연한 것으로 태연히 해치워왔던 것이다.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주무관청인 건설부와 출제에서 채점을 하는 시험위원들(대개가 위촉받은 공과대학교수들이다), 출제의 내용, 건축사협회의 입장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가소로운일들이 허다한 것이다.



새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건축사국가고시도 건축관계 3 단계에  
자율적으로 맡겨 보면 어떨까.  
3 단계가 고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건축의 본질이나 특성을 살리고  
국가나 사회의 건축정책에 자문을 주고  
가장 공평하고 건축적인 고시를  
운영해낸 다음 면허도 그 위원회가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이런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외국의 선진국에서  
실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먼저 주무관청인 건설부인데 알다시피 官이므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建築士國家考試의 立案에서부터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막말로 관료주의적인 업무진행을 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명분이 건설부인 자기네 소관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힘이란 정의보다도 약에 대한 경향이 많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입안이나 계획은 長次官의 결제를 득했으나 기안은 말단에서, 어찌면 전문적인 공무원들이지만 건축사면허를 취득 못한 부위에서 사무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계통을 따라 長次官의 결제를 거칠 뿐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그 상대자들의 집단이라고나할 건축사협회와는 협의나 동의를 없다. 상대의 동의없는 처사를 우린 독선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일의 진행이 당연화되면 우리도 훗날 후세들에게 못난 조상이 될 것이고, 협의나 동의없이 독단이란 目標直達로만 가는 것을 우선하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사회의 속성에 빠질 것이다.

둘째 위촉된 考試委員들의 문제이다. 대부분이 교수들이다. 교수들은 문제가 어렵고 까다롭고 애매한 것을 출제해야 자신들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점의 고역을 면하기 위해 객관식문제를 많이 낸다. 이들은 건축과 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객관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체점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서인지 실체가 그러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972~73년에 필자도 시험위원의 위촉을 받은 일이 있어 출제된 전체회의에 참석했더니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고 참을 수 없어서 주관식문제 80%에 객관식문제 20%를 주장했고 의결시킨 다음, 이率は 변경시키지 말고 계속하자는 것까지 약속한 바 있었고 당년의 고시에서 합격률이 전체응시자의 26%가 나온 것인데 그 당시로서 가장 많은 합격률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후 수년간의 합격률을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는데 13%~17%가 고작이었다. 여기서 醫科大學출업생들의 專門醫試 합격률을 알아 보았더니 약 80%선임을 알고 이나라의 공과대학 건축과는 다른나라 학교의 학과인가, 이런 문제를 문교부는 알고있을까? 알고있다면 건설부소관이냐만 오불관이란 것인가, 라고 흥분하고 의문을 느낀 기억이 새롭다. 건축사국가고시란 백번 확실히 말해서 학교의 入學試驗이 아니다. 어떤

기관이나 회사의 채용시험도 아니다. 건축설계능력을 가늠하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資格考試인 것이다. 따라서 극언하면 전원이 불합격할 수도 있고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고 합격한 후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든지 안하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건축면허증을 주면 되는 것인데, 솔직히 건설부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년간에 예상되는 건축설계 업무량과 배출된 건축사와 배출될 건축사의 수의 대비 즉 작업량과 인력의 수요계획이 개략적으로나마 수립되어 있는가를 의심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어느 해 갑자기 우리의 건축계가 중동과 사우디의 활발한 건축경기로 호황을 누린 적이 있었을 때를 회상해보면, 각 설계사무실의 직원들을 건설회사들이 설계사무실 봉급의 3배 이상을 주고 뽑아간 적이 있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10년에서 15년정도씩 키운 직원을 일시에 5~6명을 빼앗겼었다.

대규모 재벌급회사들과 영세적인 설계사무실과의 사이에 직원봉급을 가지고 대항할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젊은이들은 다액의 봉급과 외국에 간다는 흥분에서 산배가 굵은 사무실을 박차고 중동으로 갔던 것이다.

이때와 같은 경우 建築士考試의 合格者率은 어찌될 것이며, 설계보조사나 보조원이나(등록시킨다) 복잡한 규정(법이 아닌 행정측의 자의로 하는 권한인 재량)등도 있지만 그후 몇년있다 중동과 사우디가 사양길로 들어서자 기자재와 장비와 인원이 철수하면서 언제인가 유혹해서 뽑아간 인원들을 대가다 뭐다해서 해고시켰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옛 사무실에 와보니 규모나 봉급이 합당치 못해 기웃거리다가 거리로 나갈수 밖에 없었다. 바로 전례를 체험했다면 작업량과 인원의 수요계획을 정밀히 한 다음 건축사 시험의 합격선의

커트라인을 부득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을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해가 가지만, 工專은 더욱 많이 설치하면서 그들이 공전을 졸업하고 직접 현장에 고급직공으로 나갔는가? 거의가 대학원입시시험을치고, 고급이란 명찰이 붙여진 직공을 못하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工高로 내려와서 보면 거의가 대학아니면 공전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린 보고 있지 않은가. 극언해서 建築士國家考試는 建設部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文敎部 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까지 가져보게 된다.

“버나드 쇼”는 희곡 한편 쓰는 것보다 법조문을 하나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다. 건축사법의 개정문제나, 법은 아니지만 각종의 令이니 細則이니 規定이니 條例등 심지어는 어떤 상부의 지시는 쉽게, 간단히 남발되고 法이상의 효력과 피력을 가지고 행사된다. 교육을 시킨다, 모여라, 안오면 벌을준다. 수첩을 가지고 본인이 와야 된다. 각 구청에선 구내건축사가 자기들의 수출이나 되는양 오라가라, 협회를 통하거나 공문, 서류로도 가능한 일까지도 집합 명령이 가끔 내린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아침 새대통령은 인권을 절대 보장한다고 했다. 두고볼 일이다. 국민자존의 시대가 열렸다고 했고, 관이 민에 군림하는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과 자율이 국정의 우선순위로 확언을 했다. 우린 두고 지켜볼 것이고 또 이런 올바른 일에 협력하고 실천을 해야할 것이다.

어제까지의 묵은 용이리들은 한강에 속시원하게 흘러보내고 새 출발하는 民主의 시대가 출발신호를 올렸다. 여기서 우리들의 시대의 건축사들의 독백은 시작되어야 한다. 그 주제가 금년 5월에 실시될 건축사 국가고시 문제이다. 앞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것이 사실과 같은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새대통령의 취임사대로 건축사국가고시도 건축관계3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보면 어떨까. 3단체가 고시위원회를 조직해서 건축의 본질이나 특성을 살리고 국가나 사회의 건축정책에 자문을 주고 연구해서 가장 공평하고 건축적인 고사를 운영해낸 다음 면허도 그 위원회가 부여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외국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1974년 호주를 여행했을때 수도 “캄베라”에서 N.C.D.C 란 기구를 견학했다. 이 N.C.D.C(National Capital Development Committee) 라는 약자는 수도개발위원회란 뜻이지만 공무원이 한사람도 없는 민간건축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놀라운 것은 건축허가에서 면허수여시험, 전국토개발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를 관이 아닌 건축전문가들로서 처리하고 있었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관공서의 건물신축시에도 이곳 N.C.D.C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우리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것을 보고 누가 호주를 시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깎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영국의 봉건적 중세기 사회에서 사상범이나 정치범이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유주의자들이요 개혁주의자들이요, 민주주의자들이 었을터인 즉 이런사람들이 본국에서 민호주란 무인의 신천지에 유배되었으나 그들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요, 이곳에서 그들 理想의 국가를 건설하려고한 것이 호주일텐데 모르는 무식한 세계인들은 호주는 죄수들이 세운 나라라고 한다. 이것이 자유요, 자율이요, 민주화였던 것이고 타민족이 이민해오면 오염이 된다해서 백호주의란 이민금지의 사상도 대두되었었고(현재 이법이 철폐되고 이민이 가능하다), 하여간 이런 우리 사회의 대전환의 기회에 건축사국가고시를 건축3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

# 경제적 운영, 효율적 관리



張基雄  
大邱支部長

부족한 사람이 제6회 지부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4대 지부장의 대임을 맡게된 것을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를 아껴주신 여러 선배님과 동료 회원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대 지부장과 회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써, 쌓아놓은 기반 위에 평소 늘 생각해오던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뿌리가 안착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한사람의 기술인이기 이전에,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인격자가 될때, 우리의 튼튼한 울타리가 형성되며, 우리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길은 바로 단결이라는 이름아래 회원간의 이해와 협조하는 풍토가 안착이 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부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인 운영과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로, 복지회와 신탁을 보다 더 체계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며, 기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내외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수용하여 도서검토 제도를 다소 개선, 전회원이 참여하여 도서의 질을 높이고, 지부 운영 방향을 실제 확인함으로써 지부 발전에 아낌없는 이해와 지도를 바라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를 법규분과, 복지분과, 기술분과로 확대 개편하여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전회원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저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200여명 전 회원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목적인 바를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약력
- 1939년생 본적 : 대구
  -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영남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구 풍남토타리클럽 초대, 2대 회장
  - 대구직할시 건축위원회 위원

#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9)

金晶東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꾸밈」주간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 56. 大韓證券去來所

위 치: 중구 明洞  
 착공년월일: 1921. 8. 14  
 준공년월일: 1922. 12. 26  
 설 계 자: 相澤啓治  
 시 공 자: 沼波石松  
 건축 규모: 구조: 벽돌조+석조  
 층별: 지하半, 지상4, 옥탑 Dome  
 대지면적: 802.2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165.14평

보 존 상태: 第一投資金融에서 사용중

우리나라에서의 실제적인 證券 去來 (Stock Exchange)는 1920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이 후 곧 거래소 건물 신축 계획은 성안되었고 2년 후 건물은 세워지게 됐다.

그 건물은 오늘 현재 明洞 입구의 좌측 골목길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터는 거래소가 세워지기 직전까지는 李王朝소유의 국유재산이었다.) 거래소의 신축 당시만 해도 건물의 주위는 한적하여 건물의 위용은 돋보였었다.

그러나 明洞이 발전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거래소는 林立하는 상업건물군에 가려 대중의 시야를 떠나게 되었다.

신축 시의 건물명은 「京城 株式 會社 取引 市場」이었다.

시장은 1923년 6월 20일 오후 3시반

200여명의 증권 관계자가 건물의 樓上에 초대되어 신축 피로연을 열면서 개장되었다.<sup>2)</sup>

시장 본관의 건물 공사는 1921년 8월 착공되어 1922년 12월 준공되었다. 건물의 규모는 반지하 1층과 지상 4층, 그리고 前面 角部의 大型 Dome으로 이뤄졌다. 건평은 165.14평이었다. 건물의 양식은 이른바 “近世 獨逸式”을 채택하고 있다.<sup>3)</sup>

현관부는 街角에 두었고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폭을 넓게 했고 공신력을 강조키 위해 권위적인 기둥 5개를 부채꼴로 내세웠다. 그 재료는 화강석으로 마감했다.

또한 전면부의 角面을 제거하고 곡선 처리했다. 이 부분은 Dome에서 극대화되었다. 따라서 마치 獨逸軍의 요새를 보는 느낌을 준다. 반대로 측면부는 둔중하게 보여졌다. 8·15 해방과 더불어 日本人의 증권 시대도 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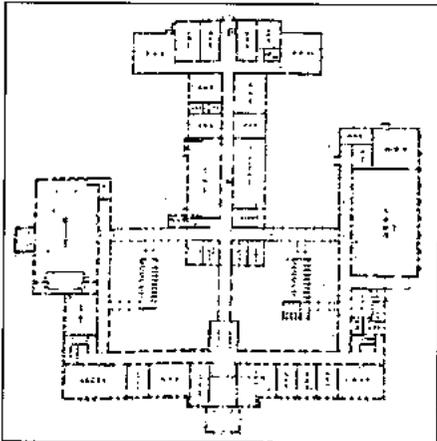
그러나 6·25 동란으로 건물은 커나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sup>4)</sup> 건물의 포인트인 Dome은 이 때 사라져 버렸다. 거래소는 이 후 지붕부를 모두 철거하고 1개층을 수직증축했다.

전쟁의 상처가 차츰 가시자 1956년 3월 3일 우리나라의 自生的 증권계는 다시 활성화 되었고,<sup>5)</sup> 明洞 골목 일대는 증권가로 번창하게 되었다. 증권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 校舍群



▲ 校舍 平面圖(朝鮮と建築 1928. 3)



▲ 1923, 京城帝大 豫科 校舍本館(近代韓國)

## 57. 京城帝大豫科

위 치: 淸涼里  
 착공년월일: 1923. 5. 5  
 준공년월일: 1923. 12. 15  
 설계자: 總督府  
 시공자: 淸水組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 지상3, 옥탑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250.75평  
 보존상태: 1975년 헐림

푸른 하늘 저멀리  
 鶴이 춤추는 高麗의 별  
 밝은 빛은 널리 퍼져  
 서울의 東녘  
 千年의 老松 그늘에  
 모인 우리들  
 가슴 속에 불타는  
 전홍의 熱血  
 넘치는 氣慨만이  
 高貴한 보배<sup>1)</sup>

總督府는 1923년 京城帝國大學  
 창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豫科  
 교사부터 짓기 시작했다. (1923. 5. 5.)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淸涼里  
 永徽園입구 동측) 예과의 새 캠퍼스에서  
 교사 착공식은 거행되었다.

당시의 청량리는 松林이 울창했고,  
 淸涼寺 등 절들이 주변에 있어  
 피서지로 큰 역할을 다하던 곳이었다.<sup>2)</sup>  
 이 곳에 교의 전차(東大門-淸涼里)가  
 놓이므로 해서 京城帝大 豫科는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本館 교사는 붉은 벽돌조 3층으로  
 세워졌다.<sup>3)</sup> 이른바 近世復興式의  
 외형을 채택했다.

本館은 1923년 12월 15일 준공되었다.  
 아울러 강당, 기숙사, 도서관도 계속  
 세워지므로 해서 이듬해 校舍의  
 落成式을 갖고 (1924. 5. 6) 開校  
 하였다. (1924. 5)  
 本館의 正面은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대칭형으로 했다.  
 중앙 현관은 불임 현관으로 처리되었다.  
 그 입구는 장식이 제거된 3방향의  
 아치를 틀었다.

正面 현관부 3층의 창문은 5개의  
 작은 아치로 분할했다.

박공 부분은 평면부까지 들출시켜  
 전체적으로는 3단계로 나타냈다.  
 지붕에는 Dormer를 3개씩 2組로  
 뚫었다.

수용인원 80명의 기숙사, 進修寮도  
 세워졌는데 이 건물들은 사용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문제집도 보였다.

『...日本 式으로 한다면 마루 바닥에  
 다다미만 깔면 된다. 그러나 예과 당국은  
 朝鮮 式도 日本 式도 아닌 洋式과  
 日式의 질충식을 채택했다.

침대를 놓고 그 위에 다다미를 깔았다.  
 침대는 한 방에 6개씩을 놓았고 창하나  
 간격으로 책상과 의자를 마주보게 배치  
 했다.....』<sup>4)</sup>

예과 교사의 주변은 울창한 松林으로  
 둘러싸여 “向上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자기도 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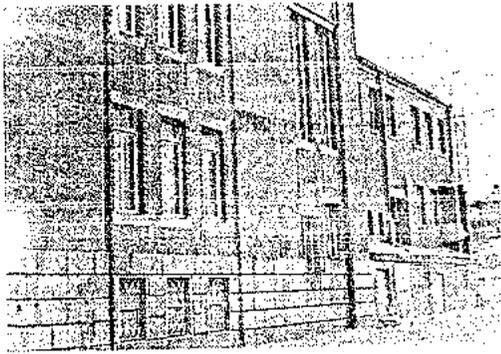
이 校舍는 8·15 해방후에도 서울대학교의  
 예과 교사로 계속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1970년대초 총무처 소유로  
 되면서 공무원 교육원으로 사용되기도 했  
 했다.

1975년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모두 헐려져 버렸다.

□ 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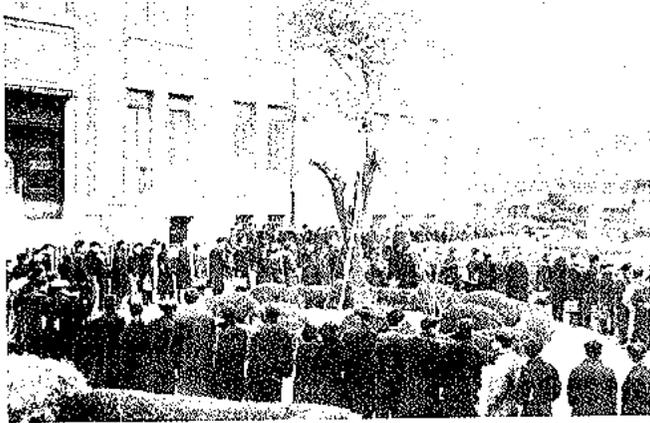
1. 京城帝大 豫科 校歌 (1節)
2.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p. 58.
3. 당시 西大門 刑務所 服役囚들이  
 건물신축 공사장에 동원했다는 기록도  
 있다.
4. 「京城帝國大學」, p. 81.
5. 이 곳 가까이에는 林業 試驗場이  
 자리잡고 있다.



▲ 도서관의 書庫(朝鮮と建築, 1923. 2)



▲ 헐리기 직전의 도서관



▲ 이용객이 즐지어 있는 1947년의 풍경(월간조선, 1988. 1)

## 58. 国立中央図書館

위 치: 小公洞 6번지  
 착공년월일: 1923. 3  
 준공년월일: 1923. 12  
 설계자:  
 시공자:  
 건축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지하 1, 지상 2, 옥탑  
 대지면적: 1,978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876 평  
 보존상태: 1974. 10. 철거

설립 당시의 명칭은 「總督府立京城図書館」이었다. 日帝의 新教育令 公布기념 사업으로 民衆文化의 향상과 사회교육기관의 목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대지는 高宗이 皇帝의 即位式을 가졌던 곳으로 원래는 李氏 王族들이 거처하던 南別宮 터의 일부였다. 이 터는 1914년 「朝鮮호텔」이 세워지면서 파손되기 시작, 1923년 도서관이 세워지면서 그 흔적을 모두 잃어버렸다. 본館의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外皮는 벽돌로 덮기로 했다. 도서관에 할애된 대지는 1,978 평이었다.

도서관은 東京의 「帝國図書館」을 표준으로 삼아 르네상스 스타일로 설계했다. 건축 규모는 당시 京城 인구 30만을 기준, 본관 676평, 書庫 200평으로 했다.<sup>1)</sup> 도서관은 1923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건물내 평면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지하층: 식당, 신문, 잡지실, 난방실, 소독실, 재본실, 숙직실, 창고  
 1 층: 강연실, 사무실, 아동 열람실, 관장실, 응접실, 회의실  
 2 층: 보통열람실(78평), 특별열람실(24.75평), 부인실(24.75평), 아동실(24.75평), 복록실, 휴게실, 도서대출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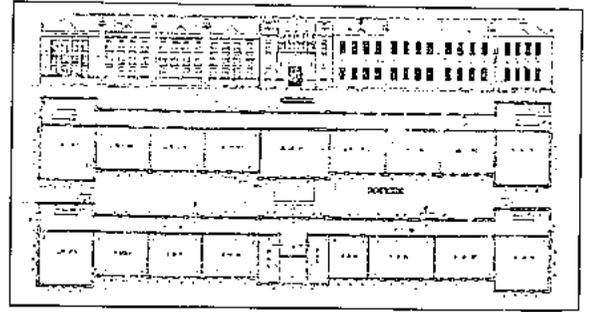
로 되어 있다. 특히 시고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5층으로 나눠 설치했다. 부속건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대중문고: 약 32평의 작은 건물로 日本에 있는 大阪毎日新聞社의 기부금으로 1932년 1월에 준공, 독학하는 청소년을 위한 무료열람실로 사용했다.  
 제2서고: 장서의 증가에 따라 1934년 9월 본館 북편 뒷뜰에 증축한 서고로 전평은 약 300평이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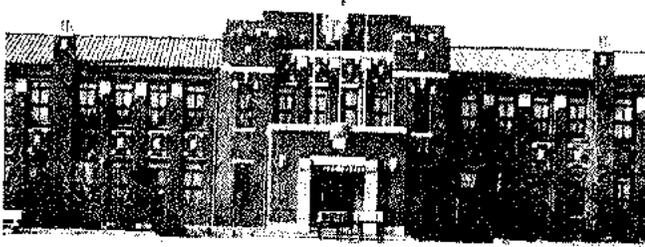
이 밖에도 증축된 목록실, 신문실, 실록실, 婦女子文庫 등이 있었다. 日帝는 식민 통치의 道具로 朝鮮 민족에 관한 일체의 古書 문헌을 조사, 수집하였고, 각종 선전장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했다.<sup>3)</sup> 8·15 해방이 되면서 美軍政府은 国立図書館이라 이름을 바꾸었다.<sup>4)</sup> 그 후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sup>5)</sup> 原狀의 建物形을 유지해 오다가 1974년 10월 롯데그룹에 매각되면서 되면서 「半島호텔」과 함께 헐려버렸다. 이로써 富閣이 도서관으로 도서관이 다시 百貨店이 되어버린 것이다.

### □註□

1. 英國에서 공립도서관법이 제정된 것은 1850년이다. 그 70년 후에서나 이 땅에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2. 이 건물은 8.15 해방 이후부터 1974년 10월 헐릴 때까지 韓國図書館協會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3. 「서울600年史」, 제4권, pp. 824~825. 「朝鮮と建築」, 1923. 2, 1923. 6.
4. 分館으로는 1942년 10월에 준공된 阿峴분관이 있다. 198평의 書庫와 51평의 부속건물로 되어 있다.
5. 6.25동란중 카톨릭神父(聖職者)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 京畿道立 師範學校의 平面, 立面圖(朝鮮と建築, 1928. 3)



▲ 교사의 현관부



▲ 2층 교사전경

### 59. 旧, 京畿工高 本館

위 치: 아현동 283  
 착공년월일: 1923. 10. 3  
 준공년월일: 1924. 5. 31  
 설계자: 西島廣太郎  
 시공자: 今岡熊之助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 지상 2, 옥탑  
 대지면적: 20,000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279평  
 보존상태: 아현중학교로 사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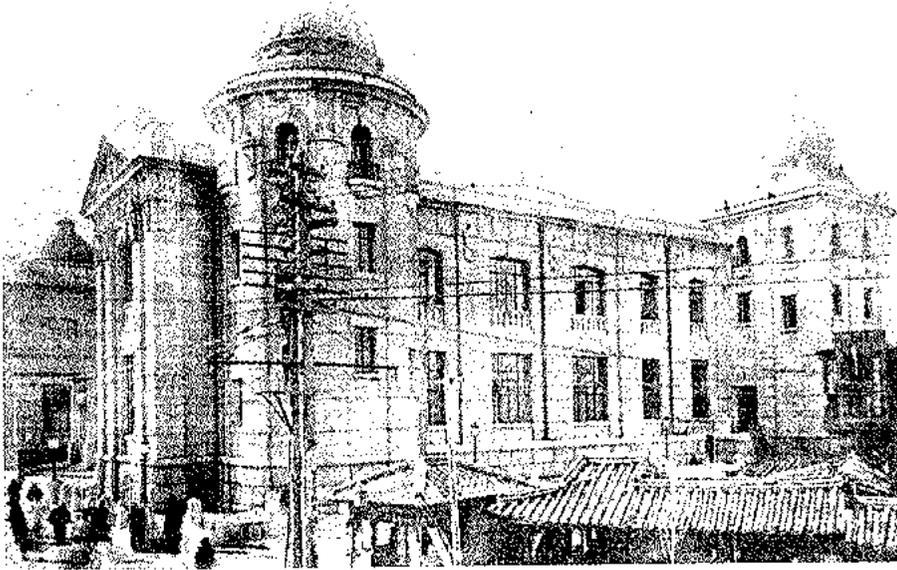
아현동 고가도로 麻浦 방향 쪽에 소재하고 있다.  
 이 校舎의 原址는 「西活人署」였다. 西活人署는 漢城府의 痲瘋者를 救活하던 機關으로 東西 두 곳에 설치되어 오다가 1822년에 폐지되었다. 이 西活人署 터에 세워진 교사가 경기도 公立 師範學校였다.  
 사범학교 교사는 1923년 10월 착공했고 이듬해 5월 준공되었다.  
 대지 면적 20,000여평에 붉은 벽돌조 교사 2층으로 세워졌다.  
 건축면적은 279평이었다.  
 현관부는 단층으로 3方向 進入이

가능하게 했고 이 교사의 의장적 핵심이 되었다. 장식적 머릿돌(要石)이 3면에 박혀 있다.  
 현관의 상부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으로 点描되었다. 이 부분은 近代의 학교 교사의 典型이었다.  
 교사의 전체는 좌우 내칭형으로 중앙 현관부외에 좌우로 각 4Bay씩 나뉘 펼쳐져 있다.  
 2층 건물에 좌우로 길게 교실이 늘어서 교사 전체가 운동장에 깔린 느낌이다.  
 복도는 片 복도로 되어 있고 교실 내부로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시켰다.  
 궁돌들은 부속벽 역할을 하며 지붕면으로 각각 솟아올라 긴 수평면을 분할해 주고 있다.  
 설계 및 감독은 西島廣太郎이, 시공은 今岡熊之助가 각각 맡았다.  
 京畿師範學校는 1931년 폐교되었다. 이 校舎는 이후 於義洞 工業傳修學校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1931. 3)  
 그 후 校名이 변하며 京畿公立 職業學校, 京畿工業高等學校(京西中學校)가 각각 사용하였다.  
 京畿工業의 건축과는 수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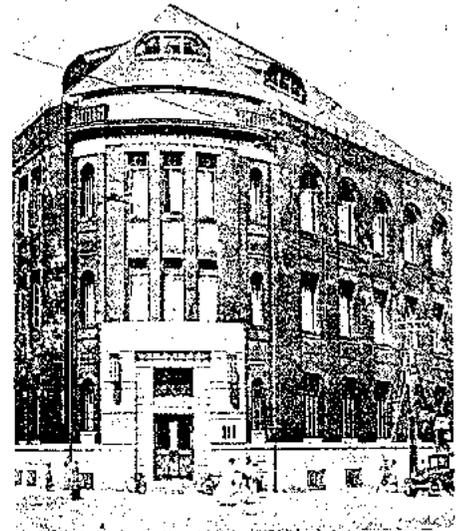
건축인재를 배출하며 사회에 공헌하다. 대학의 건축과가 이론 역할과 함께 중등기술학교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 후 京畿工業專門學校로 발전되었다. 이 교사는 1950년 9월 26일 북한 군대가 퇴각하면서 放火, 내부가 소실되기도 했다.<sup>3)</sup>  
 그러나 교사는 현재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존치되고 있다.  
 한국공업기술교육의 原初의인 産室로써 기록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 □ 註 □

1. 그 기능은 濟衆院, 大韓赤十字 병원으로 이어졌다. (「서울 600年史」, 제3권 p.451).  
 京畿道 高陽郡 龍江面 阿峴里 일대
2. 이 학교는 1910년 4월 15일 開校.
3. 「京畿工業開放大學 同窓會報」, 「1986. 7. 1. 「京畿工業 76年史」. 필자가 이 학교(京西中學校 1960~1963)에 재학중일 때 수 많은 日帝下 무대의 영화가 이 교사에서 촬영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 1920년대초의 商業銀行 本店터, 아직 건물은 착공되지 않았다. 前面部는 韓國銀行 本店 (서울특별시)



▲ 原, 商業銀行; 商工會議所, 증권거래소건물과 같은 패턴이다. (京城七仁川)

## 60. 韓國商業銀行 本店

위 치: 南大門路 2가 111-1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24. 8. 31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 1, 지상 3, 옥탑 1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보존 상태: 1964년 헐림

商業銀行의 前身은 大韓天一銀行 (1899. 1. 30 창립)이다.

天一銀行의 창립 당시 本店은 皇城 大広通橋畔 清溪川 北邊 長通坊 丁萬石契 1統 5号<sup>3)</sup>에 있었다.

그러나 1909년 7월 3일에 漢城 南部 太平坊 弘內洞 東行廊契 32統 5号의 前 中央銀行 地지를 매입하여 새로 신축한 本店 건물이 낙성됨으로써 이전, 營業을 再開했다.

이 건물은 현재의 商業銀行 종로지점 (廣通館)으로<sup>2)</sup>, 1907년 5월 4일 天一銀行에서 건축 설계, 감독 일체를

度支部 建築所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음으로써 세울 수 있게 됐던 것이다.<sup>3)</sup> 당시 이 端雅한 건물의 위용은 놀라웠다.

그러나 1914년 2월 9일 이 本店 營業소 (廣通館) 2층에서 화재가 일어나 行舎는 半燒되어 버렸다. 건물은 다시 개축되어 같은해 12월 27일 준공되었다.

大韓天一銀行이 「朝鮮商業銀行」으로 개칭된 것은 1911년 2월 11일이었다. 1924년 8월 31일에는 朝鮮實業銀行 과도 합병하고 南大門路 현 위치에 새로 세워진 신축 銀行舎로 이전해 갔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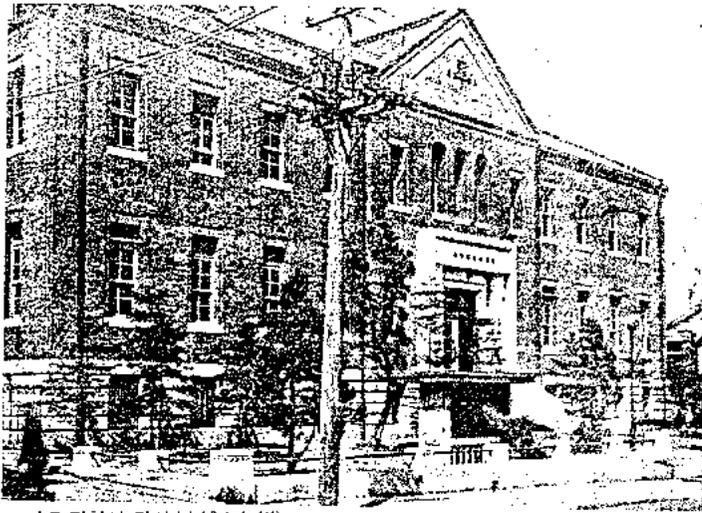
朝鮮商業銀行 本店은 그 자신의 立地가 갖고 있는 三角形 地지 형태를 건물에서 잘 살려낸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삼각형 모서리 부분을 店頭로 처리하고 현관을 캐노피 없이 断面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단순화시켜 고객의 출입을 편리하게 했다. 前面部の 曲線形 처리는 건물 전체가 流線型으로 보이도록 했다. 曲部 兩面의 긴 아치창 6개는 수직선을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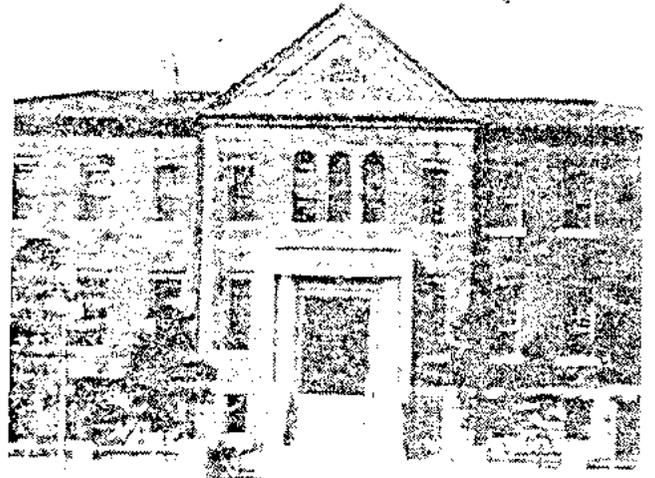
부분은 前面部를 삼각형으로 보이게 하는 외장을 썼으며 平面形을 전체적으로 감싼 느낌을 주고 있다. 삼각형지붕부의 한 가운데 Dormer 창은 眼形像을 하고 있다. 半地下部는 화강석 基壇으로 마감했다. 아름다운 지붕과 조화된 前面部の 처리는 건축적으로 높이 평가 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60년대의 祖國 近代化란 큰 바람에 밀려 소리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sup>5)</sup> 그 후 새 行舎는 1960년대의 얼굴이 되었다.

□ 註 □

1. 현재 朝興銀行本店 北便 清溪路 入口부근.
2. 南大門路 1街 19. (廣通館참조)
3. 上梁式은 1908. 10. 14 (「朝鮮と建築」 1923. 7. 1927. 2, 종합).
4. 京城府 南大門通 2丁目 111-1
5. 1963. 2. 20 本店 建築 臨時 本部설치. 1964. 1. 30 本店 新築 起工式 (설계 洪淳五, 시공 豊田産業). 1964. 12. 19 上梁式. 1965. 12. 15 신축기념식 거행 (「韓國商業銀行 70年史」).



▲ 本町경찰서 당시(京城仁川)



▲ 正面 현관부(서울600년사, 제4권)

### 61. 中部警察署

위 치: 亭洞큰길가  
 착공년월일: 1924. 2  
 준공년월일: 1924. 11. 9  
 설계자: 笹慶一  
 시공자: 大倉組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1, 지상2, 옥탑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141평  
 보존상태: 1980. 12 월립

中部警察署는 경찰서 건물로는 가장 由緒(?)가 깊은 近代式 건물을 갖고 있었다.

이 경찰서의 역사는 1907년 理事庁警察署로부터 시작된다. 이른바 南村 日本人街가 융성함에 따라 그들 자신과 居留民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세워진 것이다. 한 때는 南部警察署로 있었으나 1924년 8월에 들어서 京城 本町警察署란 이름으로 문패를 바꿔달았다. 이 때부터 日帝 治下 사상 탄압의 怨府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당시 경찰서의 임무라는 것이 獨立運動家, 愛國 志士들을 붙잡아 분초하는 것이였었다. 한 때는 그 임무를 종로경찰서와 나누어 갖었다.

경찰서는 京城府 永樂町에 3층 벽돌 건물로 세워졌다.

新庁舎의 설계는 京城府庁의 笹慶一이 맡았다. 1924년에 착공되어 같은해에 준공되었다.

朝鮮總督府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理想的 新建築”이었다.”

8. 15 해방후인 1946년 9월 17일 中部警察署로 개칭되며 그 주임무는 종로경찰서로 대부분 넘겨졌다. 건물의 前面에서는 2층 현관부가 특이하다. 현관 입구는 1층에 두지 않고 2층으로 올려 출입시의 위압감을 강조했다. 또한 이 부분을 볼출시켜 화강석 피석으로 돌렸다. 지하실은 채광과 통풍을 용이하게 했다.

2층부는 3개의 아치창으로 돌리고 그 상부의 삼각형 박공을 받게 했다. 평면은 보안, 경무, 행정, 위생의 용도로 분할했다. 건물은 아직 近代式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동경의 경찰국 건물도 별다른 없을 때였다. 이 의미깊은 건물은 1980년 12월 신축 확장시킨 새 경찰서 건물을 지으면서 헐려졌다.

아쉬운 점은 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여 日帝의 정보정치, 고문정치의 断面史를 현장감 있게 그대로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나. 돈안들이고 赤裸裸하고 실감나는 克日紀念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獨逸이 잔혹한 유대인 학살현장을 지금 그대로 그 곳에 남겨 그 장소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 □ 註 □

1. 「朝鮮と建築」, 1923. 7, 1924. 6, 1924. 7, 8. 15 해방후에 세워진 永樂教會와 인접해 있었다. 오늘날의

亭洞 큰 길가였다(本町은 오늘의 忠武路이다).

### 62. 京城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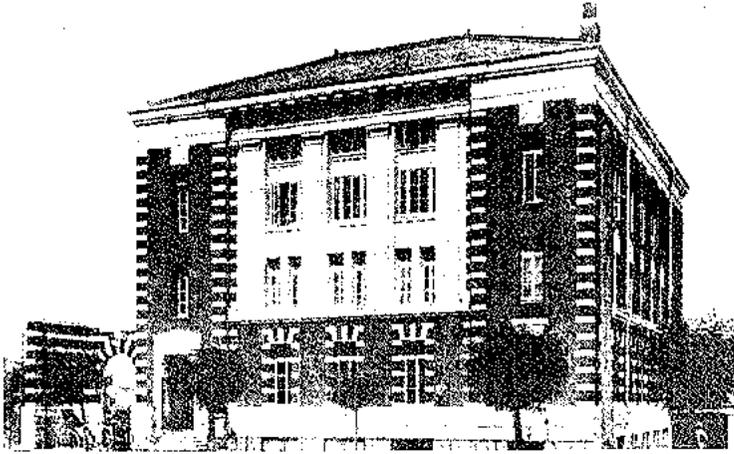
위 치: 世宗路  
 착공년월일: 1923. 6. 4  
 준공년월일: 1924  
 설계자:  
 시공자: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1, 지상4, 옥탑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평  
 보존상태: 1960년 焼失

京城日報는 日本이 韓半島를 強占한 후 이를 더욱 굳히기 위한 先發走者로서 내세운 言論媒體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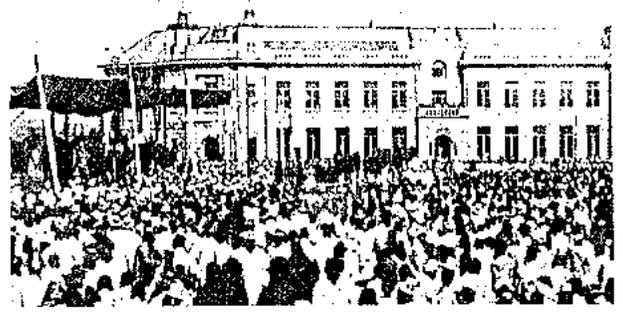
이 신문은 東亞·朝鮮日報와는 달리 純 日本語로만 발간되었다. 創刊號는 1906년 9월 1일에 발간되었다.” 統監府설치 직후, 그들의 對韓 弘報의 차원에서 간행된 것이다.

그러나 獨立 社屋은 8년이 지난후인 1914년 10월에 세웠다. 사옥의 위치는 서울의 핵심인 현 서울市廳 자리였다. 德壽宮 광장주변이 아직 한적한 모습이었을 때 이 사옥은 지나칠 정도의 규모로 들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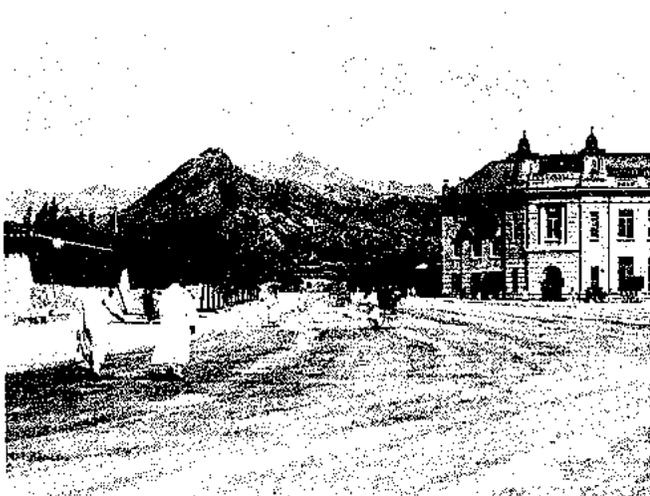
이 건물이 처음 기록에 나타나 관심을 끈 것은, 그 건물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高宗의 昇 暭를 哀悼하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찍은 한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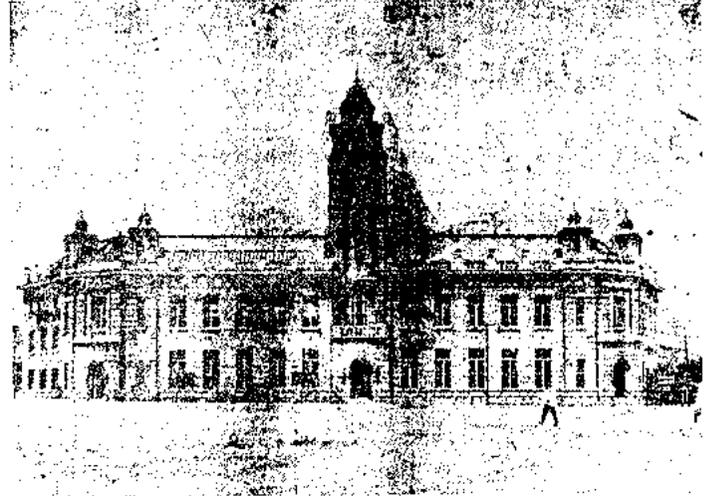
▲ 1919년 高宗국장때의 사옥, 中央塔이 없어졌다.  
1923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 1924년 준공된 사옥, 해방후 大韓公論社에서 사용했다. (每日申報)



▲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세워지기 전의 京城日報社 社屋이 있다. (近代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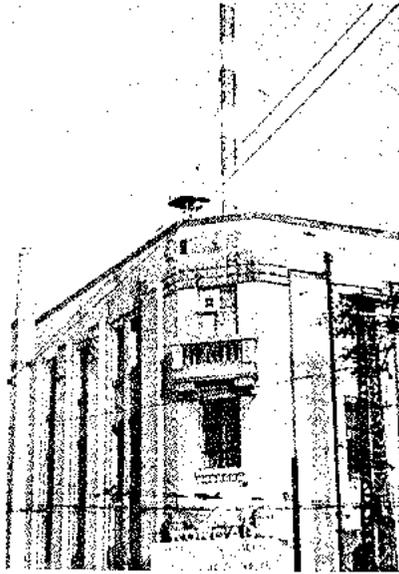
▲ 1914년, 京城日報, 每日申報 舊社屋, 중앙탑이 보인다. (每日申報영인본, 景仁文化社)

역사적 사진 때문이었다.<sup>2)</sup> 사옥은 그 당시 신문사로서는 과분한 要地에 세워졌다. 기록에 의하면 사옥의 정면 중앙에는 雙족탑이 있었다고 하나, 그후의 사진에는 모서리부분에 4개의 탑옥만이 보일 뿐이다. 건물은 1923년의 화재로 全燒되어 滅矢되고 말았다.<sup>3)</sup> 그리고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있던 京城府廳이 京城日報社 舊址로 옮겨오게 되었다.<sup>4)</sup> 京城日報社는 서울市廳에 이 자리를 내주고 府民館 맞은편, 현, 프레스센터(서울신문사) 자리에 새 사옥을 짓기로 했다. 新社屋은 이듬해인 1924년 준공되었다.<sup>5)</sup> 두 건물은 1910년대와 1920년대의 近代 建築의 면모를 비교적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건축적 가치가 높다. 1910년대의 사옥은 塔屋분위기로 보아 유럽풍이 강했다. 日本의 明治時代 建물의 한

典型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日本風이 들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의 건물은 이른 바 “大正 데모크라시”의 상징적 건물이었다. 전통과 신문화가 뒤범벅이 된 樣像을 보여주고 있다. Corner Stone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前面部는 불임기둥으로 柱頭까지 만들어 넣었다. 지붕부는 없애지 못하고 기늘게 덮었다. 처마에는 Dental Ornament를 넣었다. 도로변 基壇部의 처리는 건물 전체에 비해서 어색하고 현관은 지나치게 웅장하다. 현관의 이러한 축소방법은 신문사, 銀行건물 모두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다. 그것은 건물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보안적 위험성 때문이기도 했다. 이 사옥도 결국 그러한 타겟이 되어 4.19학생 혁명의 노도에 휩쓸려 불타버렸다.<sup>6)</sup> 그 흔적은 1982년까지 갔다.

□ 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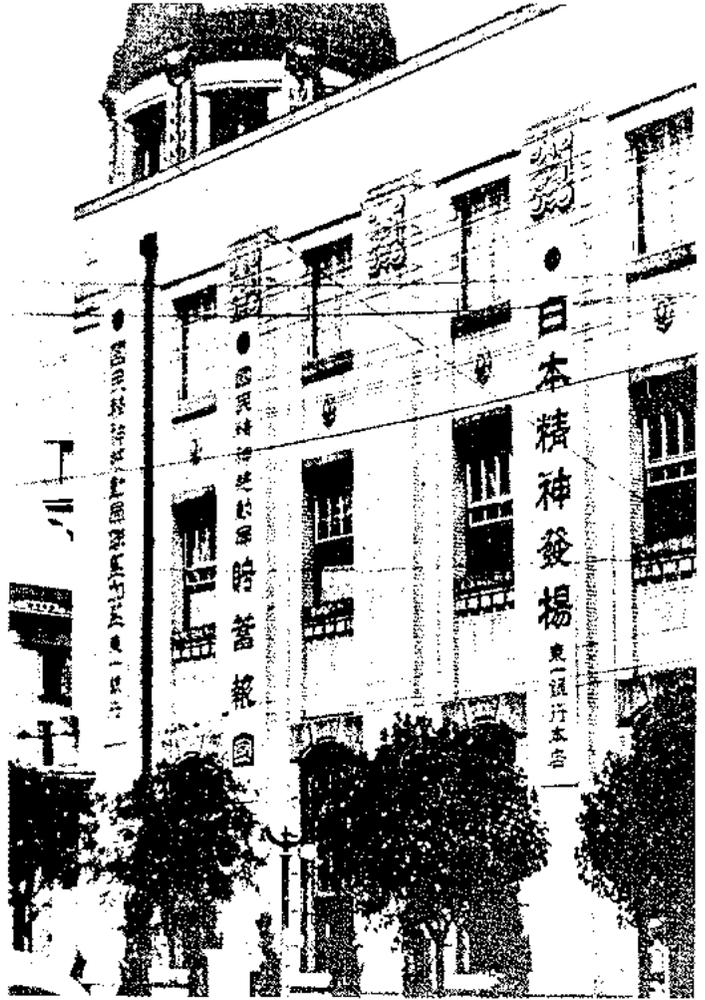
1. 統監府 기관지였다. 東亞·朝鮮日報은 1920년 창간되었다.
2. 이때의 사진설명이 “市廳 앞 廣場”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 건물은 京城日報社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德壽宮 廣場”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市廳은 또 옮길 수 있으나 德壽宮은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高宗은 1919년 1월 21일 昇遐, 3월 3일 國葬을 거행했다. 이때 3.1운동이 일어났다.)
3. 每日申報는 京城申報와 계속한 건물이 있었다. 每日申報는 1940년에야 독립 사옥을 짓고 이전했다.
4. 1923년 京城日報社 殘骸는 모두 헐리고, 1924년 서울市 新廳舍가 착공되었다.
5. 京城日報社 新舊 사옥에 대한 자료는 不備하다. 「朝鮮と建築」(1923. 7)과 每日申報에만 간략한 기사가 나온다.
6. 8.15해방이 되면서 이 新聞社는 서울新聞社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6년에는 프레스센터가 들어섰다.



▲ 등이 사라진 자리에 TV 송신탑이 섰다. (韓國日報) ▲



▲ 銀行 新築前의 空地. 오른쪽은 普信閣 (植民地史)



▲ 1938년 7월경의 사진. 日帝의 슬로우건이 걸려있다. (植民地史)

### 63. 朝興銀行 鍾路支店

위 치: 南大門路 1-1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24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지하 1, 지상 3, 옥탑 Dome.

대지면적: 147.1평

건축면적: 118.5평

연 면 적: 418.2평

보존 상태: 1959. 2. 2 燒失

朝興銀行의 前身은 漢城銀行, 東 銀行 등이었다. (朝興銀行잡조)

처음은 1903년 2월 7일 韓國人에 의해 合資會社 公立 漢城銀行으로 출발했다.<sup>1)</sup>

1905년에는 자본금의 증액으로 영업소를 서울 茶洞에 새로 신축하고<sup>2)</sup> 옮겨 비로소 은행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또 다른 韓一銀行이 南大門路로 진출한 것은 1924년의 일이었다.

南大門路의 銀行街가 한참 조성되고 있을 때였다. (韓國商業銀行 본점도 이 해에 세워졌다)

이 때 立地한 곳은 鍾路 2街쪽의 南大門路 初入이었다.

韓一銀行은 普信閣을 옆에 두고 세워졌는데 이는 1970년대의 光化門 大韓教育保險빌딩과 碑閣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었다.

鍾路 2街 네거리에 세워진 洋館의 이 韓一銀行은 普信閣과 더불어 1920년대 鍾路의 里程標가 되었다.

은행은 본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뤄졌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였다. 계단부의 옥상은 전형적인 Dome 구조로 세워졌다.

Drum과 Gudge, Dome 그리고 Lantern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Dome은 Rib를 걸어 Drum 부로 내림으로 해서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했다. 정면 현관은 西南쪽의 折角部에 두었다. 현관부의 層間에는 細部 돌장식을 두었고, 3층 허리는 작은 발코니를 돌출시켜 변화를 주었다.

兩 側面은 1층의 창문을 아치로 들었고, 3층의 壁部에는 돌장식을 첨부했다.

이 은행은 그 Dome부의 화려함으로써 서울의 명물이 되었다.

건물 전체는 사무실 용도로 설계되었다. 1개의 바닥 면적은 118.5평으로 3개 층이 모두 같다. (연건평, 418.2평) 대지 면적은 비교적 좁은 147.1평으로<sup>3)</sup> 대지에 건물이 꽉찬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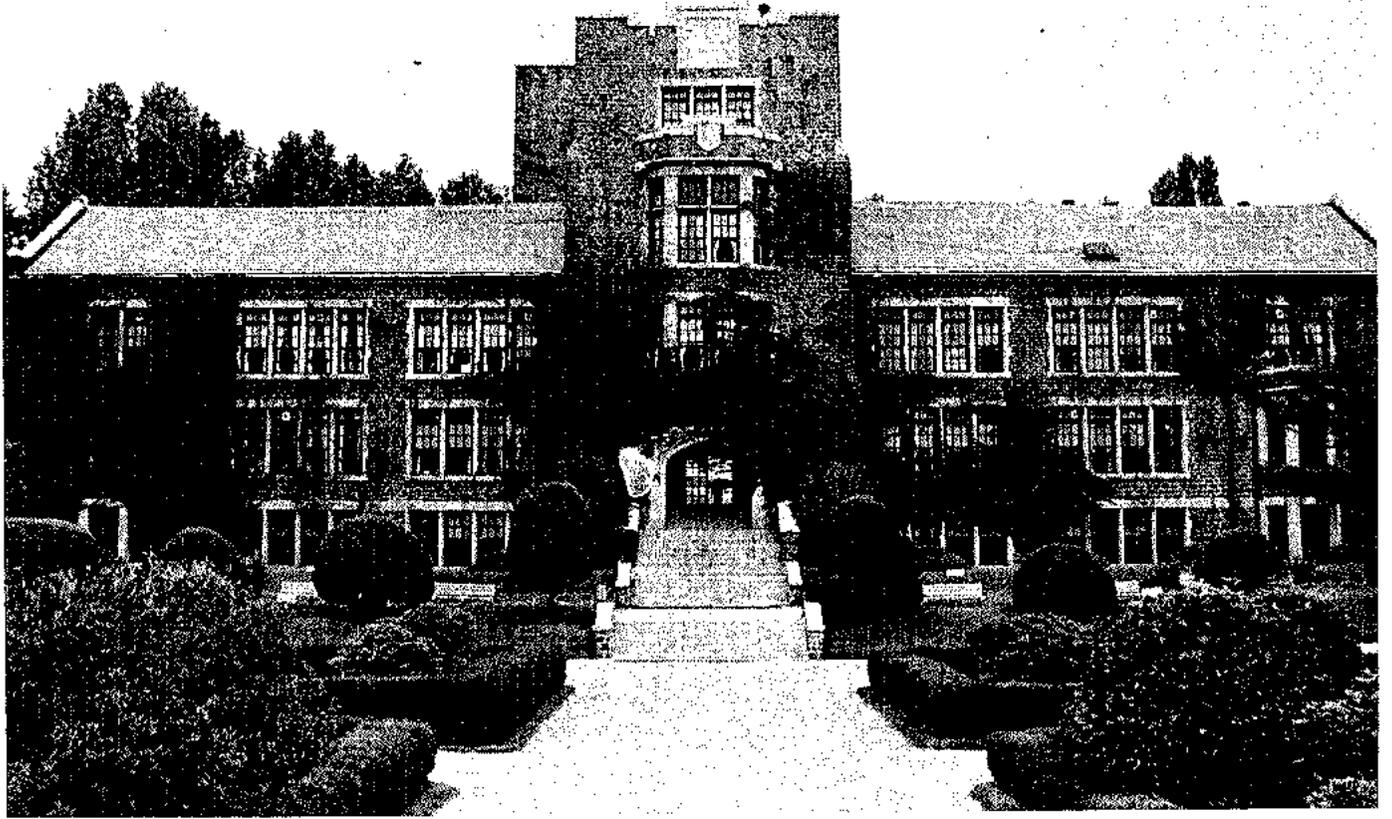
1943년 9월에 이 은행은 朝興銀行으로 합병됨으로써 朝興銀行 鍾路支店이 되었다.

6.25동란중에는 건물이 손상을 입었는데 그 주요 부분은 Dome이었다.

1956년에는 이 은행 건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TV방송국이 개국되었다.<sup>4)</sup>

Dome의 자리에는 송신탑이 세워졌다. 이때부터 이 건물은 RCA 빌딩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이 건물에서 RCA TV수상기를 판매하는 상점도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9년 2월 2일 이 방송국이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다.



▲ 學館(언더우드홀)의 正面에서

그 후 鍾路의 도로 확장으로 建築址는 도로로 편입되었고 지금은 보신각의 境內로 일부가 들어가 있다.



▲ 銀行이 新築되었다.

□ 註 □

1. 李載完, 韓相龍 등이 發起, 北部 安國坊 小安洞 16統9戶(安國洞 네거리 소재)
2. 南部 茶洞 36統 8號(「서울600年史」 제3권, p. 584).
3. 「朝鮮と建築」, 1924. 8.
4. HLKZ, KORCAD, 大韓放送株式會社(장림 開局 1956. 5. 12, 社長 張基榮).

#### 64. 延世大學校

위 지: 新村洞 134  
 착공년월일: 1921. 4  
 준공년월일: 1925. 6  
 설계자: 美國人  
 시공자:  
 건축면적: 구조: 석조  
 층별: 지하半, 지상3, 옥탑  
 대지면적: 190,320 평  
 건축면적: 215 평  
 연면적: 888 평  
 보존상태: 사적 제276호

延世大學校는 延禧專門學校와 Severance 醫學專門學校가 1957년 통합, 발족된 대학이다. 延禧專門學校는 H.H. Underwood가 1915년 설립했다<sup>4)</sup> 그는 그의 누인 J. T. Underwood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sup>2)</sup> 1917년 京畿道 高陽郡 延禧面 新村里에 숲이 울창한 土地 190,320평을 사들였다. 서울에 새로운 Missionary Compound를 세울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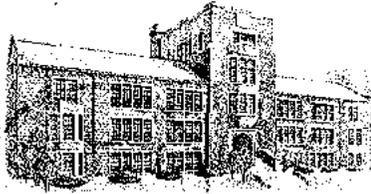
1918년에는 최초의 교사인 木造 2층의 致遠館(1918~1950)<sup>3)</sup> 을 세우고 학교는 새 基地로 이전되어 왔다.

이 학교를 延禧專門學校라 한 것은 이 학교 構內에 延禧王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sup>

延禧專門學校 최초의 석조 건물은 本館(Steamson Hall)이고 주위에 자리잡은 理學館(Apengeller Hall)은 그 다음이었다.

學館은 1921년 4월에 착공되었다. 건물의 설계는 여타교사들과 마찬가지로 美國人 建築家가 직접해서 설계한 것이고 건축 감독은 이 학교의 화학 교수인 E. H. Miller<sup>5)</sup>가 맡아 했다. 設計者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건물의 격이나 建築主들의 격으로 보아 이상한 것이었다. 그들은 建築家의 지위를 높이 평가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 교사는 건평 215 평, 연건평 888 평의 규모로 세워졌는데 本体는 半地下가 포함된 3층이고 현관부의 육중한



▲ 근대건축물로는 첫 우표로 나왔다. (1985)

중앙탑은 中心 形成体로 보이도록 5층으로, 平面은 엄격한 좌우 대칭형으로 설계되었다.

교사는 1925년 6월 준공되었다. 延專의 교사들은<sup>9)</sup> 本館을 중심으로 정원을 감싸며 아카데미한 Tudor<sup>7)</sup> Gothic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그 처리 방법은 모두 同種 同類였다. 이는 1910~1920년대 대학캠퍼스의 典型이 된 것이었다.

日本式 캠퍼스 분위기도 선교사들에 의해서의도적으로 실용적으로 만들어졌고, 中央軸이었다. 日本, 立教大學 (東京, 1918)은 그 좋은 예이다. 延專의 교사들은 중앙 현관부를 Open door로 하여, 前後가 뚫린 상태로 두었으며, 그 상부에 돌출창(Bay window)을 두었으며, 塔部는 城館形으로 했다.

여기 벽체에 사용된 석재는 부근 山間에서 채취한 黑綠色의 雲母片岩이었으며, 개구부 창들 부분에는 化粧석을 사용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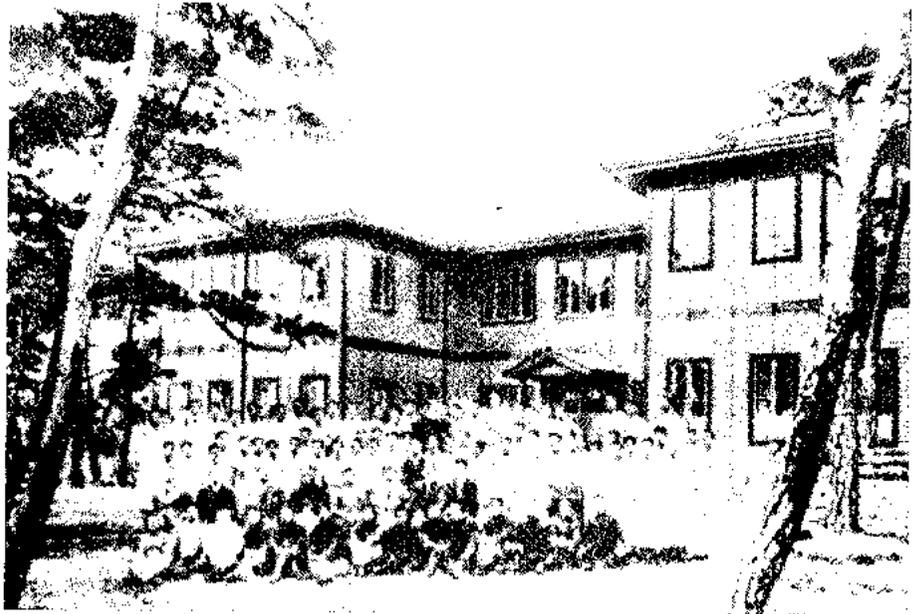
따라서 벽과 窓台의 색조화가 교사 자체가 교실로 사용됨으로 해서 창문을 4조씩 대형창으로 (당시로서는) 설계됐다.

面の 단조로움을 깨뜨리기 위해 교사의 兩端部 (1·2층)는 Bay Window로 처리했다.

이후 연세캠퍼스의 분위기는 梨花女大, 高麗大 등에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sup>9)</sup>

6.25동란 때 學館은 큰 피해를 보아 지붕부는 거의 다 파괴되었다. (收復 後 복구되었다.)

1981년 史蹟으로 지정되었다.



▲ 1918년의 致遠館, 6.25당시 불타버렸다. (東亞日報社)



▲ 日本, 立教大學, 1918. (日本の建築, 1987)

□ 註 □

1. 처음 學校名은 Chosen Christian University였다. “넓은 의미의 基督教 綜合大學”이었다. (민경배, 形成社, p.76)
2. Underwood 가족은 Underwood Typewriter를 제작한 집이어서 부유했다. (Dr. Hall, 「조선회상」, p.360)」
3. 「서울 600年史」, 제4권, p.454
4. 광학전, p.163
5. Miller는 백양로도 계획했다고 한다. 日本의 立教大學은 Murphy와 Dana가 설계했는데 그들이 延世캠퍼스도 설계하지 않았는가 주장된다.
6. Steamson Hall (1918.2~1920.3. 史蹟 제275호), Underwood Hall (1921.4~1925.6 史蹟 제276호) Apenzeller Hall (1921.4~1922.3 史蹟 제277호).
7. 英國의 대학건물에서 많이 쓰인 Four-centered Pointed Arch의 형식.
8. 朝鮮と建築. 1928.3
9. ● 鄭寅國, “韓國의 現代建築(6): 延世大 Underwood Hall”. ● 姜炳國, “韓國의 名建物(6): 延世大 언더우드館”. (1984. 12. 4). 京郷新聞.

우리사회 화합의 터전위에 피어나는 민주주의 꽃

# 우리의 일이라는 것

金仁喆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바뀌서 대입시키면 제멋에 취해버린 자기도취적 경향이 나 그로인한 자기보호에 민감한 것들이 마치 어린이가 장난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흔히 요상스런 모양을 끄적거리고 있노라면 지나치던 동료들이 “어린애장난” 하는구나 하고 한마디하기도 하니까 이런걸 보면 과히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집짓는 일에 매달려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런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문제이다. 법적인 해석이나 공법의 문제등은 논리적인 처리로 해결이 되지만 인간을 다루는 것은 그렇게 내뱉같이 되지를 않는다.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의 일중에는 특별한 인간관계가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를 맡는 것에서부터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되기까지의 과정과정마다 여러모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중에는 구차스런 설명없이도 이해가 손발맞듯이 맞아들어가는 신나는 경우도 있고, 왜 이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모름, 짜증나는 지경과 생각만해도 두드러기가 나려고 하는 알레르기성 관계도 있다. 세상의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될 수도 없겠으나 그렇다고 남이 하지는대로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재미도 보람도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다시 쳐다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남의 집짓는 일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다는 것부터가 우선 이상스럽다. 내 집, 내맘에 들게 하려는데 괜히 옆에서 걸리적거리는 것은 우스운 풍경이기도 하다. 거창하게 별려놓은 건축쪽 철학도 별볼일 없게 민망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이렇게 구겨놓은 휴지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흥종교의 교주처럼 떠맡들어져서 집짓는 일에 향해서만은

전지전능한 창조자처럼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서방으로 취급받거나 사기꾼이나 아닐까하고 의심받는 경우는 옛적에 잊었던 일이나까 접어두더라도 말한 것이 말한 것처럼 되지않는 경우가 바로 우리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찌다 한번씩 들게 된다. 한편으로는 설계란 참 재미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어릴때 흙을 쌓아 만들어보는 작난이나 성냥갑이나 나무도막으로 이것저것 만들다 해지는 줄을 몰랐던, 누구나 갖고있는 기억들이 요즈음 하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제 기분나는대로 주불러 놓고는 우쭐거리는 것이나 남이 건드려 망가뜨리면 불같이 화가 오르는 것도 그렇다. 바뀌서 대입시키면 제멋에 취해버린 자기도취적 성향이나 그로인한 자기 보호에 민감한 것들이 마치 어린이가 장난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흔히 요상스런 모양을 끄적거리고 있노라면 지나치던 동료들이 “어린애장난” 하는구나 하고 한마디하기도 하니까 이런걸 보면 과히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별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을 어린애 장난하듯이 하고 있으면서 큰 일을 하고있는 양, 대접받으려 하는 게 한걸음 비껴나서 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중이 제머리 못 깎듯이 제집하나 변변하게 갖고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남들이 보면 부어라고 할런지 한숨만 나온다.

# 건축·도시문화의 창조측면에서

金相景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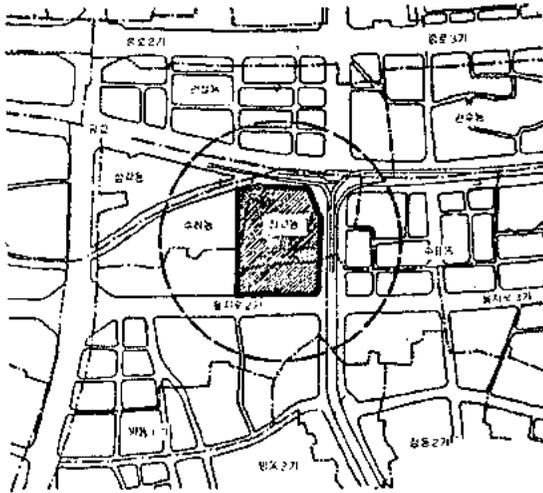
Criticism/Urban Renewal Project of Ulchiro 2ka  
16th, 17th Downtown District, Seoul, Korea  
by Kim, Sang- Kyung

## 1. 을지로2가 제16·17지구 재개발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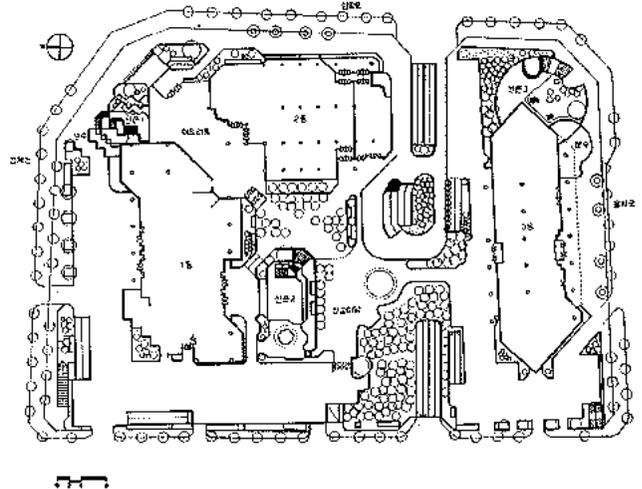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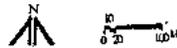
서울시가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우수건축물 확산을 꾀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 금상에 을지로 2가 제 16·17지구의 재개발 건축물이 선정되었다. 금상으로 선정된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3개 건물로 구성된 단지개념을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최초로 시도했고, 2,100여평의 도심공원을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도심 속의 공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 외에 외관이 세련되고, 자체의 90.3%를 국산제품으로 충당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한다. 대한 주택공사가 도심재개발로는 처음으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 시행한 본 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도심부로서 기존의 영세 인쇄업이나 비위생적인 식당 등이 산재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도시 환경을 이루고 있었으며 당초 7개 지구의 사업기구를 16·17지구로 병합하였다. 모두 8천 4백여평의 대지에 청계천 쪽으로 사무실 전용의 29층 빌딩인 제 1동, 삼일고가도로와 마주한 27층으로 백화점,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제 2동, 을지로 쪽으로 20층의 은행건물인 제 3동이 각각 들어서 총 연면적이 6만 6천평이 넘는 大役事이다.

지난 82년 11월 任公이 이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이후 약 5년후에, 그리고 84년 7월에 건물철거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 3개월만에 완공되어 기존의 인쇄소들이 고층빌딩군으로 탈바꿈했다. 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목적은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성 우선의 계획 개념과 원토지 소유자와의 협동 개발정신에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본 재개발 사업의 특징으로서 몇가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는 기존의 민간 재개발과는 달리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되면서 현상공모를 통해 3개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이 3개안을 주택공사가 단일 안으로 종합하는 과정의 주도가 되어 도시설계의 수법을 도입한 단지 종합 계획이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공사와 당선 건축사의 협의에 의해 각 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재 수립 되었다. 둘째는 처음 시도된 공공 재개발로서 도심지내에 단지(Superblock)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였고 단지 안에 '상교마당'이라 명명된 약 2,1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위치도



배치도

확보 배려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존의 민간재개발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단일용도 재개발 대신에 제2동의 경우 백화점,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수용하는 복합용도 재개발이라는 사실 등이라 하겠다.

## 2. 본 재개발 사업의 분석과 비평

을지로 제16·17지구 재개발 사업은 불량화, 노후화된 건물 및 환경의 전체철거 방법에 의하여 단일 용도의 업무용 대형빌딩과 함께 일부 복합용도 개발로 전환하여 진행되어서 건축공간은 양적으로 많이 증가되었고 골목길은 넓직한 포장도로 또는 대규모의 녹지공간 등으로 바뀌어서 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도시의 생활을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안락하고 편안한 그리고 우리의 고유문화와 조화되는 건축의 내·외부 공간과 나아가 도시공간이 어느정도 실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즉 어떠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과 설계로 집행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만족스럽고 후세에 남길만한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완료된

을지로 제16·17지구 재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 비평하여 앞으로 이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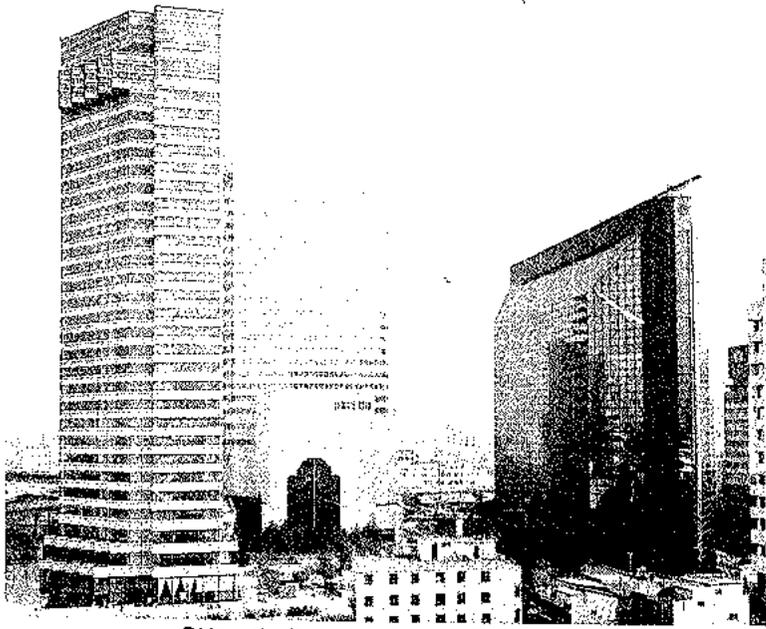
### 2-1. 설계 진행 과정

본 재개발 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공공재개발로서 설계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민간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가장 좋은 설계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현상공모를 시행하여 많은 설계안들을 접수하였고 그 중에서 3개의 당선안을 선정하였다. 주택공사가 주도하여 이 3개의 당선작을 단일안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단지종합계획이 작성되었고 이것을 기본으로 주공과 당선작가와의 협의에 의해 각 건물동에 대한 건축계획이 제수립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상공모 후에 단지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사실과 3개안을 선정하여 단일안으로 조정을 했어야 하는 당위성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 당선작가의 협의과정 이전에 단지종합계획과 아울러 바람직한 설계지침의 구체화 작업 등이 연구되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당선작가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주택공사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주도하여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건축, 도시 전문가들의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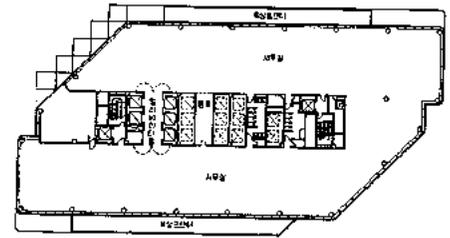
(Coordinating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이 구성되어 수준높은 조정작업이 요구되어졌어야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현상공모 결과에서 단일안을 선정못했다는 사실과, 선정된 3개안의 작품별 특징의 유지와 조화라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의 3개안을 단일안으로 종합하는 과정과 그 후에 개인별로 건축가와의 협의과정 등이 모든 작업의 성격이 건축·도시, 환경심리, 경제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차원 높은 조정 작업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다.

### 2-2. 단지(Superblock)의 도입과 도시성·전통성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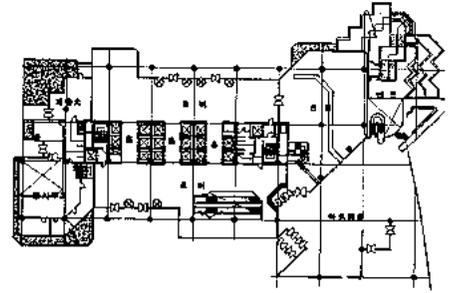
을지로 지구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 된 건물들이 전체 철거되고 단지(Superblock)의 개념 도입으로 보행자 공간과 차도와의 분리, 그리고 단지내에 넓은 녹지공간이 등장 되었고 현대화된 대형건물들로 대체되어 건축공간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차도는 넓어졌고 외관은 깨끗하여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였다. 그러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존조직을 전체 철거하고 단지안에 주변환경의 공간조직과 별로 상관없는 별개의 독립된 고층타워를 형성하여 주변 및 배후지역의 도시환경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게 나타났다.



을지로 2가 재개발사업의 제1, 2, 3동의 전경



제1동 기준층평면도



제1동 1층평면도

따라서 개별적인 지구단위의 재개발 영역과 주변의 지역 및 나아가 전체도시와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의한 연속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전체의 도시조직안에서 단일 건물등으로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보다는 개체 자체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듯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축과 도시의 연결시도로서 도시성과 전통성을 회복하여 재개발한 지역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도시의 한 구성요소라는 이미지 부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전체도시조직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 후 개개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슬럼의 전체철거방식을 지양하고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철거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2건물동의 경우 오피스텔, 백화점, 사무소 등의 복합 기능을 수용하는 계획을 하였지만, 기존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방식을 택하여 지구주변에는 기존의 상업용도와 융합하면서 가로형의 내·외부 공간을 만들어 가로의 활성화를 성취하는 일이 요구되어 진다. 그리고 새로운 개발이 개별적인 기존 도시의 부분들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나가는 패턴(infillpattern)을 통하여 기존지역과 개발지역과의 기능, 공간, 형태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 설계개념에서 강조되고 그 일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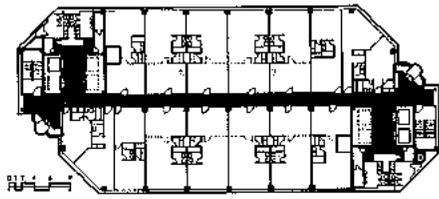
한편, 주변환경의 스케일과 어울리는 볼륨과 행태의 조화를 시도하고, 특히 근대기능주의에서 비롯된 외부와의 차단을 가져다 주기 쉬운 단지성을 탈피하여 건축과 도시를 연결시키며 기구(block) 개념의 기존 도시구조를 강조하여 전통성을 회복하는 작업도 "장교마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넓은 중앙광장의 설정과 일부 저층부의 작은 스케일의 형태처리 및 기둥노출 등에 그치고 말았다.

단위로서의 건물은 개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집합행태(Collective Form)의 도시성을 강조한 외부환경의 차원에서 계획되어졌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은 요즈음 진행하고 있는 전체의 철거계획과 단지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도시의 불연속성을 피하고, 도시의 부분들의 간격을 메꾸어 나가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공간형태 및 행태, 그리고 사용행위 패턴의 연속성을 회복하여 개성있는 도시의 장소성(Sense of Place)을 증진시키는 일이 건축 및 도시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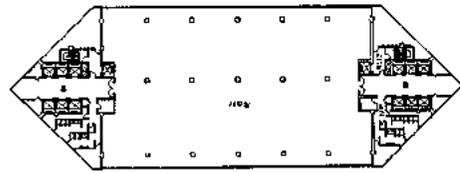
### 2-3. 복합용도 재개발로서의 전환 및 실상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우리의 단일 용도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도심지의 사무실 공급의 과잉 및 공동화 현상등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여 종래의 단일용도 개발의 방식을 개선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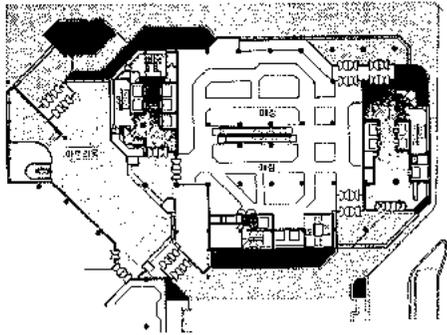
건물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본래 도시의 다양한 기능회복과 도시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도시구조의 용도부합화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을지로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의 방향이 일부 단일용도 위주에서 탈피하여 복합용도개발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의 복합기능을 통하여 여러종류 활동의 상호통합적인 역할이 도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소규모 투자의 유도가 용이하고 도시주거의 조성으로 직주근접에 의하여 도심지내 상주인구의 확보가 가능해지며, 낮과 밤의 활동이 균등하게 되어 공동화 현상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리한 복합용도 재개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설계하여 진행해 나가느냐의 과제가 역시 우리에게 남아 있다. 복합용도로 재개발된 제2동의 경우는 백화점, 사무실, 오피스텔로 복합구성 되었으나 여전히 도심부의 주거공간의 등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원래의 의도인 도시의 활성화라는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심지에 적절한 주거형의 개발로 거주성과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단순한 숙박기능의 호텔 또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거주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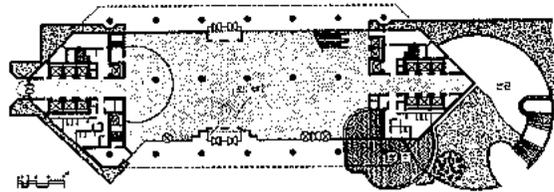
제 2동 기준층평면도



제 3동 기준층평면도



제 2동 1층평면도



제 3동 1층평면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용도간의 복합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디자인 처리를 위하여 각 기능이 가져야 할 특수성, 각 사용자 그룹의 요구, 그리고 주변환경의 상황에 적절히 적용되도록 다양화하여 건축 내·외부공간의 활성화와 선택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단일용도에서 복합용도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설계해 나가야 하느냐의 전문성(Professionism)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2-4. 건축물과 도시공간과의 상호관계  
울지로 제 16·17지구 재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짧은 기간에 완료 하였지만, 설계 경향이 건축이라는 단위 부분들의 일정한 집합 구성원리를 유지하면서 도시조직 내의 질서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상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용한 내부의 설계가 바로 외부의 공간과 형태를 결정해 버리는 과정이 강조된 것 같다.

각 건물동의 기능 해결은 비교적 경제적이며 원만하게 해결되어 보이나, 기능이 다르면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주변도시 상황(Urban Context)에서 적절한 형태를 추출하고 그 안에서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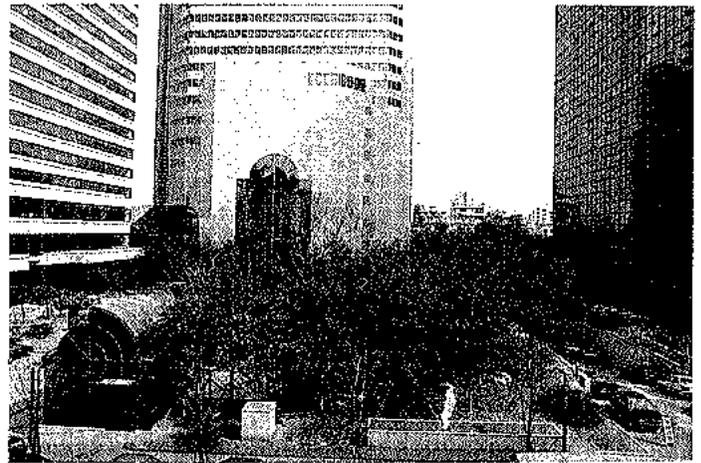
해결하는 즉,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설계방법도 필요하며, 표현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질서의 바탕위에 표현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심지 상황에서 개체자체의 변화추구도 필요하겠지만,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 또는 개체와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더욱 바람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물(Solid)과 도시공간(Void)의 특징유지와 조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제 1, 2, 3동과 도시공간 사이의 연속된 디자인 처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기존상황과 형태패턴을 등의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강한 유대감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먼저 건물내부를 계획하여 배치하고 남는 공간이 건물 앞·뒤의 외부공간이 되어버려 상호간의, 별개의 어색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안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특히 보행인과 기능·공간·형태측면에서 저층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 같이 보여지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개체자체의 기능 해결과 그에 대응하는 표현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건축과 도시의 질적 조화라는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진 듯 하다. 제 1동의 경우 저층부 일부에 작은 스케일의 지그재그식 형태처리를 하였다거나, 제 3동의 전·후면 1층이 기준층 외부 커튼 월로부터 약간 후퇴하고 기둥이 노출된 형태의 처리등은 가로의 적응과 보행자들을

의식한 시도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이고 3개동이 서로 통일성 있게 디자인 되었기를 바라고 싶다. 그리고 제 1동과 제 2동을 연결하는 아트리움이 2개의 건물과 서로 이질적인 디자인과 재료사용에 의하여 상호통합(Integration)하는 역할의 수행이 미흡하게 보여진다. 내부의 사적인 기능과 건축주 및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공적으로는 기존 가로경관에 적응하는 도시의 벽(Urban Wall)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만족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건물들이 가로에 면하고, 서로 이웃하느냐하는 상황이 건물군의 집합 형태가 형성되는 방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건축언어(Architectural Vocabulary)의 선택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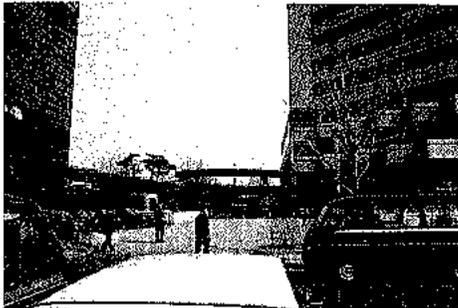
그리고 대상지구 「안」에서의 각 건물동들과의 관계와, 「밖」의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집중적이고 차원높게 형태화 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지구내의 건축물과 외부공간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적영역(Private Domain)과 공적영역(Public Domain) 사이의 연결로서 공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축물의 태두리가 선이 아닌 두께와 부피를 가진 개념으로 설계하여 특히 저층부에서 내·외부 상호간의 전이 영역을 출입구, 계단,



삼일기도로에서 조망한 전경



단지인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3개동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3개동의 저층부에서 상호통합하는 디자인처리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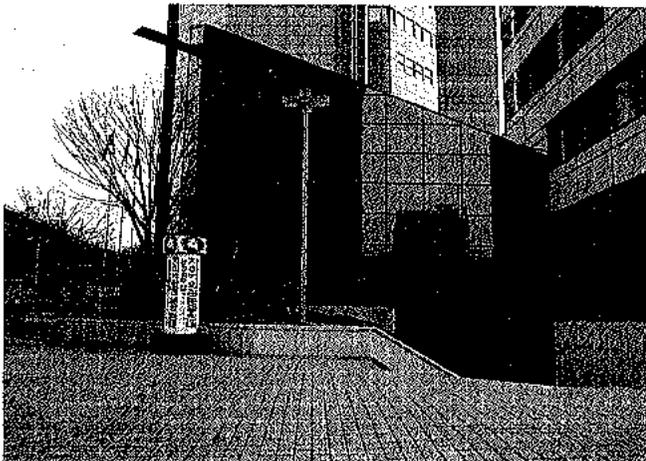
제1동 저층부의 작은 스케일의 형태처리가 외부공간과의 적응을 모색하고 있다.



제2동과 넓은 보행자공간과의 만나는 경관.



제3동의 1층부분 전·후가 기준층 보다 약간 후퇴하고 노출된 기능이 표현되어 가로경관의 연속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1동과 2동을 연결한 아트리움



지하철과 연결된 선문가든

복도, 로비, 2차적인 벽(Secondary Wall), 휴먼스케일의 형태처리 등의 수직 및 수평동선을 외부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경직된 건축물을 부드럽게 하며 공간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5. 옛도시와 신개발지역과의 조화  
을지로 2가 제16·17지구 재개발 프로젝트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고 법적 상한선의 용적율도 낮추어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시도하였지만, 그동안 유지해 왔던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공간 및 조형패턴 등의 조직성과는 별개인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다. 전통적인 도시구조와 자연환경 등 주변상황과의 관계 및 건축물이 위치하게 될 장소의 특수한 여건에 대한 분석, 전통성의 회복과 현대화, 그리고 사용자 그룹의 다양한 요구와 행태패턴의 분석 등에 관한 중요한 과제를 설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작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건축공간의 대량공급 사업으로서, 시공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지만, 삶의 모습을 담아야 할 건축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건축·도시재개발 사업이 양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어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관련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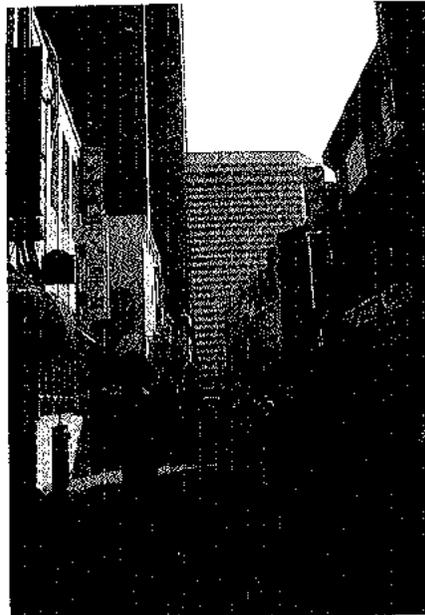
새로운 단지(Superblock)가 가지기 쉬운 독립성과 폐쇄성보다는, 도시의 기존 구조를 강조하고 이웃 환경과의 연결시도로서 도시성(Urbanity)을 회복하고 건축 내·외부 관계에 차단성을 극복하여 건축물과 주변지역 그리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겠다. 물론 현대도시 공간은 옛 도시의 상황과는 달라서 규모의 대형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기본정책하에 계획·설계하여 대형화 될 볼륨의 가능한 부분을 기존도시조직과 연결되게 하고, 옛 스케일과 어울리게 하며,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양상부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의 기능을 물리적인 공간과 조형으로 바꾸는 계획 및 설계작업을 통하여 주변환경과 연속성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기존도시조직을 전체 철거하고 주변환경과 무관한 고층건물로 대체하는 추세를 탈피하여, 우리의 도시문화 속에서 기존의 친숙한 기능·공간·형태를 보존하여 서울의 전통성과 신개발지역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안락하고 쾌적한 장소의 창조 속에서 활성화된 도시가 앞으로의 사업에서 다시 찾아야 할 귀중한 과제인 것이다.

### 3. 우리 도시 재개발 사업의 개선 방향과 미래의 가능성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을지로 2가 제16·17지구 재개발 사업은 우리에게 현대화의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공간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에 관한 건축주의 개인적인 취향과 경제적 이익의 추구 및 관련법규의 제약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필자는 전문가의 문제해결 능력과 서로 다른 설계안들과의 조정 능력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산업사회의 성장·발전과 함께 점차 규모가 커지고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의 도시를 합리적인 재개발 사업의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바람직한 계획은 우리에게 저항감을 가져다 주는 획일적인 공간과 형태의 구성에 의한 단조롭고 메마른 생활의 강요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삶의 표현을 수용하여 개성있는 도시환경을



기존 배후지역과 재개발된 건물동과의 이질적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바람직한 계획은  
우리에게 저항감을 가져다 주는  
획일적인 공간과 형태의 구성에 의한  
단조롭고 메마른 생활의  
강요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삶의 표현을  
수용하여 개성있는 도시환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옛건축물의 보존과 철거를 일정한 원칙하에 병행하고, 특히 중·소규모의 복합용도 개발을 활성화하여 도시문화의 「장소」회복이라는 과제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들에게 친숙한 공간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지역의 전통성과 신개발지역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이용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만족스럽고 후세에 남길만한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에 의한 종합계획과 수준높은 설계로 집행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구단위의 재개발이 전체도시와 긴밀하게 상관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상황이 다른 각도시 마다의 재개발 종합계획의 연구

작수와 하겠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종합적인 연구·계획·심의·평가 등 바람직스러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구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구에서의 업무는 점진적인 개발방법에 의한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한 거주환경정비 실현의 구체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거주환경의 수준을 고려하는 일이 건설의 공급량 확대의 다음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질을 높이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값비싼 건축이 품위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수준높은 정책과 설계가 경제적이며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가·도시계획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창의적인 설계의 개발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과 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또는 정부당국,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공서, 그리고 계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각각 강조되어야 한다. 정책의 방향설정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은 관련당사자들이, 투자하는 건축주의 요구와 이용자들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행정당국은 이들의 올바른 결정을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거리감이 있는 「문화」와의 단절현상이 일어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경제성장에는 반드시 생활과 직결되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문화」의 성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재개발사업은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을 통하여 적절한 개선과 개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상의 정책과 설계측면의 향상이 도시의 거주문화를 정착하게 만들며 이것이 우리의 건축·도시사업이 나아갈 차원높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量塊·表皮·格子의 혼합형태

— 퇴계기념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

김광현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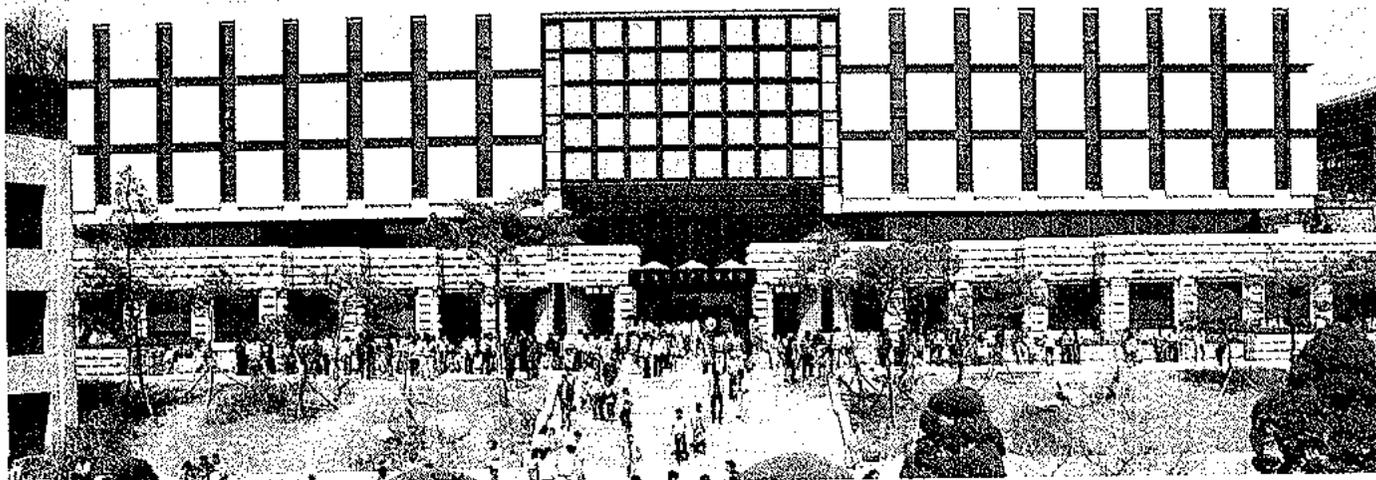
Crticism/Architectural Form Mixed with Mass, Skin and Grid  
by Kim, Koang-Hyun

## 1.

1920년대에 형성된 인터내셔널 스타일은 이전의 서구건축의 중요한 원형의 하나였던 「닫혀진 상자」라는 성격을 역전시키고, 그것을 일반적인 양식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근대건축의 가장 중요한 형태상의 변혁을 일으켰다. 「가벼운 표피로 둘러싸인 볼륨」이라는 표현 형식은 한편으로는 종래의 고전주의적인 건축형태에 대한 반대의 극(極)을 실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근대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일의적으로 통일된 조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형태적인 극이 실체화(實體化)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볼륨과 매스(量塊)의 대립적인 표현의 이론은 P. Johnson과 Hitchcock의 「International Style」에 잘 나타나 있다. 매스의 정지된 견고한 효과와 볼륨을 경계짓는 평탄한 표면의 효과, 두꺼운 벽들과 열린 박스라는 대립적인 원형을 제시하면서 「보호막으로만 둘러싸인 골조 구조에서는 매스에 의한 전통적인 의상에 경의를 표하고 상궤(常軌)를 벗어나 반대의 효과를 일으켜 하지 않은 한 건축가가 볼륨 표면의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볼륨으로

화한 건축형태는 비물질적이며 비중력적인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경계가 지어진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중력이 표면과 그 내부와 함께 나타나던 과거의 매스에 입각한 건축형태와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에 나타난 서구의 건물들을 살펴보면 근대건축의 균질감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여 솔리드한 실체를 역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존재감을 내재시킨 건축물을 응시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추상화된 경계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체면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전적 모티프나 양식적 디테일 또는 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솔리드한 실체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것도 균질공간 내지 균질한 표면 그리고 솔리드한 존재감이 빈곤한 근대건축적 어휘에 대한 수정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건축은 공간의 완결성을 파괴하고 이른바 유동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최상의 원리로 위치시켜 놓았다. 그 결과 각각의 방은 하나의 용기(容器)로서 해석되고 그것을 내부에 연결하여 외부로 표현한다는 원리를 정착시킨 바 있다. 이것은 정면(正面)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대건축은 오랜 기간 동안 정면을 긍정하려 하지 않았다. 근대건축은 귀족적인 픽워레스크의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전경, 南側 正面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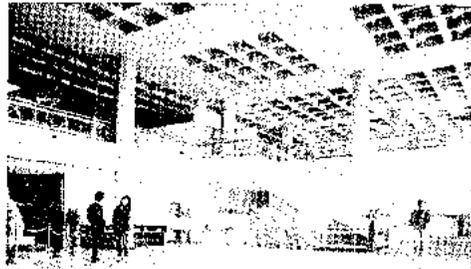
미학에 입각하여 넓은 자연 속에 자립하는 볼륨의 건축을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대중주의적인 미학에 근거하여 균일한 단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형식을 우위에 둬으로써, 단순한 윤곽에 의해 억제된 정면 속에 건축의 고유성을 표현하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여러 원리들은 Theo Van Doesburg의 선언문에서도 분명히 주장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건축은 반입방체적(反立方体的)이므로 떠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또 정면이나 배면이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면편중주의(正面偏重主義)는 근원적으로 고정된 정적인 인생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다면적으로 규정하는 조형의 원리를 새로운 건축의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 2.

단국대학교의 퇴계기념 중앙도서관을 문제로 삼는 것은 이 건물이 이상과 같은 근대건축의 조형적 원리와는 달리 일단은 설계의 출발점을 고전주의적 형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의 주된 개념은 무엇보다도 대지 위에 정착된 화강암의 매스이다. 주요 기능들은 모두 완결된 형태 안에 수용하는 것과 좌우대칭으로 규제된 입면의 중심성이 이 건물의 주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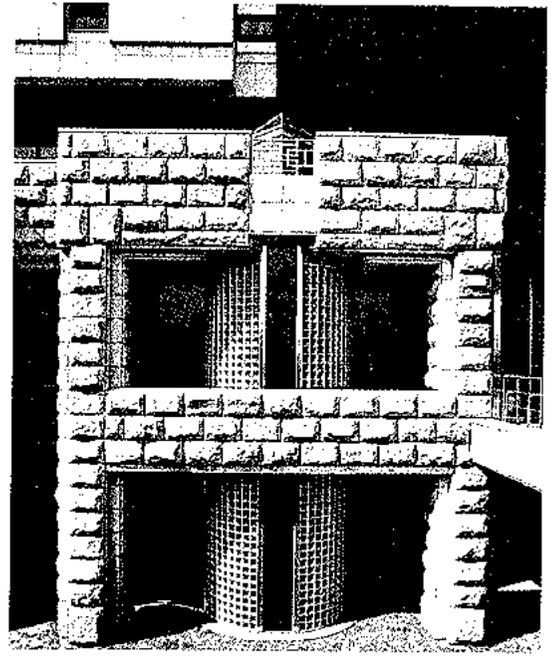
것이다. 경사진 도로 위에 한 단 높은 대지를 구축하고 러스티케이션의 효과를 낸 1층이 기단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다소 후퇴된 부분에서 그 상층의 매스를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상층 부분은 기단 높이의 2배의 높이로 되어 있어 안정된 비례감을 나타내고 있다. 1층을 러스티케이션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룰테면 Bramante의 House of Raphael과 같은 팔라쵸 건물에서 많이 보는 수법이다. 고전건축의 3부구성(三部構成) 중 기단(러스티케이션의 하층부를 포함하여)은 대지에 대한 밀착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기단은 대지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일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건축은 통상적으로 대지에 접하는 기단과 하늘에 접하는 정부(頂部)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건물은 원경에서는 러스티케이션으로 처리된 1층 부분이 대지에 접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하층의 채광을 위하여 드라이 에어리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로면에 대하여 한 단 높은 지면은 비례감을 조절하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물로 변질되어 있다. 이같은 시각적인 장치물이라는 요소는 1층의 러스티케이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면에 대하여는 이

부분이 이소자키(磯崎)의 쓰쿠마 센터 빌딩의 하단부와 같이 근대적 경쾌함과 대립되는 고전건축이라는 수사적인 표현이 연상되지만, 점차 진입해 감을 따라가거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 하단부가 긴밀하게 연결된 고전건축의 기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비교적 균질한 상층부의 표면적인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더우기 그 러스티케이션은 중앙을 향하여 요철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심부를 강조하고 그 좌우 단부를 펼침으로써 보다 안정된 기단부를 형성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으나, 그 반대로 러스티케이션의 면이 너무 많이 단절되어 기단 자체의 매스감은 반감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같은 처리와 비슷한 모순되는 현상은 중앙부 좌우의 유리 블럭에서도 나타난다. 이 원통형의 유리 블럭은 중앙부 좌우의 수직선을 연장하여 마치 원기둥과도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프레임과도 같이 둘러싼 벽면은 오히려 기단부의 중력감과는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내부에서는 원통형 유리블럭이 장식물로 보이고 그것을 둘러싼 벽면은 외부에서 볼 수 있었던 중력감과 무관하게 처리되어 있다. 한편 고전적으로 위치시킨 상층부의 매스는 원경에서는 균일한 표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절된 케이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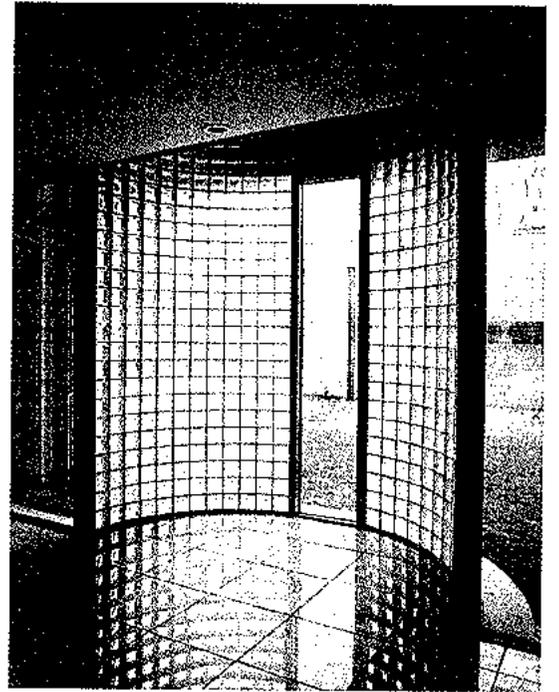


▼ 주출입구와 선문

1층로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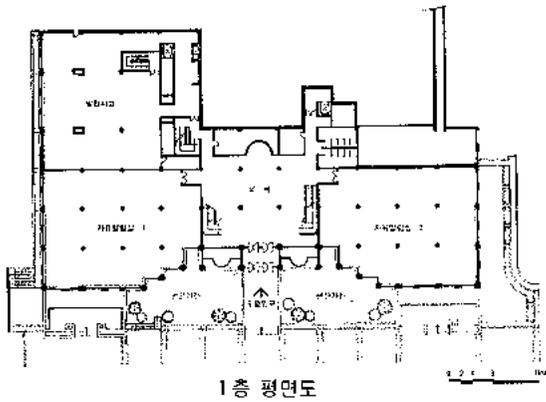
▼ 원통형 유리블럭의 내·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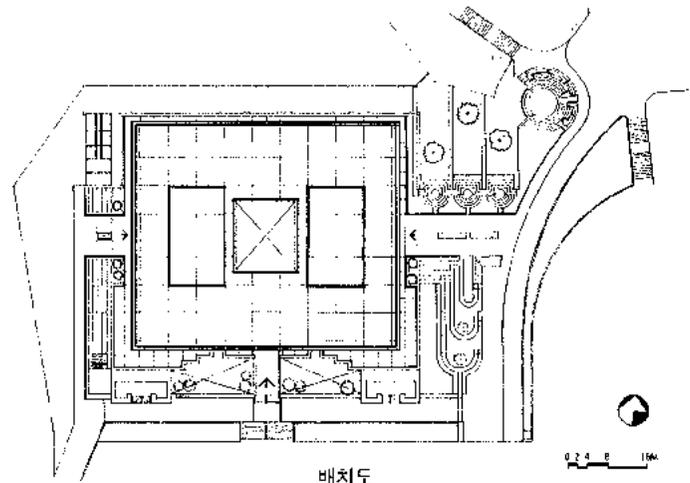
같은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중후한 메스와 대비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 열람실 등을 위한 채광과 육중한 화강암의 매스 처리와의 절충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디테일상으로는 사각형의 단위 벽면이 윤곽선으로부터 튀어 나와 있어서 오히려 그 단위 벽면이 갖는 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격자형을 이룬 커튼 월이 배후에 있고, 그 외부에 다시 단위 벽면을 케이스처럼 삽입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실제로 이 케이스 벽면은 내부에 대하여 그리 유용한 것 같지는

않다). 이에 유리면이 다시 상층부와 하층 러스티케이션 사이를 뚜렷하게 분리시키고 있고, 중앙의 반사유리가 그 좌우 단부에서 분절되어 케이스 밑으로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근대주의적인 볼륨과 그 표피가 가상면(假想面)을 이루고 또 그것이 전체의 주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화강암 판재로 구성된 케이스 벽면은 건물의 윤곽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면이 아니라 표피와도 같이 무게를 잃은 비실체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부의 채광과 매시브한 처리가 갖는 모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의 또 다른 주제는 격자(格子)가 된다. 정방형의 격자란 시스템 기하학으로서 수직·수평의 모든 방향에 대하여 긴장감을 부여하는 근대합리주의의 논리적인 정합성(整合性)을 나타내는 형태 언어이다. 때문에 그리드가 표면을 지배할 때는 냉정한 표피, 추상화된 경계면, 입체의 비물질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건물은 외관상으로는 고전주의적 구성 패턴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상층부에서는 이와 함께



1층 평면도



배치도

근대주의적인 형태감각을 공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건물 전체를 지배하는 입체는 존재감 있는 매스로서 상정된 것이지만, 또 다른 레벨에 있어서는 건물 전체의 존재감과는 상반되는 피막으로서의 표면이 의도되어 있다. 이같은 대비적인 현상은 건물 중앙의 유리면을 용시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건물 전체는 화강암의 명확한 윤곽이 좌우에 표현되어 있지만, 중앙부는 그 윤곽선이 끊겨 있고 그 대신 상·하반부를 경계짓는 유리면으로 연속되어 있다. 그 때문에 안에는 커튼 율이 밖에는 표피화된 화강암이 교차해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중앙부를 비스듬하게 바라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1층의 러스터케이션 면은 그것이 연속되어 있지 못하고 케노피로 잘리어 있어서 일단은 상층부의 매스를 받쳐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피막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볼륨을 에워싸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 결과 이 건물의 표면 구성은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매스의 표현을 의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실제감은 어디까지나 원경에 있어서 뿐이다. 재료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공간을 규정하는 벽면도 아니며 실제적인 것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스크린으로 화해 버린 화강석의 질량감, 그 변질된 질량감을 보완해 주기 위한 거친 하층부의 매스, 대지에 없혀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대지를 파고 그 위에 떠 있는 입체. 이와 같은 것들은 고전건축의 형태적 원리를 원용한 것들이긴 하나, 결국은

근대건축의 조형어휘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외관은 형식상 엄정한 좌우대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평면에서도 중앙에 카드 목록실과 채광을 위한 중정이 대칭축상에 배열되어 있고 적어도 진입하는 축 위에서는 요철형으로 꺾인 면을 따라 홀 끝 부분의 퇴계 동상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대칭형을 따르고 있다. 중앙부를 설정하고 그 주위에 방을 배열하거나, 부분적인 평면 및 내부 벽면에 시도된 대칭형들은 설계자가 고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전지향적인 디테일과 중심성은 건물 전체를 규정하는 형태상의 배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 3.

오터가 사용되고 대칭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고전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인가. 그것은 근대건축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인가 아니면 신기성(新奇性)을 추구하는 건축가의 취향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이 퇴계기념 중앙도서관에서 보는 문제점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평자는 이 건물의 구성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한 몇가지 모순되는 현상을 비판할 경우 그 공존을 설계자가 본래 의도한 것이라 말한다면 그 공존은 복합의 문제가

되어 다른 방향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그 공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귀납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고전주의를 가장한 근대건축의 산물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후자가 그 이유라면 여기에서 나타난 고전주의는 근대건축의 이론적인 비판과는 무관한 취향(趣向, Taste)의 도구로서 쓰인 것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건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물체와 공간의 원형이 혼합되어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단일의 폐쇄적인 상자로서 억제되고, 다시 중정에 대하여 강력한 축성(軸性)과 중심성을 가짐으로써 내부공간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내부는 확실한 벽체로 명확히 구별된 자기완결성이 벽체의 외식과 함께 나타난다. 또 다른 하나는 보다 순수하게 기하학적이며 개념적인 격자를 통하여 등방성(等方性)의 자립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벽체를 배제하고 가볍고 추상적인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실제감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이다. 실국 매스와 격자와 피막은 물체와 공간의 존재형식의 3가지 원형으로서 3개의 극에 해당된다. 이러한 3가지 원형의 혼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대와 현대건축의 형태언어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3가지 원형이 혼합되어 있는 퇴계기념 중앙도서관이 위치할 수 있는 좌표란 어디까지나 설계자의 의도가 보다 상세히 설명될 때 비로소 확실히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 - 高句麗의 建築(II) -

張慶浩

문화재연구소장

Report/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by Chang, Ky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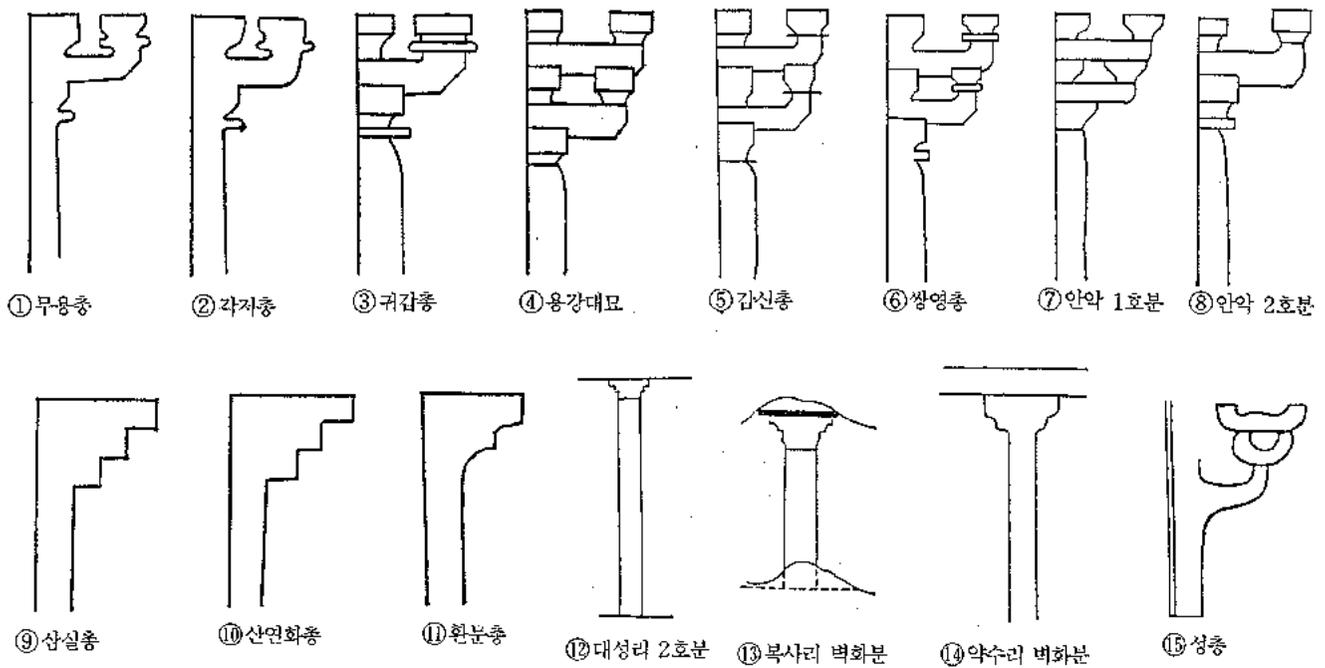
### 라. 일반건축

고구려는 궁궐 및 佛寺建築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토속적으로 행하여 오던 土俗信仰에 의한 祠廟建築과 祭神建築도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보아진다. 고구려사람들은 이미 기원전부터 天祭를 지냈고 또 조상신을 섬기었으며 Shamanism의 巫信을 가졌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條에 보면 「그 19년 (B.C 1년)」에 社稷에 제사하기 위한 돼지가 달아났으므로 왕이 託利와 斯卑로 하여금 좇게 하였던바 長室澤中에 이르러 불잡아 칼로 다릿살을 베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노하여 祭天할 제물을 어찌하여 상처를 입히느냐고 꾸짖어 두사람을 坑속에 빠뜨려 죽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次大王三年(148년)에는 「왕이 平儒原에서 사냥을 했는데 흰 여우가 뒤를 따르며 울었다. 왕이 활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고 巫師에게 물으니 무사는 여우는 요방스런 짐승이므로 길한 징조가 아니요...」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무속 역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260년 中川王條에는 「王如卒本 祀始祖廟」라고 하여 조상에게 祭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록뿐만 아니라 後漢書 東夷傳 高句麗條에는 「以十月 祭天大會

名曰 東盟」이라 하여 「10월에 祭天儀式을 거행하였으니 東盟이라 하였다」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은 三國志魏志에서도 볼 수 있어 「國中大會」로 밝히고 있다. 또 상기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에는 「所居之左立大屋 祀鬼神又祀靈星社稷」이라 하여 「저처 왼편에는 큰집을 세워 鬼神과 靈星社稷을 제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 길림성에 있는 輯安 고구려 동대자 유적의 조사보고<sup>1)</sup>에 의하면 이곳에서 노출된 건물지는 짜임새나 규모 그리고 출토된 유물로 보아 고구려후기 귀족계급의 주거지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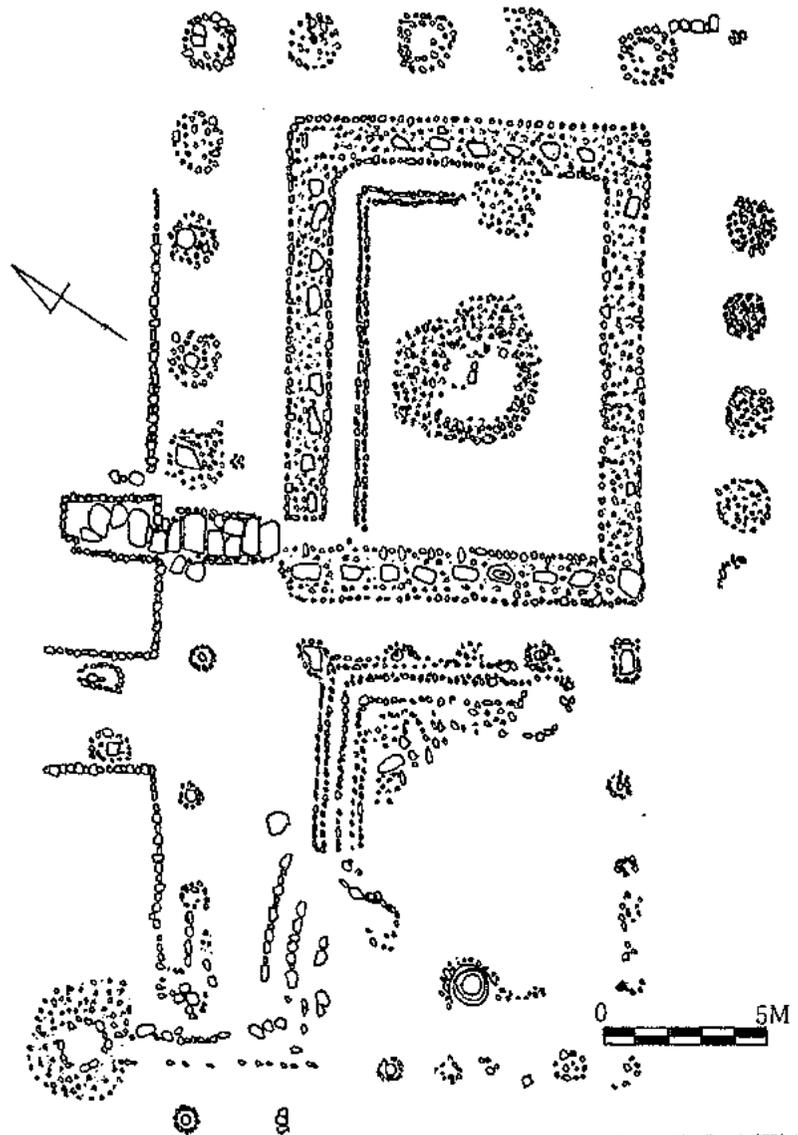
전후 부속건물지와 함께 一棟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평면이 장방형이고 향은 동남향이다. 基壇을 형성한 위에 건물을 세웠던 것인데 건물지로 보아 동서 2개의 방과 그 사이에 남북으로 가로놓인 좁은 통로로 구성되었고 2개의 방 外周에도 外陣柱의 적심석이 배열되어 마치 트인 주열을 갖는 빛간집 평면과 같다. 건물 평면의 동서길이는 35m 이고 남북의 길이는 15m 라고 하나, 도면으로 보아 약 18m 내외였다. 또 방의 크기는 동서방이 다같이 15m×11m 정도 되는데 동쪽방의 벽체는 줄기초위에 세워졌음을 남아있는



(그림 1) 고구려 고분(古墳) 주형도집(柱形圖集)

積心石으로 보아 알 수 있고 또 서쪽의 방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갖고 놓여진 돌땀기초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동측방의 중앙부에는 폭 1.5m~2.0m 바닥에 장돌과 진흙을 30cm~50cm 두께로 다져 깔아 이것이 佛壇이거나 祭壇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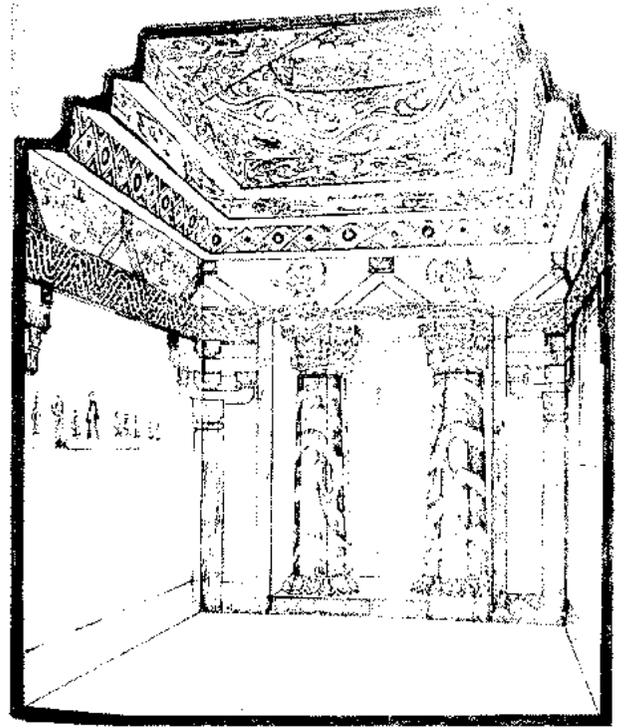
건물지에 남은 초석들은 주좌를 한단으로 Moulding 한 것과 두단으로 한 것이 있다. 양쪽 방에는 각각 한개씩 “ㄱ”자형 온돌을 놓았는데 동측방의 것은 외고래 구들이고 서측방의 것은 두고래의 구들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앞서 기록이 사실로 고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건축은 4~5세기에 조성한 벽화고분의 그림자료에서 일반건축의 종류와 형식을 알 수 있고 또 목구조 일부도 파악할 수가 있다. 황해도 안악 제3호분(일명 冬壽墓) 건물도에서는 방앗간, 주방, 고기간, 차고, 외양간, 마굿간 등의 부속건물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sup>3)</sup> 고분벽화에 그려진 기둥과 그 위에 놓여진 공포의 형식을 보면 먼저 기둥은 엔타시스를 별로 두지않은 민흘림으로 처리된 것과(舞踊塚, 角抵塚, 環文塚, 德興里古墳등) 엔타시스를 기둥 상부에서만 둔것(安岳第1號, 水山里壁畫, 古墳등



(그림 2) 졸안 동대자유적 제1(동쪽) 및 제2(서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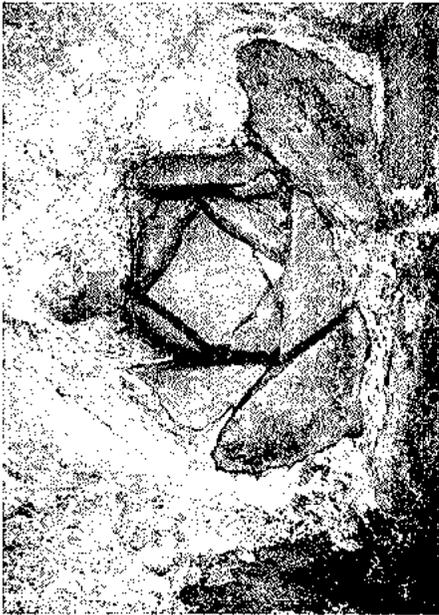


▲ 舞踊塚 主室左壁畫 ▲



▲ 雙楹塚 後室見取圖 (平南 龍岡部 池曇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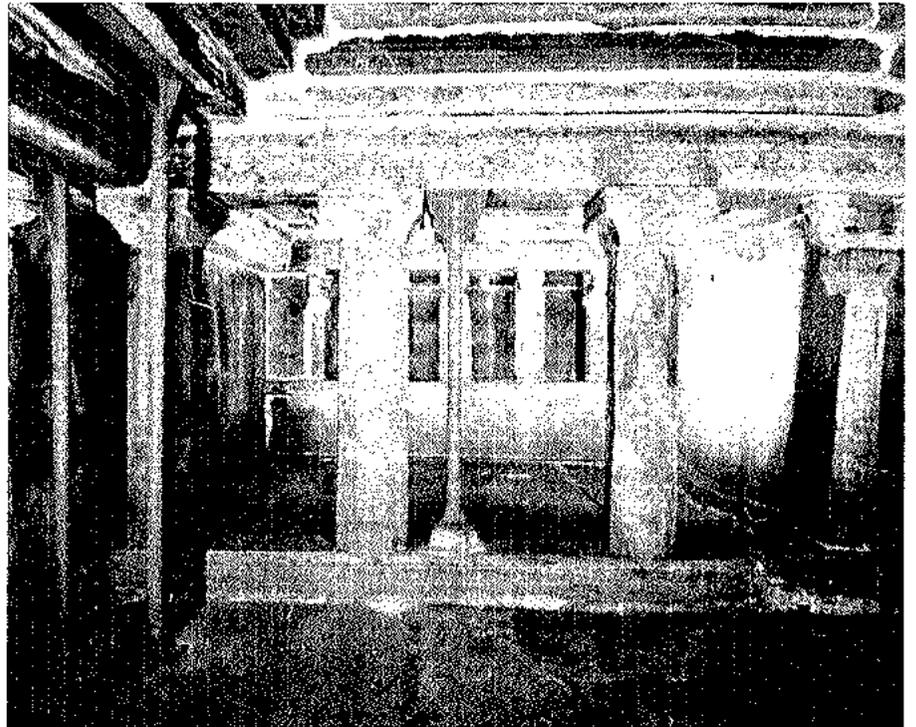
▼ 前室天井架構 藥水里壁畫古墳 (5世紀初)



▼ 環文塚 玄室西北 隅壁畫 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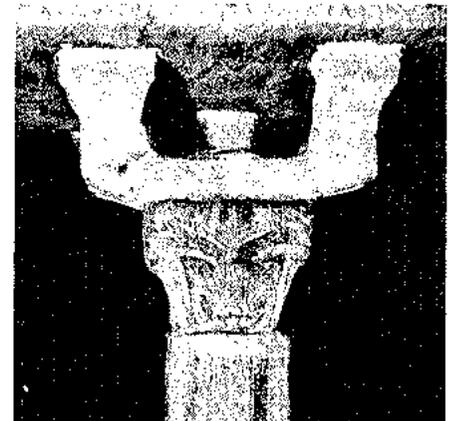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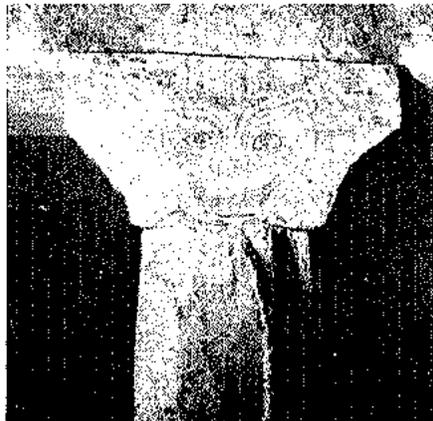


▼ 玄室内部 構造 安岳第3號墳 (4世紀中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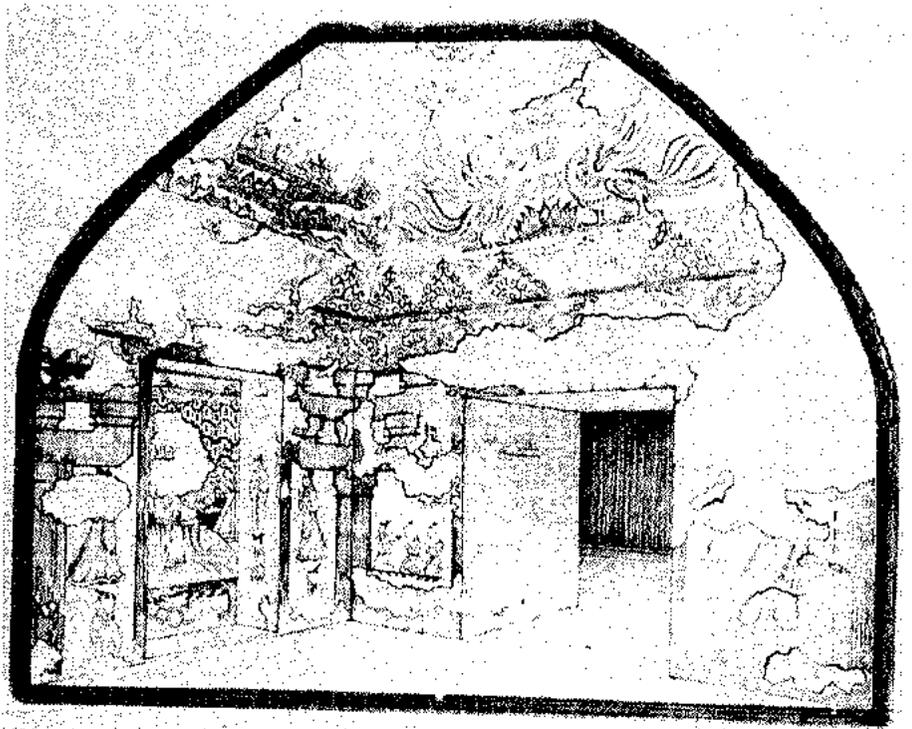
▼ 鬼面石柱 安岳第3號墳 (4世紀 中葉)

▼ 鬼面石柱 安岳第3號墳 (4世紀中葉)





▲ 主人, 臣下圖 水山里壁畫古墳(5世紀中葉~末)



▲ 龕神塚 前室見取圖(平南 龍岡郡 新寧面)

배흘림이 기둥 하부까지 내려오는 것(雙盃塚壁畫) 등이 있다. 또 기둥위에서 栱包를 표현함에 있어 첨차의 단만을 표현한 것(三室塚, 散蓮花塚, 環文塚 등)과 柱枋와 첨차 그리고 小累를 비교적 자세히 표현한 것(舞踊塚, 角抵塚, 龍岡大墓 등) 등이 있고 栱包의 짜임을 첨차 1단으로 된 것(무용총, 각저총, 안악 2호분 등)과 2단으로 된 것(용강대총, 龕神塚, 쌍영총, 안악 1호분 등)이 있으며, 柱枋에는 굽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기둥위에 仰蓮花를 놓고 그위에서 柱枋를 얹어 첨차를 짜은 것이 있어(水山里 壁畫古墳) 특징적이고 대부분 기둥이 원형이나 4각기둥을 한 것도 있다. (德花里古墳) 여기서 보이는 주두나 소로는 밑에 굽이 입면으로 보아 곡선으로 휘어져 패였는데 이것은 1974년 안압지에서 출토된 난간용 주두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 고대건축에서 사용된 형식이다. 첨차 역시 끝단이 수직으로 잘려 그 밑에서 경사지게 直切한 것과 끝에서부터 둥글게 弧形으로 깎아내려 지금의 다투개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翹頭形(교두형은 여자가 사용하는 비너머리와 같은 것임) 첨차와 유사한 것 등이 있어 그 형태가 1,500년 전이나 조선말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벽화고분에 나타난 栱包의 형식을 살펴보면 초기적인 형식에서부터 발전 형식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環文塚이나 大城里 2號墳에서는 주두도 없이 2개의 대, 소 첨차를 올려놓는 형식을 하고 초기적 형식을 보이고 또 안악제 3호 고분내에 8각석주위에 놓인 주두와 그 위에 초기형태의 각이진 첨차와 이 첨차 양단위에 놓인 소로는 一斗二升(주두 1개와 소로가 2개 놓인 것)식의 초기 공포형식에서 좀 발전된 단계의 형식이지만 이것은 한방향 즉 도리만을 받칠 수 있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무용총이나 각저총등지에서 볼 수 있는 一斗三升形式인데 이러한 형식은 도리와 보의 맞춤이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첨차가 2단으로 놓인 용강대묘나 감신총에 나타난 공포의 형식은 많이 발전된 것으로서 첨차를 2단 두었다는 것을 出目 즉 外目 도리를 들 수 있는 架構라는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심포형식과 거의 같은 발달된 가구기법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목을 주는 것은 외목도리를 두어 처마 서까래를 柱心에서 외측으로 빠져나와 받치므로써 처마의 내임을 깊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울러 건물의 壯重性을 나타낸다. 屋塚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나무가지와 같은 곡을 이룬 첨차형은 혹 백제와 일본 法隆寺의 雲形 첨차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한다. 또 대부분 첨차의 상면에는 栱眼을 두고 있고 八字 대공이 많이 쓰여져 현존하는 고려나 조선초기의 八字 대공을 연상케 한다. 지붕에 형태는 우진각과 맞배지붕이 많이 보이는데 지붕 용마루 양끝에 치미형을 보이는 것과 연봉의 장식을 보이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의 궁궐이나 佛寺建築은 훨씬 더 다양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고구려건축에서 분묘건축은 그 구조와 건축학적으로 중요하다 하겠지만 이것은 墓制와 결하여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註 □

- 1) 정찬영: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考古民俗, 1966.
- 2) 前掲書.
- 3)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參考文獻

-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1985
- 通講(卷下), 圖書刊行會, 1973, 東京
- 朝鮮古蹟圖譜, 第二卷, 國華社, 大正四年(1915)

# 中國建築에 있어서의 傳統형식과 現代기법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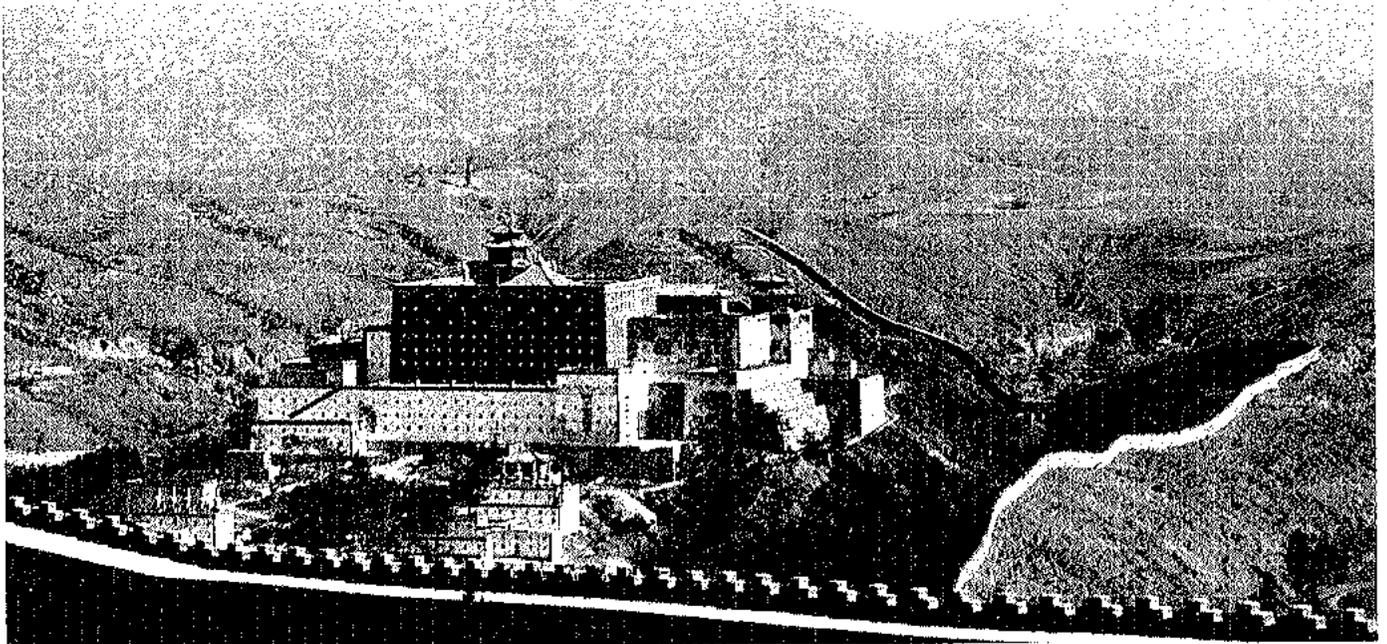
朴舒弘 譯

(株)熙山建築士事務所

본 논문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Klaus Herdeg 교수가 일단의 건축과 학생들을 인솔하고 약 60일간 중국을 방문한 후 그 일원이었던 David Cohn 씨가 AIA Journal (1985년)에 기고한 "The Search for National Forms and Modern Techniques"의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임. (編輯者註)

1. 1966~1976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문화 대혁명<sup>1)</sup>과 그후의 정리기간중 모든 지식계층에 가해졌던 갖은 압력과 온갖 박해로부터 해방된지 불과 수년이 경과한 지금, 중국의 극소수의 건축가들은 건축이 다시 관심과 토론의 주요대상으로 부상함에 약간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이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건축이란 돈을 낭비하는 것만으로 취급되어 소외되었고 건축가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토목과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매달려야 했으므로 디자인의 우수함이나 좋은점 등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중국 유수의 대학중의 하나인 칭화(淸華)<sup>2)</sup>대학교 건축 및 디자인 연구소장인 건축가 왕탄교수는 "문화혁명이후 중국 건축가들의 마음이 해방되었다"고 지난 10년간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격심한 경제적 변화의 와중에서 건축가들은 "과연 새로운 중국의 건축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고 고심하면서 마치 60여년전 초창기에 서양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건축가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건축가들 스스로에게 자문하기에 이르렀다.

2. 일견 당연한듯이 보이지만 중국인들은 아직도 서양식의 건축계획을 중국 고유문화에 접목시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에 있어서 그들의 위대한 전통을 현실의 요구에 알맞게 적용시키는 방법도 못찾고 있다.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이것은 바로 중국에 있어서의 과거와 현재의 깊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건축을 재정립하려는 것은 과거<sup>3)</sup> 초창기에 서양문화와의 격렬한 접촉이 있었을 때 입었던 목은 상처의 치료 이상의 어려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야기시킨 논쟁의 핵심은 양면성의 성격을 띤 '전통양식과 현대기법의 추구' 라는 것에 놓아질 수 있다. 전통형식은 역사와 지방고유의 또는 민속건축물들에서 찾아져야 하고 반면에 현대기법은 해외에서 찾아야 함으로, 두 목표의 동시추구라는 명제는 현대기법이 중국 고유 문화에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다는 불안한 가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하는 방법론이 어려운 것으로 두가지의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전자를 대표하는



▲칭더(承德)에 있는 라마교 사원. 전면에 있는 벽은 왕립공원 둘레를 쌓고 있음.

전통주의자들의 생각과 후자를 대표하는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 3. 전통주의자들의 기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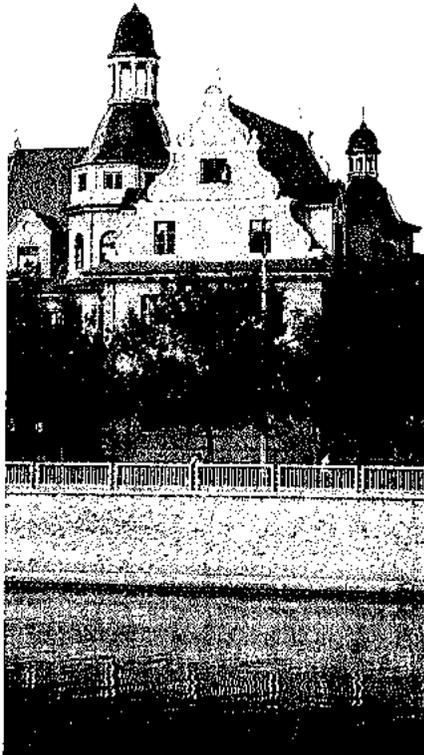
난징(南京)공과대학(N.I.T.)의 치강교수로서 그는 중국의 건축을 보수적인 전통형식으로 집대성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것을 작품에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그의 작품중의 하나인, 중국혁명기중의 열성 공산주의자와 그밖의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건축계획은 길이 6,000m나 되는 긴 보행통로와 그 끝에 자리잡은 40m 높이의 거대한 기둥으로 구성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바 그 광대한 경내는 모두 극히 단순화된 전통중국양식으로 되어있다. "어떤 건축가들은 오로지 서구식만을 좋아한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해왔다고 우리도 그럴 수는 없다. 대륙 어디에나 Box 와 Box 가 만드는 Box 의 군만이 보이는 중국은 생각할 수도 없다. 내 의견은 우리가 좀더 전통적인 것에 눈을 돌려서 현대기법을 전통형식과 화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고 치강은 그의 건축철학을 강렬하게 피력하고 있다. 치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는

신 기수들의 대표자격인 다이 후 동이 있는데 그는 일찌기 치강의 제자였으며 현재는 상하이(上海) 동지(同濟)대학의 교수이다. 다이 교수의 입장은 전통은 존중하나 그것에 대해 그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새로운 것의 혁신 없이는 전통이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새것의 쇄신이야말로 대세요 주류인 것이다." 그의 작품속에서는 과거에 대한 요소는 치강 교수의 그것보다 비교적 뚜렷하지 않지만 보다 더욱 추상적이고 요약되어있다. 그의 1981년의 광둥(廣東)종합 Commercial Center 를 위한 Compé 에서는 2개의 Mirror glass 탑 만이 우뚝서서 부근의 손문(孫文)선생기념관과 같은 평면형태인 6각형을 이루고 있어 기념관을 접하고 있는 주 경내의 좌우 양쪽에 마치 쌍둥이 탑과 같이 서있다. 치강은 양 텡 바오(미국이름 T.P.Yang) 의 제자였는데 양 텡 바오는 량스청(梁思成)과 더불어 제국시대 후의 중국건축의 선구자로 추앙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1920년대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Paul Cret 의 Beaux-Arts 프로그램에서 Louis

Kahn 과 함께 공부한 바 있다. 모더니스트들의 위치는 1930년대와 40년대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던 건축가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예를들면 동지(同濟)대학 건축과의 창설자이며 초대대학장이었던 O.E.Voong 은 바우하우스에서 Hannes Meyer 밑에서 공부하였고, 칭화(淸華)대학의 왕탄은 1940년대에 Frank Lloyd Wright 와 1년간의 수련기를 가졌었다. 이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아직도 Gideon 의 Space, Time and Architecture 를 배우고 4명의 거장 즉, Gropius, Mies, Corb and Wright 의 작품들을 공부하고 있다. 모더니스트들은 영감을 얻기위해 서구를 끊임없이 주시한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책방들에서는 Crane dynamics 나 Concrete mixing 등에 관한 수백권의 기술서적들 사이에서 서양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극소수의 해설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해설서들은 서양의 잡지등에서 발췌한 서양의 병원, 학교, 공항등과 같은 건축물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그려 좀더 분명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4. 전통주의자들과 모더니스트들간의 계속되는 논쟁에서 사람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 세워지느냐”하는 것이다. 전통주의자들의 그것은 주로 정치가들에 의해 선호되어 난징(南京)기념관이나 모택동묘역 같은 추모작품을 만들고 있다. 반면 모더니스트들은 제일차 대약진(大躍進) 운동의 실패에 즈음하여 실용적인 건물에 대한 사회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도입되면서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건축주들은 전통의 디자인을 선호하나 대부분의 일반 건축주들은 현대식 디자인을 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느 건축가의 표현대로 “우리가 현대라고 부르는 것은 곧 돈의 절약의 의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양 진영의 최우수 작품은 과거에 대한 참신한 조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 건축물들의 진가는 서양 관광객들의 중국유입과 동시에 알려졌는데 제국시대 중국의 중요한 기념물들은 대부분 복구, 복원되었으며 이중에는 문화혁명 당시 훼손되었던 문화재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쪽의 지린(吉林)에서 남쪽의 항저우(杭州)에 이르기까지 관광지에 대한 폭넓은 보존과 제도적 발전을 위한 준비도 행해지고 있다. 모더니스트들의 가장 촉망받는 작품은 지방의 고유민속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나왔으며, 아마도 I.M.Pei, FAIA 와 그가 설계해서 베이징 교외에 세워진 Fragrant Hill Hotel 에 기인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동지대학의 거 류 리안이 설계한 저장(浙江)의 유링동굴의 휴게소와 칭화대학 출신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 오스트리아에 속했던 항구도시. 사진은 제1차 세계대전 전의 건물.

안휘(安徽)의 황산 Resort Hotel 등은 모두 지방고유민속전통을 현대화시킨 예이다. 이 두 건축물은 모두 전통건축에 있어서의 보다 작은 Scale 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의 기능이나 질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아마도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이상형에 가장 근접한 건축물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소규모이고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널리 모방, 전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지금까지 여기 열거한 예들은 모두가 중국 4대 건축학교인 난징, 칭화, 동지, 그리고 티엔진(天津)대학의 건축과 교수들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대량의 설계가 이뤄지는 지방 설계사무소들에서는

1960년대의 실용주의가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식 수련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건축사들이 다만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만 맞게 대량의 설계를 해내는 실정이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지금 빌딩 건축붐의 와중에 있으며 극소수 밖에 안되는 건축사무소들은 과도한 양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인들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 건축가인 로이찬씨는 천만달러 규모의 병원건축설계를 1년도 안되는 기간내에 혼자했다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듯이 좋은 선택을 하기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책상서랍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꺼내서 그것을 바로 종이 위에 옮겨 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거나 또는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되풀이 사용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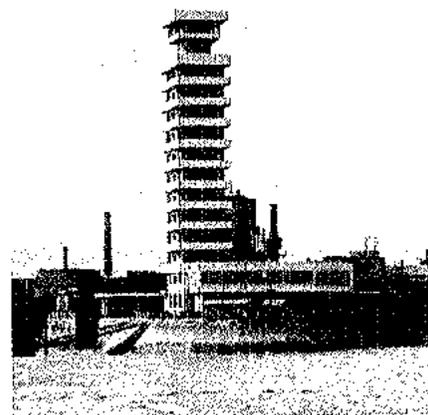
계획단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서두름은 대개 건축물들이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밀집되는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지만 개개의 건축물들 중에는 때로는 놀랄만큼 훌륭한 것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으니, 그것은 최소한 미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매력적인 단순성과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믿을 수 없을만큼 수단을 배제한 결과의 산물로 인지되고 있다. 전형적인 건축방법은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거나 또는 Stucco 로 처리된 벽돌벽에 콘크리트 바닥과 철재의 샷시등으로 마감처리하는 것 등이다. 기계의 시설물은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질서감은 구조의 단순성에서 오거나 대칭처리법, 평행배치법등과 같은

단순한 형식적 수단에서 나오고 있다. 설계 자체로서 볼 때 하나의 건축은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서양에서와 같은 다양한 기능요소들의 복합성으로만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마치 자동식 문장작성기처럼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옛것을 답습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고대 중국의 계승자는 바로 벽이다.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하나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안에 주택, 학교 그리고 그밖의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모두 들어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형태에 아주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니 현대의 북경은 그안<sup>3)</sup>의 거대한 지역들이 벽으로 둘러싸인 콤파운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고대의 황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펼쳐져서 전개되어 있다.

6. 다른 건축들은 과거와 현대의 기이한 복합형을 보여주고 있으니, 실제의 모든 신축 주택들은 남북(南北)으로 배치되어 연결되어 있어서 있는데 이것은 유럽의 모더니즘에 영향받은 러시아파의 건축계획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고대로부터의 중국식 계획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좀더 기이한 것은 모든 현대건축물들의 옥상에 세워져 있는 유리로 된 망루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얼핏 보기에는 전망대처럼 보이는데 항상 텅 비어있고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과연 러시아 건축양식의 잔재들일까? 아니면 산속의 사찰을 옮겨다 놓는 것일까? 이것들은 아마도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마천루 옥상에 세워진 그리스 신전들 만큼이나 기이한 것들이다. 고대의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것은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거나



▲ Welton Becket Associates의 Great Wall Hotel. (만리장성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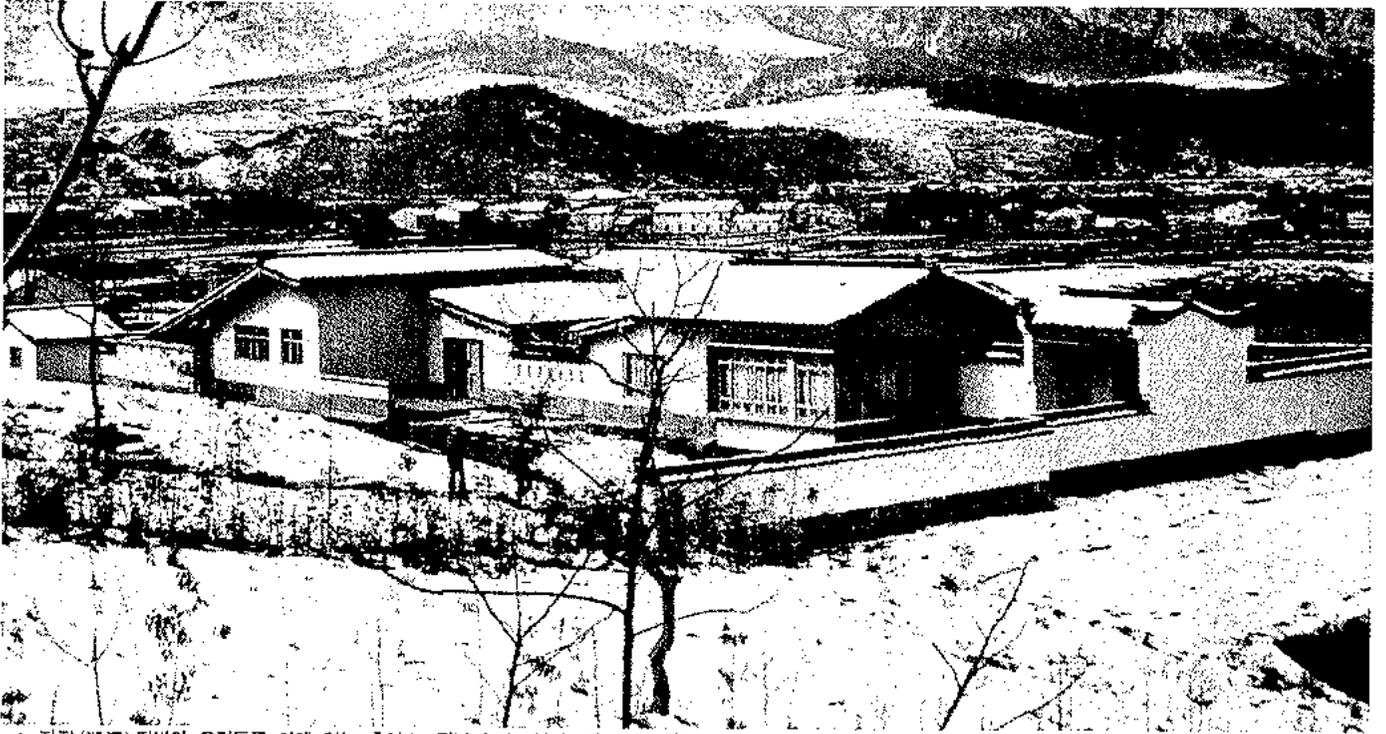


▲허북지방의 양자강(長江) 댐 옆에 있는 현대식 사무실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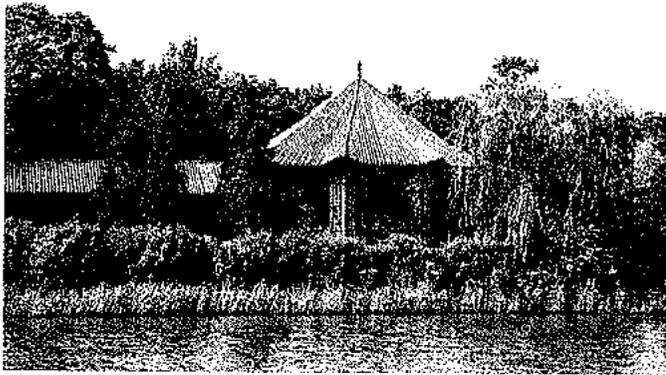
또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 남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강렬한 개발욕구에 희생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서양과의 새로운 유대관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건축가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너무 급속한 속도의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서양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로서 중국에 초빙된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에게 그들 고유의 전통을 환기시키고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며 중국인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인들은 전적으로 서양적인 시각으로 그들 자신의 미래를 보려고 한다. 현재에

있어서 환상의 초점이 되고있는 것은 베이징 중앙부에 세워진 Welton Becket 설계의 Great Wall Hotel로서 Mirror glass 로 외관을 처리하였으며 마치 호화스런 서양의 성이 넓은 북경시에 떠있는것과 같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마치 중국을 떠나 달라스에 온 기분이 들 정도다. 원로 건축가인 Charles Chen (첸장샹)은 유럽과 고대 중국문화에 고루 정통한 몇 안되는 건축가중의 한사람인데 그는 1940년대에 영국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하였으며 리버풀대학시절 지금의 프린스턴대학 건축과장인 Robert Maxwell, 그리고 코넬대학의 Colin Rowe 등과 같은 급우였다. 그는 1949년 중국에 돌아와 1954년 인기를 잃게 될때까지 줄곧 랑스칭(梁思成)과 함께 북경 도시계획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는 중앙정부 도시계획고문으로서 준은퇴 상태에 있다. 첸씨는 건축설비가 디자인으로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Beaux-Arts 방법의 영향이 더이상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한낱 엔지니어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마치 수채화의 색깔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학생들은 일급 Draftsmen 들 일 뿐이다. 건축은 어떠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최근의 전국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전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한곳에 소집되고 120,000~150,000㎡ 규모의 어떤 빌딩을 설계하라는 계획이 소개되면

*The Search for National Forms and Modern Techniques in China Architecture*



▲ 저장(浙江) 지방의 요령동굴 앞에 있는 휴양소 지방어로는 일면 "거류리양"이라 함.



▲천진에 있는 물의 공원. 일명 "인민을 위한 왕립정원 건축물"이라 함.



▲사천지방에 있는 토속적인 농가

그것이 전부다. 건축가들은 그자리에서 우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단 2주일안에 계획설계를 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중요한 빌딩을 설계하는 진정한 방법이 되겠는가?"

그는 이어서 전통주의자들이나 모더니스트들 모두가 서양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신랄히 비평한다. "중국인들은 단순히

서양 모델을 빌려다가 거기다 중국적 동기(motifs)나 주제로 단순히 치장하려고 해서만은 안된다. 또한 우리는 중국 건축을 서양적 시각으로 보아서도 안된다.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2잔의 차(茶)인 것이다." 그는 형태와 공간적인 그리드가 주제인 서양의 이상주의와 중국전통의 형식건축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황궁이 있는 북경은 건축의 Module 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단위 요소인 Bay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본요소를 여러가지 다른 배열로 배치함으로써 어떤 궁극적 이상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광장(어전을 포함)을 볼 것 같으면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해 장악했던 강력한 사회율법인 공자(孔子)사상의

이상 바로 그것이였다. 정원(庭園)에 이르러서는 인간이 자연을 숭상한 방법, 도가(道家)사상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7. 현재로서의 당면 과제는 옛 전통요소인 중국건축의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새로이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다. 쉼씨는 다음의 예를 들면서 이후의 중국건축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중요한 문제는 생활방식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런 호텔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아직 잘 익숙치 못한 것이 바로 이 서양의 생활방식이 아니겠는가? 이 로비를 보더라도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예를 든 호텔은 완전 서구식의 복경에 있는 한 호텔의 카페였는데 로비하고는 일렬로 배열된 분재나무들 한줄로서 구분되어 있었고, 옆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외국비즈니스맨들이 라운지의 회전자리에 약간은 어색한 자세로 좀 불편하게 보이도록 앉아 있었는데, 의자들은 초록빛 카바 아래로 번쩍이는 핑크웜(foam)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왜 서구생활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가? 틀림없이 중국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내가 확신컨데 우리의 전통적인 손님 접대방법이 우리를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 더 환영받을 것이라고 본다. 이점은 건축이라는 문제 이전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중국인들은 우리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 건축은 우리의 생활 이상을 표현해야만 한다. 구시대의 계급주의는 사라졌다. 얼마나 좋은가?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풀 뿌리와 같은 끈적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이웃사촌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과업이 바로 우리 건축가들이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것이 고작 러시아의 형식을 그대로 수입모방해서는 우리의 주택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로지 중국의 농부들에게 전 희망을 걸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도 오랜 옛 전통의 집들을 유지하고 있다. 내 고향인 저장(浙江)현에서는 사람들은 철근콘크리트 기술은 이미 익혔지만 아직도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볼것 같으면, 중국건축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결코 건축가들에 의해서 이뤄지는게 아니고 아직도 시골에 살고 있는 80%에 달하는 중국인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농업생산 육성책으로 시작한 1978년의 농촌개혁정책은 하나의 경제적 붐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농가의 수입과 농촌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고, 농부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기업이 세워지고 있다. 도시계획가들은 이러한 발전으로부터 새로운 중국이 태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해변가를 중심한 인구밀집지역에서가 아니고 내륙의 시골을 중심으로 확산되리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에서의 이러한 발전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면서 농촌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시키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공식정책목표인 유토피아적 목표 즉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농부들은 새 주택, 새 마을 그리고 새 공장을 자기들 방식대로 건설하고 있다. 티엔진(天津)대학의 친치민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도시계획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 보다 더 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덧붙이기를 “건축가들의 존재는 대부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시 되고 있지않다. 중국민족은 수천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농부들은 최소한 1,000년 동안은 더 그들 고유의 집을 짓거나 심지어는 동굴에서 사는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것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또한 향후의 1,000년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譯者註 □

1. 모택동이 미국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중공 청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운동. 국가주석 劉少奇를 실각시키고 전권을 毛澤東이 다시 잡음.
2. 중국의 M.I.T 라 할수 있으며, 북경 서북쪽에 위치. 1911년 미국인에 의해 설립. 문화혁명시 홍위병의 발상지.
- 3.辛亥 혁명과 5.4운동이 일어났던 清朝말기
4. 1957년 가을부터의 대규모 수리공사. 공업의 기본건설작업에 매일 1억인의 인민이 참가한 노동운동.
5. 淸제국은 자금성의 위용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통제 했음.(건물놀이, 규모등)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북경거리는 한없이 계속되는 불력과 밖에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는 4각형의 가옥(四合院)이 즐비하였고, 모두가 단층이었으며 화색 또는 다갈색 담장이 둘러쳐져 있어 대개가 좁은 길이나 골목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 住宅의 庭園 (1)

吳尚坪

(株) 正東엔지니어링 대표, 国土開發(造景)技術士

Report / Landscape Gardening  
by Oh, Sang-Pyoeng

## 1. 住宅庭園意味

언덕배기에 개딱지 처럼 촘촘히 들어섰던 도시의 서민 주택들이 헝리고 그 자리에 이미 현대화된 대형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한옥 지역은 본래 모습이 상당히 변하기는 했어도 전통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는 될지라도 그 원형은 보존되어가야 할 것이며 미처 개선되지 못한 도시의 불량 주거환경은 都市再開發의 형태로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폭발할듯 초만원속에 북적대는 도심을 떠나 경치 좋고 양지바른 교외의 호사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넉넉한 대지에 아담스런 정원이 있는 그림같은 집, 이것은 오랫동안 도생생활에 찌든 보통 사람들이 가끔씩 가져볼 수 있는 꿈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들 것인가」 종래에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때는 정원이란 특수계층의 好事에 불과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住居環境의 질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요구하에 매우 달라졌다고 볼수 있다.

현대의 대부분 주택은 규모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내부 공간인 거실, 침실, 서재 등과

연계되어 외부 공간인 정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건축물의 단순한 치장이나 수식을 위한 부수적 공간 시설이 아니고 기능적인면과 이용적면면 경제적인면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유기적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는

① 옥외의 생활 공간으로서 주위의 여러 요소들로서 형성되는 屋外居宅을 마련하여 비록 지붕은 없어 하늘과 통할 지라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는 방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꾸미기 위해서는 식물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기둥이나 격자차양 경사진 부분적인 반지붕 담장이나 차폐시설 산나무 울타리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또한 정원은 건축물의 현관으로 부터 가로 사이의 전이공간(Transition Space)을 형성시킴으로서 전이 공간을 통과하는 구도에 의해 입구와 연결을 시키고 빛, 음향, 표면처리 등의 변화와 고저의차, 위요감의 변화 특히 조망상의 변화등을 구사하여 Front Yard 와 대문등에 특징을 부여한다.

③ 가로에 면한 정원은 능동적인 공간(Active Space)으로서 駐車 사람의 왕래및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활발한 통로로 이용되며, 가로의 반대편 정원은 수동적인 공간으로서 녹지, 사육장, 생활폐기물



처리통로 임시 저장장소로 이용되도록 계획한다. 정원은 地上 즉, 良好한 土地위에 있을때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여 옥상테크, 발코니등도 사용자의 이용에 따라서는 유용한 정원으로서의 공간이 된다.

④ 공간의 입체적 이용은 土地가 부정확한 주택에서 옥상 정원을 설치할 경우 지붕의 거의 대부분을 옥상 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각층의 옥상에 평면이 있을 경우 옥상정원 설치로서 실내로부터 직접 옥상정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하며 외부로부터 넘겨다 보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등은 수벽 울타리나 차폐벽으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옥상정원에는 면적의 대소에 따라 풀장 분수 벽천등도 설치할 수 있으나 최대의 문제점은 역시 방수시설과 수목의 관리 및 유지와 시설비의 과중에 있다.

⑤ 일반적으로 중정은 적정량의 일조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南, 東, 東南, 南西向으로 향하게 하며 교목또는 인접한 건물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도로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하고 보다 큰 오픈스페이스와 적절히 연결되고 이용 가능한 최소면적은 소형의자, 긴의자, 어린이 놀이 공간을

포함하여 10㎡ 이상 있어야 한다. 개인 정원의 규모는 가구의 유형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여야 하는데 어린이를 가진 가정은 보다 넓어야 할 것이고 젊은 신혼 부부일 경우는 좁아도 무방하며 또한 主生活 空間인 건축물의 침실, 거실, 식당과 동선과 시선의 연결 연관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차장으로 부터 1개 동만의 진입이 가능할 경우( Single Loaded) 북측으로부터 진입을 시키고 남측에는 정원을 두는것이 이상적이다.

⑥ 정원이 건축물의 전면이나 후면 또는 측면에 편재해 있는것은 좋지않다. 앞서말한 바와같이 중정은 반대 건물의 남쪽에 충분한 일조량이 유지되는 쪽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전정, 후정등이 북측 또는 北西, 北東에 위치할 경우, 일조량이 부족한 음지에는 가급적 식물 재료를 지양해야하며 식물이 사용되더라도 그늘에 생육이 가능한 팔손이나무, 식나무등과 물을 이용한 벽천, 조각물, 조명, 장식등, 무기 소재를 사용함이 유리하다.

⑦ 남장은 개인정원이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고 영역을 한정하며 어린이를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있어서는 안채, 사랑채, 동별당, 행랑채등 성격이 구분되는 각 건축물의 기능의 구분과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하는 구실을 하며 대청 마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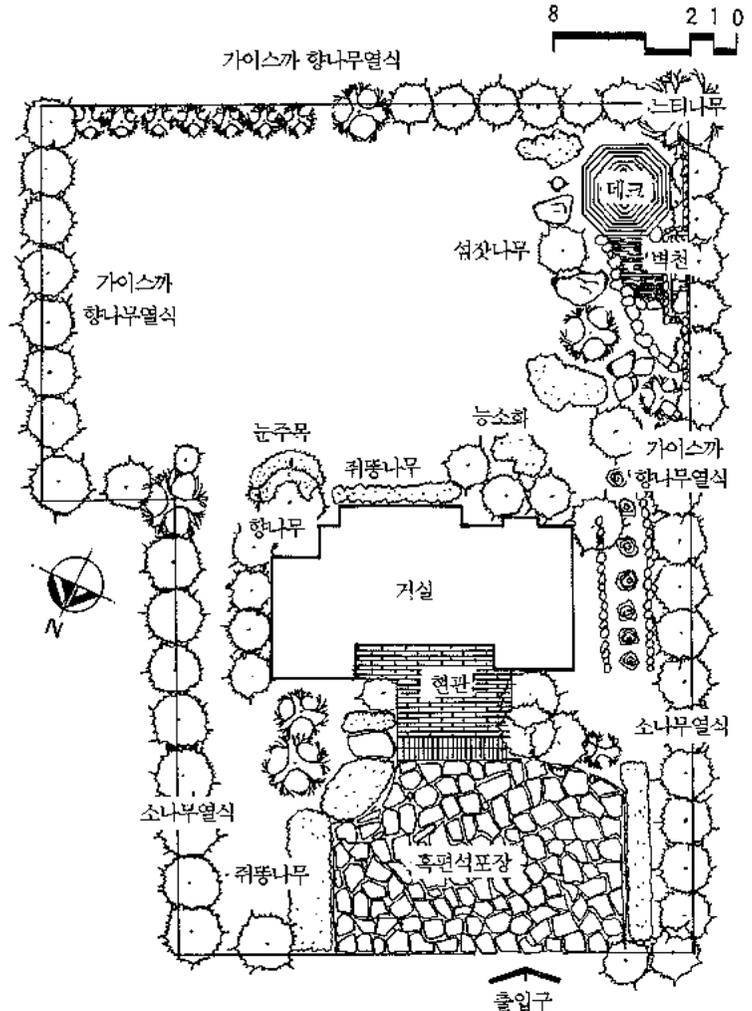
나가서면 좌청룡 우백호와 안산이 마주 보이고 흘러가는 內水, 外水의 시냇물이 적당히 조망되는 자연을 주택내에 끌어 들이는 차경의 기능과 집안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조절장치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수도 있다.

또한 담장은 외부 오픈스페이스의 시각적 이용, 내부 프라이버시의 유지 및 보안등의 고려와 정원자체 기능적 상황에 따라 재료 높낮이 등의 규모가 결정 되어져야 하고 곁들여서 관목의 식재 교목의 식재, 마운딩 등이 가해지기도 하고 밀도 높은 都市住居團地는 종종 私的, 半私的, 公的 공간들을 포함하여도 오픈스페이스의 양이 불충분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각 세대들이 자투리 땅을 나누어 각들을 담장으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일수도 있으며 이때 담장은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되므로 그 초점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커다란 수목을 식재하여 인도에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존재를 강조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서 간단한 예들들어 주택정원의 건축물과 관계 설명을 할수가 있겠으나, 그 배경과 그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유사 이래 농경 문화의 정착은 인간에게 부의 축적을 주었고 이를 서로 수탈하기 위한 전쟁과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구축물 설치, 이때부터 자기 영역에 대한 구축물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봉건시대의 계급사회에서는 지배자의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서 장식원이 출현하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정원 유적과 양식이 대부분 이시대의 흔적이다. 그 이후 산업혁명으로 봉건사회가 붕괴되어 인간의 가치 개념이 달라지고 이로인하여 정원이 특정 계급으로부터 대중화 되어지고 그 규모도 축소되어져 권위의 상징과 관상위주의 정원으로부터 탈피하여 주택과의 조화를 갖게되고 기능성, 이용성, 경제성등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 받으면서 현재에 이르게된 것이다. 「Simonds」는 주거 공간에서 충족되어야할 조건중 「Shelter 보호」기능 설비기능, 쾌적성, 사생활보호, 공간감, 자연친화 등을 들고 있거니와 그것이 과거의 기능에 비하여 훨씬 다양화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주택정원이 갖는 여러가지의 기능과 가치중에서도 住居内の 自然의 도입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도 큰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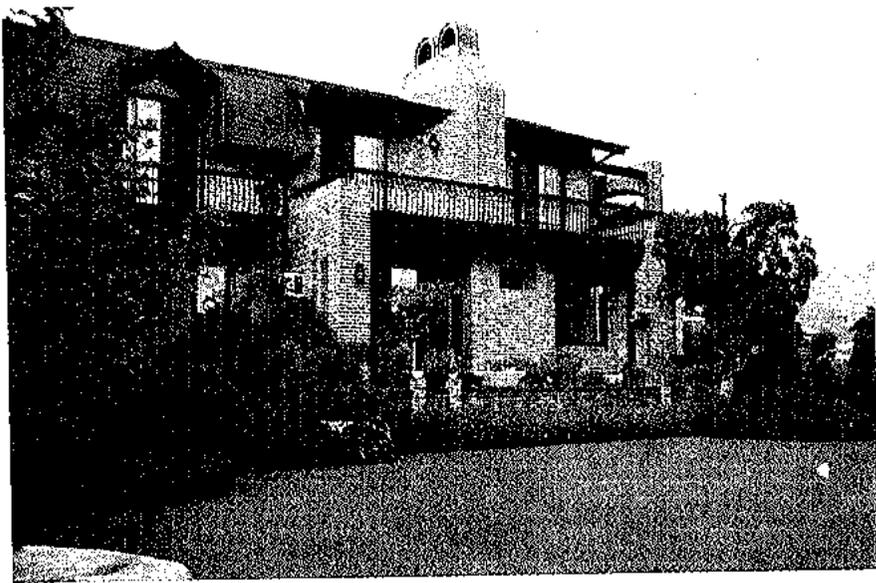
산업화 사회의 초기와 중기 단계는 1차적으로 물질적 소득 증가가 모든 사회의 가치관을 우선한다는 논리에 따라 産業化를 위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은 관심권 밖에서 맴돌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이 깊숙히 파고들어 자기도 모른 사이에 증병을 앓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강에 물고기가 폐죽음을 하고 심각한 대기오염은 산성비를 내리게하여 산림과 농작물을 황폐화시켜 인간의 숨통마저 점차 조여가고 있고 이제 자연의 가치를 새삼 깨달아 그리워하며 자연을 보호 재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되어 자연보호 구역의 설정 전원도시의 건설



도시공원의 개발등과 같은 행위가 전개되어 다시 한강에 물고기가 살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회 가치관의 전환은 개인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되어 인간이 자연 복귀의 본능적 본성을 되찾아 휴일이면 야외로나가 자연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게되고 자연을 보호, 보존하며 이것의 연장으로 주거내부에 자연의 도입이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주택의 정원은 가장적은 단위이면서 개인의 생활에는 가장 가까이있는 자연이다. 흙과, 돌과, 물과, 식물, 동물.....

## 2. 문제점과 그 해결

서구 선진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유발된 복잡하고 오염된 주거 환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이라는 수단이 강구되었고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이상적인 주거환경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집중되는 인구에 인하여 급팽창하는 도시는 도시 형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조건인 공급과 처리의 능력이 저하되고 필요로하는 도시기반시설 (Infrastructure) 수용이 한계를 벗어 급기야는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수 밖에 없는 것인바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쌓여있는 한 住宅庭園의 개선 한가지로 처방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사회 구조의 악화와 맥을  
 갖이하여 형성되는 도시 구성의 형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크게 분류하면  
 도시형성 자체가 유기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도시와 전통적도시에 끊임없는  
 개량이 가해진 근대 도시 및 완전한  
 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신도시가 있다.  
 전통적 도시는 그 발생 자체가 자연  
 발생적이어서 규모는 비교적 적지만  
 역사성을 가지며 나름대로의 유기적인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근대도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위에  
 산업화로 인한 단기간내에 인구의  
 집중현상이 가중되어 필연적으로  
 과밀화와 무질서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계속하여 개량되어나가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질적개선은 매우  
 어렵고 진부하며 투자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당초부터 산업화로 인한  
 도시 환경의 악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쾌적한 전원도시등과 같은 별도의  
 도시를 건설하려는 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가장 완전한 도시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유형도 전통도시 근대도시  
 신도시등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서구의  
 도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몇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근대도시는 그것이  
 생성되면서 새로운 도시로 형성되기  
 보다는 전통도시위에 중첩되어  
 형성되므로서 전통적인 도시  
 구조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그  
 도시의 역사성 공간적속성등이  
 소멸되어 버린 것과 더불어 서구의  
 산업혁명과같은 현저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환경 악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낮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으로서 신도시 개발의  
 주목표가 서구 선진국과 같은 쾌적한  
 도시 건설이라는 뚜렷한 지표없이  
 大都市의 인구 분산이나 산업기지의  
 배후도시 건설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구의 신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에 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것은 그들 도시는 개발의 기본  
 목표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하부 주거단지나 개별  
 주택의 정원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대규모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의 개발수법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보나  
 나온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사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개별의 목표를 전환하지 않는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신도시 이론이 발전되면서 근린 住區  
 이론과 래드밴 계획이 제안되어 신도시  
 들이 그들의 이론을 그대로 또는  
 변형시켜 이해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적  
 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상의 이론에서 다른점은  
 체켜두고 住宅造景이라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아서 공원속의 주택이라는  
 과제를 團地 규모로하여 이상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住宅造景과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것은  
 ① 住區團地內의 자동차 통과  
 교통량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자동차로부터 유발되는 불이익을  
 감소시킴과 편리하게 설치된  
 페데스트리언은 단지내에서  
 편익시설을 보행으로 차도를  
 가로지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동선배치의 효과와  
 ② 각 단위 주택들의 공동 출입구와  
 공간을 사용하도록되어 있음으로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이웃 관계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수반될 수  
 있고

③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團地 전체의 주택이 공원같은 정원속이 있다는 것으로서 개인 주택정원과 공원을 동시에 소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주택의 전면이 Cul-de-sac을 향하게되고 그 앞의 전정이 시각적으로 개방되면서 개인의 정원이 주구공동의 정원으로 확대될수 있다는 주택과 주구의 조경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정원에서 큰 문제점은 높고 완고한 담장의 폐쇄성과 남향 주택의 남향대문등에 있을 것이다. 높고 완고한 담장의 형성은 전통적 우리나라의 가옥구조에서부터 유래하였는데 부지를 폐쇄성이 강한 담장으로 둘러싸오로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다시 그 공간을 여러체의 기능을 달리하는 건물간 공간을 분할함은 물론이요. 신분의 상하 관계와 사생활의 위계까지도 공간에 표현되는 내적 공간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점인 남북을 종단하는 태백을 척추로하여 동에서 서로 뻗은 산맥과 강을 형성하고 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된 南向의 취락형태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부의 풍수도참설에 따라 南向을 선호하는 住宅地 선정의 선호도는 남향집에 南大門이다. 家屋의 향이 南向인데에 비하여 대문의 위치마저 同一方位인 南向을 선호하고 있기때문에 정원공간의 기능적 분할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있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전정(前庭)인 현관으로부터 대문에 이어지는 공간이 北向이거나 西北, 東北方에 위치하게 되면 거실, 안방, 서재등과 연결되는 中庭은 주택의 南向에 위치함으로써 충분한 일조량의 확보와 외부와의 차단에의한 屋外の 居室로서의 기능이 매우 안정적인 분위기를 갖게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등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유리한 방법이 될것이고

이와같은 외부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생활 폐기물 일시저장 또는 반출동 서비스 기능이 필수적인 후원의 위치는 자연적으로 구분 설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南向 家屋은 우리나라 특유한 지붕과 기후등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매우 장점이 큰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에 비추어 南側大門 설치는 우리나라 민족의 미신적 남대문 선호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인바 進入空間의 북측 이동은 반듯이 개선되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덧붙여 언급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성의 유지일 것인데 전회(前回)에서 언급되었던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택 정원은 서양이나 일본에 비하여 그 발달이 미약하였음이 흔히 지적되고 있다. 세계의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그들 전통적인 역사와 뿌리는 존중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통적 문화속에서 그맥이 이어져가야 되는것인만큼 오늘날 우리나라의 都市家口들의 생활형태가 거의 서구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생활 양식의 변화에 알맞는 우리나라 전통의 보존은 반듯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사려되는 바이다. 그 구체적인 언급은 전회에서 서술한 바 있다. (한국의 역사와 조경) 요는 전통 문화의 계승은 맹목적인 옛것의 답습이 아니고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창조와 발전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 3. 정원의 구성요소

정원의 구성은 특성에 따라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구성되며 특히 유기재료중 식물재료의 비중은 매우커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원이란 나무나 꽃 잔디등을 적당히 심어서 끝내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다. 그러나 식물 소재만으로는 그 구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흙, 돌,

물, 새 짐승등 자연과 콘크리트 철자재 합성수지등 우리 생활주변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① 苑路의 포장 : 정원의 크기와 지역적인 조건 기후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되는데 가령 비가 많은 지방에서는 배수처리에 철저해야 하고 재료는 콘크리트등 견고성이 높아야 하고 동시에 아름다움을 갖는것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각종 재료의 혼합등으로 미적인 디자인에도 세심한 배려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관재, 화강암, 판석, 쇠석, 벽돌, 보도블럭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장사갈 통나무토막 등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은 고압 채색 콘크리트블럭(I.L.P. 블럭)등도 좋은 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타일등도 쓰이고 있다.

시공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 기초를 굳힌후 타일 붙임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 모래를 깔고 설치하든지 배수구를 잘정돈하여 흙바닥에 그냥 설치하기도 한다. 포장면의 경계는 연석(Curb Stone)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판석인 경우 잔디등 지피식물류를 곁들여 깔기도 한다.

② 잔디밭 : 잔디밭은 정원의 明部와 암부중 명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색과 질감이 정원의 형태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빛과 그림자로서 정원의 매력을 한층 고조시키며 정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통합조절하여 조화시켜주는 역할과 옥외 거실로서 휴식과 놀이의 장소가 된다.

잔디는 대체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야생인 재래종 잔디와 이를 개량한 교려잔디가 있고 또하나의 구미지역으로부터 도입된 서양 잔디가 있다. 서양잔디는 본래 목초 종류로서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계속 깎기를 실시하며 잡초제거 거름주기 등으로 관리하여

잔디밭의 질감과 생육상태를 조절해야 한다.

잔디밭의 관리는 그늘을 싫어하므로 항상 적당한 일조와 장마기의 철저한 배수 한발기의 스프링클러등을 이용한 급수 관리는 필수적인 작업이라할 수 있다.

③ 계단 : 소면적인 고저차가 없는 평면 부지에서는 사용된다고 볼수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대문으로부터 현관사이나 경사진 부지에서는 계단의 적절한 사용이 정원 구성을 매우 입체적으로 변화있게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재료로서는 콘크리트, 자연석, 화강석, 통나무, 판재, 깎돌쌓기 타일붙임등 포장재료만큼 다양할 수 있고 폭은 최소 1m에서 보통 1.5m이며 일반 주택정원에서는 2m 이상을 넘지 않는것이 좋으며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완만한 경사가 요구된다.

④담장 : 담장은 우선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정을 제외한 중정과 후정의 적절한 차단은 프라이버시 확보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장의 재료로서는 흙, 돌, 기와, 콘크리트블럭, 철책벽돌등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울타리로서는 목재, 판재, 대나무, 싸리, 산울타리등을 들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담장으로서는 토담 사교석담, 전돌담, 화초담등이 있고 담과 어우러지게 심을 수 있는 담쟁이 덩굴은 담장과 잘 어울리는 매우좋은 재료일 것이다.

가능한한 대문과 전정이 담은 낮게 터주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즐길수 있도록 해주고 중정과 후정의 담은 적당히 차단하되 경우에따라 벽천, 물계단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조망의 중심점으로 삼기도하고 담장에 곁들여 줄장미 능소화등을 올려 줌으로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을 피울수도 있게하고 적당히 가려주는 교목과 담쟁이등을 심어줄 수도 있다.

⑤ 그늘시렁, 의자 기타구조물  
그늘시렁이나 정원의 구조물들은 주택과 연계될수도 있고 독립될수도 있다. 구조물이 주택과 접해서 세워지면 거닐거나 옥외의 식사, 옥외모임등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주택에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구조물은 보다 환상적 이어서 형태와 배치 측면에서 점경물적 요소로 다루어 질수 있으며 연못이나 숲을 배경으로 햇빛이 선명하게 비치는곳에 구조물을 둠으로서 그 일대의 경치를 강조해 주기도 한다.

그늘시렁을 비롯한 정원의 구조물로서는 트렐리스(터널처럼 만들어서 양쪽으로 식물을 올려 지붕에서 늘어지고 뒤엎키게 만들은 시설)와 정자등을 들수 있고 돌, 목재, 콘크리트, 철재 등으로 만들은 의자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목재로 만든것이 촉감이 좋아 대체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적절한 방부처리를 가해 줌으로서 사용연한을 늘릴수 있다.

그외 정원구조물을 들수 있고 넓은 정원에서는 가든 파티에 사용되는 탁자 바베큐 플레이스등도 들수가 있을 것이고 조명시설 또한 중요한 정원의 구성 요소이다.

⑥ 물 : 물은 그 놓여진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모양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즉 연못에 고여 있을때의 정숙함 시냇물같이 흘러 갈때와 여름 폭포수에서 느낄수 있는 시원함 변화있는 분수에서 힘차게 솟아나는 물줄기를 보고 느낄수 있는 생동감등은 모두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정원의 요소들이다.

정원의 맑고 깨끗한 물은 우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정서에 풍요로움을 줄수 있으나 웅덩이에 고여 썩은물은 우리들 주변을 매우 불결하고 불쾌하게 한다. 물론 한곳에 계속 고여 있으면 불결해 지고 계속 이동하고 움직여야만 되살아난다. 일정한 이상 크기의

연못의 물은 사람이 일부러 더럽히지 않는한 스스로 정화되어 물고기도 살며 연꽃도 피운다. 물의 특성은 연출되는 각각의 상황 만큼이나 중요한데 그것이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이거나 장식적이거나 아주 단순하거나 간에 그 정원의 부지와 조화 되어야 한다. 물의 설계에서 축척과 비례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서 너무크면 물의 취급이 정원을 기형으로 만들수도 있고 너무 적으면 사용한 가치가 적을 것이다. 연못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질수 있고 녹지를 한정시키는데 일조하면서 정원에서 독립된 요소가 된다. 정형적 연못의 모서리는 뚜렷하며 그 상세는 건축적이다. 연못은 지표면 보다 약간 올려지거나 또는 같은 높이로 설치될수 있으며 깊거나 얇게 혹은 어둡게 만들수도 있고 투명한 반사를 위해서는 어두운 바닥 표면이 미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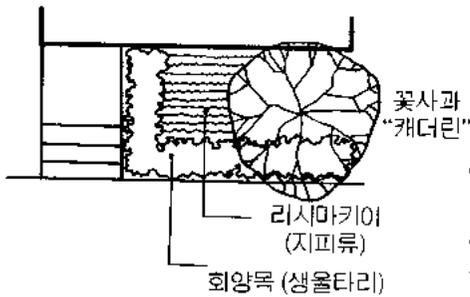
정형식 연못의 구성재료는 일반적으로 작은 화강석, 자연석, 벽돌, 타일등을 사용하지만 설계시 고려할 점으로서는 물이 고여 있을때와 물을 빼고 바닥이 노출되어 있을때를 감안하여야 한다.

⑦庭園의 植物과 配植 요령  
정원에서의 식물 도입은 밭짓는데 쌀이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사찰푸른 상록의 정원을 즐긴다는 것을 불가능 하며 오히려 사계절이 뚜렷하여 새봄의 움트는 것과 꽃피고 성장하는 여름의 풍성함. 가을의 단풍 겨울나무가지에 쌓이는 눈, 이러한 것들은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북부지방이 아니고서는 맛보기 힘든 하나의 낭만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樹목에 따라서는 양지에 잘자라는것, 반음지에 잘자라는것, 음지에도 자랄수 있는것, 건조에 강한것, 약한것, 습기에 강한것 약한것, 천박지에 잘자라는것과 잘 가꾸고 비료를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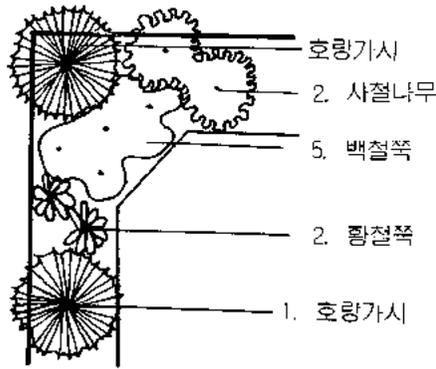
주어야 꽃이 예쁘게 피는것. 열매를 잘 맺는것. 병충해에 강한것, 약한것, 공해에 강한것, 약한것. 그들이 두껍게 드리워지는것과 그늘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것. 교목류, 관목류, 상록수, 낙엽수, 침엽수, 활엽수등 그 분리 방법이다. 용도에따라 쓰임새가 너무 많고 상이하기에 모두가 열거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고 한정된 지면에 정원의 부분에 따른 樹木의 配植에 대한 사례를 환경과 조경사가 발행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인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a. 전정식재 : 전정부근의 아주단순한 처리로서 남부지방에서는 가장자리의 회양목대신 팽팽나무나 호랑가시류로 이용가능하다. 지피류는 리시마키아 대신 빈카(Vinca Minor)를 사용함도 좋다. 꽃사과는 봄에 흰꽃이 진후 황색열매가 달리는 '캐더린'을 사용했는데 다름풀종, 예컨대 '얼레이' '호파' 등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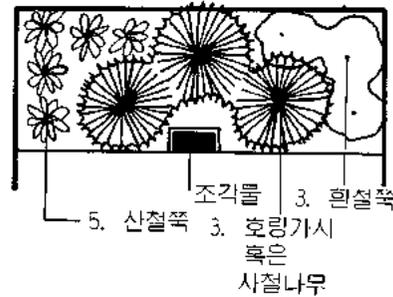


b. 건물 모서리 식재 : 주택 모서리 부분을 연중효과있게 처리하기 위한 배식의 한 예이다.

호랑가시·사철나무는 상록으로 연중 운채나며 특징적인 잎모양을 가지고 열매도 감상할 수 있다. ●매가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 호랑가시는 임수를 심는다. 호랑가시 대신 등청목을 백해도 된다. 백철쭉 황철쭉은 개화기가 다르고 밝은 색이 상록잎과 잘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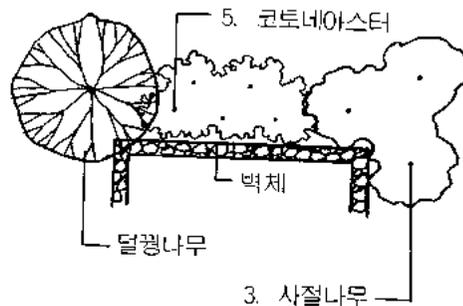


c. 정원 조각물 주변 : 정원의 조각물 배경으로 늘 운채나는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주목도 가능)를 심고 키 낮고 잎이 잔잔한 관목으로서 철쭉 흰색과 분홍색을 조화시킨 예이다.



d. 낮은 정원 담장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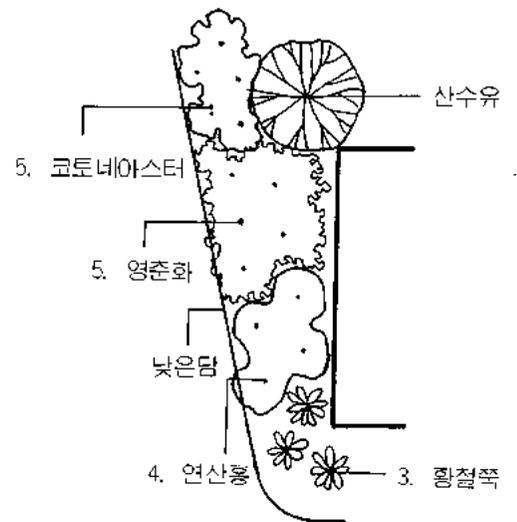
정원의 중정이나 기타 장소의 낮은 담 아래의 배식 예로서 한 그루의 큰 털팽나무는 5월에 흰꽃을 피우고 3월에 팽채나는 빨간 열매가 마치 꽃처럼 달리며 지피식물로서 역시 빨간 열매가 달리는 코트네아스터 (Cotoneaster



Thorizontalis) 를 심고 반대편 담 모서리에 상록 사철나무를 심어 연중 효과를 볼 뿐 아니라 상록 잎과 흰꽃 열매들의 배식에 유의한다.

e. 석조건물

돌로 된 집에 이른 봄 황색 산수유와 영춘화 상록의 코토네아스터로 대비시킨 것인데 코토네아스터 대신 키 낮은 산죽을 지피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산수유, 영춘화가 진 다음에 이어서 붉은 영산홍이 피고 그 다음 황철쭉이 꽃피게 된다.



#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된 주요내용 해설(I)

Report/Commentary on the Revised Contents of Architecture Enforcement Regulations by Kang, Kil-Boo

姜吉夫  
건설부 법무담당관



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 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한편 건축법개정 며칠전인 1986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 1202호로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이 1987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 422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건축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I. 총칙

### 1.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에 대한 성능인정제

실시 (제 2 조제 1 항 제 8 호, 9 호)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각각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만 적합하면 되던 것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조정하였다. 이는 전문기관인 국립건설시험소로 하여금 성능인정제를 실시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 2. 건축법적용대상 지역의 확대

(제 3 조제 1 항, 2 항)  
건축법중 제 3 장 내지 제 5 장(도로 및 건축선,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역과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인구 500인 이하의 섬은 제외)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공업용지구도 이의 적용을 받도록 그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이와함께 이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도록 하였다.

3. 신고만으로 건축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건축대상 규모 및 용도변경의 범위설정 (제 5 조의 2, 시행규칙 제 4 조제 5 항)  
농어촌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공사비의 절감을 위하여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그 바다면적 60㎡이하의 주택과 100㎡이하의 축사 및 창고는 건축허가대신 신고만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건축법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변경의 경우에 건축허가대신 신고만하게 하였다.

- ① 의료시설인 병원(병원·종합병원·치과 또는 한방병원)과 격리병원(전염병원·정신병원·요양소·마약진료소 등)을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집골원·조산원·안마시술소로의 용도변경
- ② 임시계 학원등 대규모시설강습소를 바다면적 500㎡ 미만인 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예능계강습소·기술계강습소(사부관리 분야에 한한다)로 용도변경
- ③ 대규모 체육관인 관람석 바다면적 1천㎡ 미만의 체육관 및 운동장과 그 부수 건축물인 운동시설을, 바다면적 500㎡ 미만의 정구장·탁구장·펜스클럽·골프연습장 등 소규모 체육관으로 용도변경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등 공공업무시설과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등

일반업무시설을, 바닥면적 300㎡ 미만인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의 근린생활시설인 소규모 사무소로 용도변경  
 ⑤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공판장등)상점등의 판매시설을, 500㎡ 미만인 슈퍼마켓등 소규모 점포로 용도변경  
 ⑥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특수목욕장·유기장등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⑦공장을, 200㎡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4.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승인확대(제7조) 시장또는 군수가 건축허가시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율 받도록 한 건축물중 종전의 31층이상, 21층이상 건축물로 바꾸어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5. 건축사보의 공사감리보조 건축대상확대(제8조 제2항)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한 건축물의 규모를,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5천㎡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상주감리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또한 연속된 5개층이상이던 것을, 연속된 5개층이상의 건축으로서 바닥면적 3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바꾸어 종전에 면적에 관계없이 층수만을 기준하던 것을, 5개층이상이라도 3천㎡ 이상인 때라야 상주감리를 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6. 대형건축물의 준공후 유지관리상태의 보고 의무화(제11조의 2) 대형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면적 5천㎡ 이상으로서 5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이상인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승강기, 냉난방등 건축설비와 방화구획·방화설비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상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30일 이내에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7. 도시설계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제13조의 2) 도시설계구역내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용지의 제공등이 다른지역보다 추가적으로 부담되어 건축주로서는 재산권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당해 도시설계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지와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용지로 제공한 때에는 그 제공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고,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로 제공한 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보너스제도를 채택하여 적용상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재산권침해로 인한 주민반발을 완화하고 도시설계의 정착유도를 꾀하도록 하였다.

## II.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1. 대규모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화(제15조)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연면적 7천㎡ 이상 또는 6층이상(단 서울시는 1만㎡ 또는 11층이상)의 건축물은 대상용도 및 설치규모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내진설계(耐震設計)대상(제16조)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 21층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단, 공동주택, 공장제외), 국가안보상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국가적 문화 유산의 가치가 있는 박물관등이나, 건설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이 정하는 지진구역2(지진구역1: 광주, 화천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북고창군·구례·광양을 제외한 전남, 경북울진군, 제주도 지진구역2: 지진구역1을

제외한 지역)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1천㎡ 이상의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 통신활영시설등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 5천㎡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 1만㎡ 이상 판매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였다. 지진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재해중에서 가장 극적인 지각변동과 인명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무서운 현상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건축구조물의 설계및 시공에서 내진설계를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그 불규칙성과 비록 작은 규모의 지진일지라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기술자들과 내진설계능력향상을 통하여 국제시장(세계60여개국)에서 내진설계요구)에서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988년1월6일(건설부령제432호 전면개정)제14조에 의하여 지진하중의 산정을 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진하중은 지역, 건축물의 중요도, 건축물의 구조, 지반종류등에 따라 지진하중을 산정하고, 지진하중에 안전하게 건축물구조설계를 하도록 하였다.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 가정적해석을 적용하여 내진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밑면전단력·층지진하중·층전단력·수평비틀림모멘트·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24조 제2항 5호)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종전에 ① 50세대이상 중앙집중난방식인 공동주택 ② 3천㎡ 이상 업무시설 ③ 2천㎡ 이상 숙박시설 또는 병원 ④ 500㎡ 이상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연면적 3천㎡이상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판매시설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4.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및 K·S의무화대상의 조정(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을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법 제25조, 영 제25조) 이와같이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현재 건축자재 400여종 가운데 종전에 K·S 의무화품목 113종을 이번에 97종으로 조정하였다. 이것은 성능이 보편화된 기초소재품목이거나

K.S 표시명령품목 또는 관수품목인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등 17종의 기초소재는 이를 K.S 사용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철플렌지형밸브, 주철앵글형밸브 등의 유사품목은 이를 주철밸브로 통폐합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난방용 알루미늄방열기 등 4종의 품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97종으로 조정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별표13)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수도용 아연도강판
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6. 육내용 소형스위치류
7. 배선용 꺾음접속기
8. 도아클로우지
9.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10. 수도꼭지
11. 창동밸브
12. 복층유리
13. 보추정철
14. 배관용 탄소강관
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16. 난방용 주철 방열기
17. 난방용 강판 방열기
18.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19. 경질비닐전선관
20. 강제전선관
2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말뚝
2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씨말뚝
23. 도자기질타일
24.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
25. 600볼트 비닐절연전선
26.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 강편
27. 후로링보우드
28. 일반용 경질염화비닐판
29. 경질염화비닐골판
30. 비닐석면타일
31.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32. 합성수지에밀전폐인트(외부용)
33. 광명단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35. 조합페인트 복재프라이어 백색 및 담색
36. 합성수지에밀전폐인트(내부용)
37. 크롬산아연방 청페인트

38. 아연말프라이머
39. 부명락카
40. 우드실라
41. 광명단조롬산아 연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바니쉬
43. 스파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7. 소켓
48.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5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53. 스위치박스
54. 암면단열제제품
55. 유리면보온재
56. 가름연소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프리쉬플레이트
64. 노오발멘트(경질비닐전선관용)
6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66. 카바나이프스위치박스
67. 육외용 비닐절연전선
68.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온밸브
69. 수도용 계수밸브
70. 주철밸브
71. 주강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렌지형 글로우브밸브
72. 수강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렌지형 바깥나사케이트밸브
73.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렌지형 글로우브밸브
74.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렌지형 바깥나사케이트밸브
75. 아이프행거

76.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망강
7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7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79. 나르에폭시수지도료
80.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81. 플러팅밸브
8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83. 가교화폴리에틸렌관
8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6. 하이탱크용 사이폰
87. 로우탱크용 불림
88. 로우탱크용 사이폰
89. 시멘트벽돌(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0. 동 및 동합금의관이음쇠
91. 강판삽입용접플랜지
92. 위생도기
93. 플로어힌지
94. 난방용 알루미늄방열기
95. 접합유리
96. 아우트레트박스
97.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프레식관이음쇠

2.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재료

1. 보통벽돌(소성벽돌)
2. 시멘트벽돌
3. 시멘트블록
4. 시멘트기와
5. 가압시멘트관기와

**변경**

□ 서울지부

- ▲ 배희수 · 김영기 · 조광연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건축/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782-1273, 1274
- ▲ 임양섭 / 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  
서초구 서초동 1308-5/567-2451
- ▲ 이경남 / 건축사사무소 이이건축/  
강남구 반포동 547-6/591-7256
- ▲ 김영호 / 건축사사무소 덕진/강릉구  
방이동 110
- ▲ 김걸만 / 전호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19-5/414-2144
- ▲ 이귀영 / 우리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782-4008
- ▲ 오기수 · 박창호 · 이재규 · 이경해/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스페이스5/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3/785-0928
- ▲ 송민구 / 건축사사무소 송건축/강남구  
논현동 241-3/542-4644
- ▲ 한능순 / 한은건축사사무소/구로구  
독산동 288-1/864-7305
- ▲ 김광호 / (주)우양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논현동 78-7/548-8849
- ▲ 정재운 / 건축사사무소 모던그룹/  
서초구 서초동 1535-12/586-7132
- ▲ 이동훈 / 대경건축사사무소/송파구  
문정동 244-11/407-4940
- ▲ 인익식 / 건축사사무소 장인/강남구  
삼성동 112-21/562-4698
- ▲ 정종섭 / 건축사사무소 비전/송파구  
송파동 47-9/484-7591
- ▲ 박호중 / 비전건축/송파구 송파동  
47-9/484-7591
- ▲ 김종욱 / 남곡건축사사무소/서초구  
서초동 1531-8/585-6680
- ▲ 한응용 / 한성종합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19-5/415-0303
- ▲ 김두호 · 박선홍 / 기전건축사사무소/  
강남구 신사동 573-2/543-5986
- ▲ 안기태 · 이충언 · 이수형 /  
(주)원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서초구  
서초동 1534-5/587-1456
- ▲ 홍문유 / 건축사사무소 세경건축/  
구로구 구로5동 437-1/868-0011
- ▲ 송영무 / 럭키(엔)/마포구 공덕동  
275/802-5255

- ▲ 서진철 / 건축사사무소 도다/강남구  
논현동 216-5/548-0914
- ▲ 이기범 · 이종해 · 이인용 /  
(주)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  
반포동 745/548-2231
- ▲ 한영수 / 한영수건축사사무소/송파구  
가락지구 444-13
- ▲ 김인환 / 건축사사무소 명정건축/  
송파구 석촌동 174-5/415-4924
- ▲ 박우철 / 동하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49-11/414-7194
- ▲ 허 남 /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  
역삼동 813-28/567-0159
- ▲ 이재희 / 신형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84-3/418-2032
- ▲ 황건 · 방송대  
건축사사무소 간/강남구 삼성동  
127-10/556-2520
- ▲ 서진달 / 건축사사무소 맥가/강남구  
청담동 50-3/540-1693
- ▲ 송욱호 / 건축사사무소 아일/송파구  
송파동 11-1/415-9214
- ▲ 김관현 / 전원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84-3/416-6171
- ▲ 이현상 / 시온건축사사무소/송파구  
방이동 110/422-4192
- ▲ 최중수 / 건축사사무소 회진한성건축/  
강동구 성내동 539-2/486-7475
- ▲ 신현직 / 건축사사무소 상아/서초구  
서초동 1603-67/586-9507
- ▲ 유지현 / 국원건축사사무소/중랑구  
중화동 195-2/491-3355
- ▲ 김성호 / 광덕건축사사무소/강남구  
삼성동 8-1/547-5382
- ▲ 장성진 / 건축사사무소 삼호/송파구  
가락동 444B/L-13/408-6710
- ▲ 최영집 / 건축사사무소 탑/강남구  
청담동 134-20/542-3721
- ▲ 김재규 / 건축사사무소 유전/서대문구  
연희동 163-1/324-3810
- ▲ 도희만 / 으뜸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19-8/415-2218
- ▲ 라병인, 이광조, 황덕규 /  
경서, 대일, 동아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서구 화곡동 998-6/602-0244,  
692-8385, 605-4928
- ▲ 이종상 / 이태이건축사사무소/강동구  
석촌동 52-1/415-1289

- ▲ 정병문, 김정행 · 강영 /  
건축사사무소 동도, 예향/송파구 송파동  
50-9/417-2161
- ▲ 김형석 / 피에이건축사사무소/강동구  
삼전동1-1/417-7217
- ▲ 정동욱 / 정동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142-5, 6/417-9003
- ▲ 허영관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중/  
서초구 서초동 1637-5/542-9301
- ▲ 이명춘 / 상건축사사무소/양천구  
신정동 973-35/697-7212
- ▲ 이일섭 / 건축사사무소 두남/강동구  
석촌동 290-34/417-7212
- ▲ 김관홍 / 서울, 삼미건축사사무소/  
강서구 신월5동 59-2/698-5252
- ▲ 김영경 / 건축사사무소 전영/강동구  
삼전동1-1/417-7218
- ▲ 이태휘 · 우상열 · 노병우 · 박호창 /  
우림종합건축사사무소/서초구 서초동  
1439-1/584-6172
- ▲ 조한용 / 태우건축사사무소/강동구  
석촌동 173-7/412-9358
- ▲ 강영순 · 강홍우 /  
청우, 대원, 한강, 성동종합건축사사무소  
/성동구 자양동 220-1491/447-6671
- ▲ 박공로 / 신지건축사사무소/서초구  
서초동 1485-3/581-0061
- ▲ 김유석 / 건축사사무소 선진/강남구  
반포동 742-5/540-6655
- ▲ 박진규 / 상진건축사사무소/송파구  
송파동 133/413-7681
- ▲ 고국원 / (주)건우사건축사사무소/  
종로구 무교동 25-1/777-4311
- ▲ 이주영 / 삼덕건축사사무소/달서구  
누류동 101-1/624-1636
- ▲ 최성덕 / 도심건축사사무소/달서구  
누류동 135-2/626-5758
- ▲ 최한군 / 화성건축사사무소/달서구  
누류동 135-2/626-4500
- ▲ 장원열 / 건축사사무소 한라/중구  
남성로 120/253-3331
- ▲ 이규용 · 최형석 /  
(주)동원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구 역삼동  
769-9/566-2007
- ▲ 김인배 / 벽산건축사사무소/서초구  
방배동 945-6/584-7700
- ▲ 광대안 / 세운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  
대림동 822-6/845-7822

- ▲ 김인배 / 건축사사무소 엘림 / 강남구 삼성동 169-15 / 567-4960
- ▲ 정재원 / 라이온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방배3동 481-5 / 587-1344
- ▲ 노병우 / 우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서초동 1434-1 / 586-1586

- 대구지부
- ▲ 이대일 /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대봉동 60-10 / 44-7764

- 광주지부
- ▲ 이준형 / 아세아건축사사무소 / 동구 계림동 476-2 / 365-0391
- ▲ 임영재 · 안민순 · 배택일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소, 원도, 한도 / 동구 계림동 475-3 / 527-1036
- 55-5100, 525-3926

- 경기지부
- ▲ 김진열 / 중앙건축사사무소 / 송탄시 지산동 767-1 / 4-2458
- ▲ 오성윤 / 오성윤건축사사무소 / 성남시

- 신흥동 5521 / 42-4588
- ▲ 엽태웅 / 경일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인계동21브럭 8로트 / 32-4709
- ▲ 김동명 / 현대건축사사무소 / 성남시 태평동 3386 / 44-6823

- 충남지부
- ▲ 김안길 / 삼우건축사사무소 / 대전시 서구 장대동 42-15 / 822-0950

- 충북지부
- ▲ 홍록표 / 동구건축사사무소 / 청주시 복문로 2가 116-154 / 3-5643
- ▲ 최호진 · 류대현 / 대호건축사사무소 / 청주시 수동 382-3 / 2-4273, 53-5055

- 전남지부
- ▲ 고재숙 / 고건축사사무소 / 여수시 오림동 369-4 / 64-3922

- 전북지부
- ▲ 유용순 / 동서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진동 2가 122-1 / 6-7208

- 결혼**
- 경기지부
- ▲ 정환철 / 자녀결혼 / 부천예식장 / 2·6
- 충남지부
- ▲ 전병근 / 여식결혼 / 대전로얄예식장 / 2·27

- 회갑**
- 충남지부
- ▲ 김영두 / 보천회갑 / 자택 / 2.28

- 별세**
- 경기지부
- ▲ 김기홍 / 부친별세 / 자택 / 2.1

© 제 6 공화국 출판물 경축합니다.

국민에게 웃음을

민족에게 번영을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69-1718  
276-0123-4

新入會員・3月。



金正郁  
1953. 12. 22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음성건축사사무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40-1  
72. 1353



李鎭熙  
1954. 12. 30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세광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619의 12  
84-1400



金柄戸  
1934. 8. 10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도시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고사동 2가 1-9  
5-1955



趙斗錫  
1956. 11. 9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극동건축사사무소  
전북 이리시 남중동 1가 82-68  
51-5820



辛泳龍  
1948. 9. 30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한국조형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92-7  
554-4680



千宗鎬  
1957. 1. 28  
수원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고려건축사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33-8  
54-2021, 2022



李靖熙  
1949. 12. 20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2-31  
546-0357



姜鋼哲  
1958. 6. 30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신동아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6 동509-16  
47-9331



金同述  
1952. 6. 8  
군산실업전문학교  
건축사무소 예장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의 25  
332-5351



李鍾注  
1959. 6. 4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청송·성창종합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구 주안 6동1032-9  
425-9848



李吉洙  
1953. 12. 4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길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978-1  
697-3689



金淸德  
1954. 10. 8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반중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14  
584-5238



任弘淳  
1952. 11. 2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중합건축사사무소 이공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1-29  
587-2020



姜性求  
1952. 1. 7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延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69-16  
323-0942



洪性天  
1955. 1. 5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반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444-14  
587-5340



金 玲  
1952. 11. 16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一信  
부산시 동구 초량동1157-1  
462-4711~3



車基轍  
1954. 7. 8  
동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65-9  
42-3656



朴相允  
1953. 9. 25  
성지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가야건축사사무소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1186-28  
336-5454



文成植  
1956. 11. 25  
조선대학교병설 고등전문학교  
문성식건축사사무소  
광주시 동구 동명동265-5  
22-8575



皇甫滄皓  
1957. 3. 2  
건축사사무소 황보건축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339-4  
491-3500



白世杓  
1922. 5. 20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자선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79-32  
384-5587



洪承杓  
1955. 8. 11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534-2  
585-1185



柳翼善  
1952. 3. 20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천일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2가 116-168  
52-9750



全瑛植  
1956. 1. 15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68  
546-3720



高學林  
1957. 4. 12  
문경종합고등학교 건축과  
신진건축사사무소  
경북 점촌시 점촌동280-3  
52-1412



洪淳柏  
1952. 5. 23.  
경기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우안건축사사무소  
충남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92-6  
62-3388



金裕志  
1950. 2. 22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지건축사사무소  
광주시 동구 급남로3가 3-5  
27-3515



崔東旭  
1943. 1. 22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조형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281  
7-9701

新入會員 · 3月 ·



任龍炳  
1959. 2. 5  
조선대방설 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주)시공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7-4  
232-4981



印致東  
1936. 1. 1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도무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451-51  
583-8553



金成根  
1957. 5. 12  
서울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아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508-191  
432-0251



金容哲  
1940. 1. 7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3-13  
783-5301



林憲允  
1955. 5. 17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주)제철엔지니어링  
경북 포항시 괴동동568  
72-5651



朴仁緒  
1955. 1.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흥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795-23  
599-6931



朴洙烈  
1953. 7. 9  
경북공업전문대학 건축과  
흥한건축사사무소  
경북 포항시 대잠동4브릭 1롯데  
73-4562



吳在龍  
1948. 10. 23  
경기공업전문대학 건축공학과  
신도시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번동446-14  
980-0234



方勝文  
1953. 7. 1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内外 건축사사무소  
강원도 속초시 교동690-12  
33-8163



朴璣夏  
1926. 5. 1  
경기공업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원, 청우, 한강, 성동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220의49  
446-7790



崔政均  
1937. 4. 1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흥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114-2  
416-5492



洪起伯  
1954. 9. 2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동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69-9  
566-2007



張泰潤  
1955. 2. 2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협화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330-16  
568-9004



鄭成吉  
1952. 1. 13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건축  
가람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06-8  
547-9069

# 온 국민의 정성을!

방혜원

서울여대 영문과

66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문화를 아낌없이 소개해야 한다. 어설피게 모방한 서양화나 일본문화보다는 반만년 전통을 가진 송고한 우리 문화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

99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0회 아시아경기 대회는 우리 민족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유감없이 표출한 쾌거였다. 더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어떠한 일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었기에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 의미는 더욱 값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다가올 세계제전인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아시아경기 대회에서의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찾아내어 보완하고 다듬어 보다 훌륭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겠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나는 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말도 우리를 일컫듯이 우리 민족은 禮를 사랑해왔다. 하지만 지나칠 때에는 非禮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우리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똑같이 친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친절은 보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랑하는 마음, 더불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

둘째로 질서와 청결의 문제이다. 우리의 선인들은 분명히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고 또 그들은 누구보다도 문화민족이었다는 말은 사실이나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문화민족인가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지 않다.

교통사고율이 높고 길거리에 너저분한 검과 풍초 등 시정하여야 할 문제가

적지않은 것은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우린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질서와 청결의 국민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은 국민으로서 질서와 청결을 지키는 민족이어야 한다.

세계로 올림픽행사 기간동안 우리의 이모저모를 올바르게 심어주는 문제이다. 창피한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정을 덜받고 있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대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문화를 아낌없이 소개해야 한다. 어설피게 모방한 서양화나 일본문화보다는 반만년 전통을 가진 송고한 우리문화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올림픽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 생각된다.

전국민이 성공적 완수를 바라고 있는 올림픽은 분명 우리민족의 사명이요, 의무인 것은 지명한 사실이다. 이번 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주인으로 그리고 멋진 관중으로, 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즉 수많은 작은 별들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말이다.

서로가 한몸임을 알고 땀흘릴때 전고한 결실을 거두는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170여일 남은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속의 한국 부리워하는 한국인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 제 2회 理事會 개최

1988년도 제1회 臨時總會, 3月 29日 開催키로



2월 26일 安箕泰 회장 주재로 부회장, 이사,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회순에 따라 前會議錄 승인, 主要業務 報告가 있었으며, 업무 보고 사항과 관련, 협회의 규모도 커지고 특히 年金管理의 새 업무도 늘었으므로 내년부터는 諮問稅務士 대신 會計士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尹原源 監事의 意見 제시가 있었다.

부의사항으로 들어가서는, 3월 임시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定款改正에 관해서는 法制委員會에서 연구·추진하도록 하되 시기적으로 촉박하므로 姜基世, 朴榮翼, 禹南龍, 李世勳 이사와 李宗燁 법제위원장 李文雨 법제부위원장으로 小委員會를 구성, 다루도록 하고 각 市道支部의 의견을 수렴하여 改定(案)을 작성, 3월 이사회와 지부장회의에 부의토록하기로 협의하였다.

그의 부의안건중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88년도 제1회 臨時總會 開催日 결정의 건: 1988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본협회 상당에서 개최

● 忠清南道支部(지부장 康祐植)로부터 소속회원들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승인요청한 분소관할구역 변경 요청은 원안대로 승인. (아래도표 참조)

● 停年退職 대상 직원 연장 근무 승인의 건: 제1회 理事會(88. 1. 21)에서 제2회 理事會 안건으로 넘겨 다루기로 했던 本件에 대하여 (가)項: 강원도지부 사무국장의 정년 연장은 부결 (나)項: 진라남도지부 사무국장의 정년연장은 인사규정 부칙의 적용을 받아 1989. 5. 28까지 기피 자동 연장되어 있으므로 금번 부의안건에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함

● 仁川支部 事務所長 任用 승인의 건: 회장에게 위임

● 88優秀建築資材展示會 개최 승인의 건: ACA-3 서울대회의 일환으로 우수건축자재 전시회를 개최하여 國產 건축자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업체에게 우수자재의 생산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質的向上을 꾀하고자 하는 바 本件 원안대로 승인

● 개최기간: 88. 11. 9(수)~11. 20(일)

● 개회장소: 여의도 기계공업 진흥회 전시관(예정)

● 예산: 비예산사업

● 추진: 건축위원회 시공제로 분과위원회(위원장: 한종연) 우수건축자재전시회 추진위원회(예산 및 세부추진사항은 출품업체 대표들이 수행하고 본협회에서는 행정업무 지원)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승인의 건: 세계각국으로부터의 國家間 서비스交易 自由化에 대한 要請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되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 건의(案) 승인의 건: 法制委員會에 위임키로 하고 임원별도 내용을 좀 더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 建設技術管理施設行令 제정에 따른 본협화 의견 및 대책결정의 건: 정부당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법제위원회에서 작성한 案을 의견으로 제출키로 하며 법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서 협의된 내용 또는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정부당국과 협의 추진하되 협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확인을 받아 다시 대책을 세우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

● 제 3차 亞細亞建築士大會 推進委員會 운영규칙(안) 승인의 건: 본협회 주관하에 오는 8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되어 있는 제 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위하여 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의 기준이 될 운영규칙을 제정

코자 하는 바 일부 문귀를 수정후 원안대로 승인

● 집기비품 폐기처분 승인의 건: 감사가 각사시 검토·판단토록 監事에게 위임

● 서울지부 분소설치 및 명칭·관할구역 변경 승인의 건: 기존 분소중 3개 분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특별시의 區가 17區에서 22區로 分區됨에 따라 5개 분소에 대한 도서신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14개 분소를 신설토록 서울特別市支部(지부장 俞景哲)로 부터 승인 요청이 있어 이를 심의한 결과, 앞으로 廳書中告業務는 分所에서 담당하지 않고 3個所이내의 別館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기한부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

※ 협의사항

● 일본 건축자재전시회 참가(출품)에 관한 협의: 일본건축사회연합회로부터 88년 4월 7일~5월 31일까지 東京 가스·銀座포켓프르크 주최로 東京에서 열리는 건축설계작품의 출품요청이 있어 출품하고자 하는바 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고 결과는 理事會에 보고토록 함

● 88建築士研修 實施에 관한 협의: ACA-3 서울대회 개최시 會員參加를 유도하고 건축법시행규칙 개정(88. 7. 1부터 시행)에 따른 耐震設計에 대한 研修를 실시하며 社會淨化委員會의 상반기중 건축사 정신교육실시 요청 등과 관련 88년도 建築士研修 實施方案을 협의코자 하는바 會長에게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 각 위원회 총괄 위촉

본협회는 1월 21일 제1회 理事會에서 會長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2월중에 88년도 각 위원회 委員과 顧問辯護士·諮問稅務士

를 委囑하였다.

위촉된 각 위원과 顧問변호사·자문세무사는 別面에 소개한 바와 같다. (p.89참조)

忠南支部 分所管轄地域 및 변경내용

| 분소명  | 현 관할구역              | 변경 관할구역                  | 비 고                         |
|------|---------------------|--------------------------|-----------------------------|
| 대전분소 | 대전시 보령군<br>청양군, 서천군 | 대전시 보령군, 청양군             | 서천군의 관할 분소를 대전분소에서 부여분소로 변경 |
| 부여분소 | 공주시 공주군<br>부여군, 논산군 |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br>논산군, 서천군 |                             |

## 監査実施

'88년도 제1회 臨時總會에 대비하여 2월1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부와 각 시도지부에 대한 업무전반의 감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사무 분야는 尹鳳源 監事가, 경리 사무분야는 柳根洵 監事が 각각 담당한 이번 監査의 각 시도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기 간         | 감사대상    | 기 간         | 감사대상    |
|-------------|---------|-------------|---------|
| 2. 1~2. 2   | 제주도지부   | 2. 23~2. 24 | 강원도지부   |
| 2. 3        | 부산직할시지부 | 3. 2~3. 3   | 광주직할시지부 |
| 2. 4~2. 5   | 경상남도지부  | 3. 3~3. 4   | 전라남도지부  |
| 2. 8~2. 9   | 대구직할시지부 | 3. 4~3. 5   | 전라북도지부  |
| 2. 9~2. 10  | 경상북도지부  | 3. 7        | 경기도지부   |
| 2. 11~2. 12 | 충청남도지부  | 3. 8~3. 9   | 서울특별시지부 |
| 2. 15~2. 16 | 충청북도지부  | 3. 14~3. 19 | 본 부     |
| 2. 22~2. 23 | 인천직할시지부 |             |         |



## 일본 銀座포켓트파크記念展에 出品

東京 가스·銀座포켓트파크 제 35회 오픈 5주년 記念展의 일부로 개최되는 〈韓國의 暮らし展〉에 다음과 같이 作品을 출품하기로 하였다.

### 출품작품

| 부 문                | 건축사          | 사무소명  | 년도  | 규모        | 모형수 | 패널수 |
|--------------------|--------------|-------|-----|-----------|-----|-----|
| 한 옥                | 장기인          | 삼성건축  | '78 | 50칸 (단층)  |     | 2   |
|                    | 김수근          | 공간건축  | '85 | 82평 (2층)  |     | 2   |
|                    | 김중업          | 김중업건축 | '80 | 134평 (2층) |     | 2   |
| 현대건축               | 강석원          | 구름가건축 | '86 | 75평 (2층)  | 1   | 2   |
|                    | 김중성          | 서울건축  | '87 |           |     | 6   |
| 신도시계획 (울지로개발)      | 구윤희          | 화신건축  | '87 |           | 1   | 4   |
|                    | 최병천          | 친일건축  | '87 |           |     |     |
|                    | 김중업          | 김중업건축 | '87 |           |     |     |
| 올림픽시설 건축물 (올림픽플렉스) | 서울시수관계건축사사무소 |       |     |           | 1   | 11  |

## 建築3단체 조찬회 개최



3월17일 시내 롯데호텔에서 정례적인 건축 3 단체 조찬회를 개최하고 建設技術管理法와 관련한 施行令制定, 제 3 차 아시아지역

建築士大會 開催, 우루과이라운드 對策 등 建築界가 공동으로 협조해야 할 主要懸案을 협의하였다.

## 精算委員會 構成, 精算

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各市道支部 獨立豫算制와 관련, 本部 및 支部가 소유하고 있는 有動資産을 정산하기 위해 제22회 定期總會(87. 11. 27)에서 精

算委員會를 구성기로 한 바에 따라 支部長會議 등을 통하여 精算委員會를 구성(위원장 柳根洵)하고 직원퇴직급여 총당금과 지부 사무실 보증금등을 정산하였다.

## '88년도 建築士研修 실시

본협회는 88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및 내진설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 대전: 5월 30일
- 대구: 6월 2일
- 부산: 6월 8일
- 광주: 6월 16일
- 계수: 6월 13일

### ※교육일정

- 서울: 5월 16일, 18일, 25일, 26일

### ※교육내용

| 교육내용                   | 시간 | 강사           |       | 비고 |
|------------------------|----|--------------|-------|----|
|                        |    | 소속           | 성명    |    |
| 건축행정 및 정부시책            | 1  | 건설부건축과       | 이원원과장 |    |
| 의식개혁                   | 2  | 사회청화위원회      |       |    |
| 내진구조의 해석방법             | 1  | 한국과학기술원      | 이동근박사 |    |
| 내진구조 계산예시              | 1  | 한국과학기술원      | 최창근박사 |    |
| 내진구조상세                 | 1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정화선박사 |    |
| 내진구조 계산 및 설계도 작성시 유의사항 | 1  | 동국대학교        | 김규석교수 |    |
| 계                      | 7  |              |       |    |

## 建築士誌 発展方案 協議

본협회 編纂・弘報委員會 (위원장: 朴榮翼) 은 3월 5일 편찬분야의 新・監委員 選任회를 개최

하고 建築士誌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會員誌 「建築士」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신·구위원 選任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간의 전임위원 노고에 감사드린다.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안장원 전임위원장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 안장원

지난 몇년간 건축사지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힘써 왔지만 이 시점에서 볼 때 아쉬움이 크다.

첫째, 북 디자인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였으나 미흡한 채 박영익 위원장에게 인계하게 되었다.

둘째, 내용면에서는 고대, 근대, 현대건축을 다양하게 다루는 가운데 특히 회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현대 건축에 편집방향의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한 분야에 편중되어 다루어야 할 부분을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서양건축의 흐름에 관한 소개라든가 회원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취미기사라든가 인테리어등 분야에 관한 광범한 정보 기사가 없었다.

### 김 린

건축사지의 편찬위원을 오래 하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건축사지의 발전을 위해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몇가지가 있다.

우선 제작과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편찬위원은 기획만 해주고 편집업무는 외주를 주어야 발전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협회제도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적으로 출판사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들수 있는 것은 건축사

지 제호의 글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고는 현상 공모 당시 비전문가의 작품으로 수준작이 없어 할 수 없이 당선작으로 한 글자체라고 알고 있다.

즉,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로고라고 보기에는 확신이 서지않는 작품인것 같다. 올해는 꼭 전문가의 훌륭한 글자체로 바꾸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지가 여타 건축 관련 상업지에 상당히 쫓기고 있다고 본다. 건축사의 모임인 전문 단체에서 발간하는 책이 상업위주의 비전문가들의 책에 뒤진다는 것은 문제이다.

### 위원장

금년에는 매일 좌담기사를 게재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 김정중

다루어야 할 토착이 생겼을 때 건축사만이 아닌 각계각층 인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외무적으로 정례적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면 무리가 많을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훌륭한 의견이 있었지만 건축사지의 내용에 관해 언급한다면, 상당히 허전하다. 인접국 어느 나라의 건축사지를 보았는데 그것에 비교한다면 1/10도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그 건축사지는 편찬위원을 각 분야별로 증원하여 총 20여명으로 늘었다. 캐드(CAD)에 관해서는 캐드의 전문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인테리어의 전문가, 현대건축에 관해서는 현대건축의 전문가들만이, 말하자면 각각 분야별로 전공한 전문가들이 편찬회의를 한다. 비 전문가는 자기 전공 외의 분야에 대하



여서는 언급도 하지 말라는 식의 전문화 세도이다.

우리는 태평양 지역의 만만치 않은 실력 국가라 하지만 부끄러운 점이 있다.

### 김 린

더 좋은 책이 되려면 광고를 상업지 수준으로 게재할 수 있고 광고료를 제작비로 쓸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각계 각층으로 문호를 개방하였으면 좋을것 같다.

현재는 본협회 회원 위주이다.

다시말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예산제도에서 떠나서 나와 독립예산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 안장원

건축 관련 상업지가 여러 종류 나오고 있지만 우리 협회지가 건축사를 위한 회원지가 되어야 할지, 건축 관련 분야를 총망라하는 건축지가 되어야 할지, 방향이 확고히 설정되어야 한다.

### 변 용

편찬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건의하는 제안이 어디까지 실제 업무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다. 위원들의 의견이 통일되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도 또 확실하게 반영되어야 할텐데 의견만 있고 추진력도 없고 결과도 없으면 책임도 없고 성격도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좋은 의견 아무리 위원들이 내어 놓아도(예산없어 못한다)고 끝나버리면 차라리 시간낭비요 모여 앉아 얘기할 필요도 없다.

또한 편집 실무진의 수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건축사지의 질적인 향상은 힘들다. 올해는(건축사)라는 제호의 로고만 제작해도 큰 일

하는 것이라고 본다.

### 안장원

어려움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쉽게 풀어나갈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 김 린

북 디자인이라든가 로고 제작이라든가 우리 힘으로 안되는 분야의 것은 과감하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 안장원

회원작품을 소개하는데 있어서는 설계의도가 무엇인지, 건축적 특성이 무엇인지, 실제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세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그저 건물사진만 소개하는데 그친다면 비 전문가들이 앙리를 목적으로 만드는 상업지와 다를 바 없다.

### 김 린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과정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계획 단계의 고민도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 변 용

그런 원고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편찬위원도 할 수 없고 편집 실무자들도 못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되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예를들어 허가 발매 도서신고 하는 것과 같이 준공 별 매도圖書로서 신고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면 그러한 竣工申告圖書를 활용할 경우 상당히 도움될 것 같다.

### 김 린

원고료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어느 상업 건축지에서는 오백자 원고지 1장당 5천원을 주고 있는데 어떤 인사에게 원고부탁을 했다

니 그 잡지에 원고를 주기 때문에 건축사에는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건축사지의 원고료가 원등 했으면 의도대로 섭외가 성공하여 좋은 원고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건축사지의 원고료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잡지사들의 원고료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축사지 원고료가 박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조성렬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다.

단지 위원장께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 반영 되도록 밀고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위원들께서 교체되었다고 해서 대폭적인 수술을 가해도 좋을지 잘 모르겠다.

모두의 공통의견이지만, 북 디자인의 측면에서 건축사지를 본다면 뱃살은 벗겨야겠고, 건축사지의 성격이 정립되어야 하겠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제작에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제작문제가 그 파장부터 정리되면 작년에는 잘 되고 올해는 잘 안되는 등의 들쭉날쭉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려면 첫째로 위원회에서 포맷 디자인을 확정된 후 1년 혹은 3년으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고정 디자인을 해야 하겠고, 둘째로 인쇄소는 기획팀이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여야 하겠으며, 이렇게하여 시각적인 면에서 성격이 정리되면 다음 단

계로 필자를 개방하여 내용면에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로고와 포맷 디자인을 바꿀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여러분의 좋은 의견 감사한다. 그러나 모두가 예산상의 뒷받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급년에는 로고체 한가지만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의 여러가지 문제는 차기 위원회에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남기고자 한다.

윤석우

표지에 대한 불만을 느낀다. 현대적인 감각도 없고 독특한 독자성도 없다.

조성렬선생님께서 편찬위원이 되셨으므로 기대를 가지겠다.

안장원

위원들께서 크게 애를 써 주셔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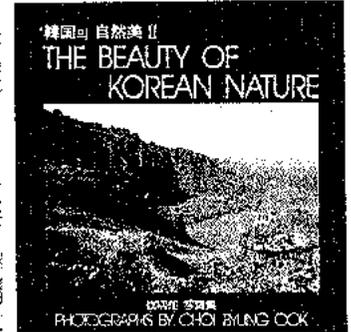
예산문제로 안되는 것은 위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위원장

진입위원 여러분의 고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

로고는 금년에 꼭 고칠 것을 약속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한가지씩 풀어나가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

회원의 矜持를 높이는 著作活動



▲崔柄郁회원의 「韓國의 자연美」II. <張起仁회원의 「木造」>

88년 새 해 들어 本協會 회원의 활발한 研究·著作活動으로 전체회원의 연구의욕을 크게 고무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建築士의 矜持를 높여주고 있다.

建築界의 元老로 추앙받는 張起仁 회원(본협회 2대회장역임)이 普成文化社를 통해 한국건축대계 시리즈(5)로 3백90여면 분량에 이르는 역작(木造)을 펴냈는가 하면 전문 사진작가로 공인되고 있는 崔柄郁 회원(강원도 지부·공간건축사사무소)은 작년의 I 집에 이어 (韓國의 自然美II)를 (도서출판 밀알)을 통하여 소개 하였다.

또한 朴時翼 회원(서울지부·日新종합건축사사무소)은 87년 高大大學院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한 논문(風水地理說과 住宅設計)를 손질하여 4월중에 圖書出版 技文堂을 통하여 발간할 계획으로 있어 현중 회원들의 저작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本協會 출판사업부에서는 가능한 한 회원 여러분의 심혈기를 인 저작활동 현상이 상세하게 접수되어 건축사지를 통해 널리 홍보선전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출판이나 저작계획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韓國의 自然美 II

著者(攝影) 崔柄郁  
發行處 도서출판 밀알  
定價 價 24,000원

韓國建築大系 V

木 造

著者 張起仁  
發行處 普成文化社  
定價價 8,500원

# 支部消息

##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憲)



건축사보 보수교육(광주직할시)

### 建築士補 보수교육 실시

2월26일 오후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4시간동안 광주건축사회 관 4층 회의실에서 82명의 建築士補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부에서는 수강자들에게 교육자료와 수성블렌을 지급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도록 도왔으며 이날 교육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지부소개 및 정신교육: 지부장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정신교육: 이춘식 본청 건축과장
- 건축법규해설 및 질의응답: 진경

### 선 동구청 건축과장

- 작품전 관련 주지사항 전달: 공종식 사무국장

### 建築業務 간담회

3월9일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시까지 광주관광호텔에서 박영화 지부장의 23명의 회원과 송영환 광주직할시 건설국장의 11명의 관계공무원이 모여 건축업무와 관련한 건축사의 애로 및 건의를 중심으로 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를 토의하였다.

건축업무 간담회(광주직할시지부)



##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嚴柱浩)

### 오지마을과 자매결연

3월9일 여천군 들신읍 들산면 울림리 임포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결연식을 거행하였다.

현지를 방문, 결연식을 마련한 지부장 일행 12명은 李鉦均 여천

군수, 여천군 새마을과장외 5명의 郡 직원을 비롯 80여명의 마을 주민과 친선다과회를 개최하였으며 새마을 사업비 50만원과 농기구(삽) 57자루를 기증하였다.

## 慶尙北道支部

(지부장 金永吉)

### 建築士補 교육 실시

2월26일~27일의 1박2일간 경상북도 농민교육원에서 1백46명의

건축사보와 보조원들에게 업무추진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사보 및 보조원교육(경상북도지부)

## 廣州道支部

(지부장 白亨哲)

### 자매마을 경로잔치 지원

2월11일, 지부 자매마을인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에서 이마을 부녀회 주축로 베풀어진 경로잔치에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일행이 참석하고 돼지 1마리 값에 상당한 금

일봉을 전달하였다.

제주도지부는 1977년도에 이 마을과 자매결연을 한 이래 마을회관, 공동 창고의 설계를 무료로 해주는 등 여러 방법으로 마을 발전을 지원해 주고 있다.

## 팩시밀리 이용안내

협회는 '88. 1. 1. 부터 사무자동화를 위해 본부 및 각 시도지부에 FAX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전북지부에서 FAX를 신설하였습니다.

### ○ 설치현황

본부FAX : (02) 586 - 8823

경북지부 : (053) 422 - 9828

충남지부 : (042) 23 - 2441

전북지부 : (0652) 85 - 1875

### 자매결연식(전라남도지부)



諮問委員會

- 張起仁 : 삼성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청담동 134-20  
(삼익빌딩 411) 546-3781
- 姜明求 : 성도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성산동 56-1  
393-8723
- 姜奉辰 : 건축사사무소 국보건축 / 종로구 적선동 156  
733-5917
- 韓昌鎭 : (주) 한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을지로 4가  
310-68(삼풍빌딩 1116호) 269-4415
- 李圭福 : 삼성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98-9  
(원풍빌딩 2층) 605-8444
- 金萬盛 : 삼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을지로 5가 275-5  
269-5333
- 金斗燮 : 건축사사무소 극동건축 / 강남구 방배동 922-15  
585-0846
- 具玠會 : 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신사동 572-3  
(성신빌딩 2층) 540-1697
- 金枝泰 : 삼아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등교동 162-16  
393-6536
- 吳雄錫 :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43-7  
(한빌딩 205호) 566-2101

人事委員會

- 위원장  
安箕泰  
부위원장  
金基壽  
위원  
黃在滂 : 오주·일민건축사사무소 /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7-1 27-3164
- 姜基世 : 종합건축사사무소 법건축 / 강남구 신사동  
573-2 544-4723
- 趙春元 : 대원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177  
22-5058
- 朴榮翼 : 원, 안산, 다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4 6-5586
- 朴成主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창, 합성, 고려건축 /  
중구 인현동 2가 192-20(신성빌딩 310호)  
267-7826

倫理委員會

- 위원장  
黃在滂 : 오주·일민건축사사무소 /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7-1 27-3164
- 부위원장  
朴瑀夏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 창, 합성, 고려건축 /  
중구 인현동 2가 192-30(신성빌딩 310)  
267-7826
- 위원

- 尹箕炳 : 미미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송파동 89-14  
413-3717
- 金圭泰 : 향도종합건축사사무소 /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23 44-6463
- 金基斗 : 감기두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중화동 307-17  
433-4839
- 姜吉夫 : 건설부 법무담당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503-7326

編纂·弘報委員會

- 위원장  
朴榮翼 : 원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4  
6-5586
- 편찬 부위원장  
尹錫祐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765-0837
- 위원  
卞 鎔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용산구  
한남동 722-16 793-4978
- 金琪碩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 종로구 동숭동  
1-115 744-8221
- 金晶東 : 목원대학 건축과 / 충남 대전시 중구(목원대학)  
252-9941
- 趙成烈 : 큐빅디자인연구소 / 종로구 관철동 14-3  
732-5093
- 홍보 부위원장  
徐千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 건축 / 강남구  
논현동 81 549-3100
- 위원  
崔正一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일 / 강남구 삼성동 8-2  
543-9558
- 玉輝哲 : 옥휘철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198-16  
42-6515
- 金周哲 : KBS 청주방송국 / 충북 청주시 (KBS 청주방송국)

法制委員會

- 위원장  
李宗燁 : 건축사사무소 우일 / 관악구 봉천동 856-5  
885-7876
- 법규 부위원장  
蔣東燦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산구 한남동 683-  
130 795-0147
- 위원  
李鍾萬 : 녹야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서초1동 1623-1  
586-7707
- 崔光守 :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예관동 70-7  
269-8151
- 李義求 : 대원창건사 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  
101-7 923-1091
- 柳命夏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 창, 합성, 고려건축 /

'88년도 각 위원회委員

중구 인현동 2가 192-20 267-7826

제도 부위원장

李文雨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730-6510

위원장

金煥起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산, 동양건축 / 강남구  
역삼동 705-27 568-1627

金榮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 / 강남구 방배본동  
811-1 591-1237

權熙英 : 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 강남구 삼성동  
34-9 545-9500

張城鎮 : 건축사사무소 삼호 / 동대문구 신설동 101-7  
94-6711

國際委員會

위원장

李世勳 : 건축사사무소 세하 / 관악구 봉천동 862-9  
877-1550

부위원장

金知德 : (주)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32-40 562-7549

위원장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 신진 / 종로구 종로 3가 16  
765-1096

朴勇煥 : 한양대 건축공학과 / 강동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29-303 학교 : 292-3111 자택 : 422-0515

李廷根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 종로구 동숭동  
1-132 764-3072~4

李奎昌 : (주)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783-4145

田鳳秀 : 전우, 구조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종합빌딩 1층) 744-9953

趙濟元 : (주)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대우증권빌딩 6, 7층) 782-7596

研修委員會

위원장

禹南龍 :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1637-5  
585-0123

부위원장

張錫雄 : 아도무·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767-3 583-8553

위원장

崔寬泳 : 일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본동 792-10  
593-7183

朴英基 : 연세대학교 건축과 / 서대문구 신촌동 66  
392-0131

金震均 : 서울대학교 건축과 /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사) 886-0101 (자) 542-7236

崔英集 : 서인탑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내자동 198

(사) 543-3721 (자) 542-3721

姜聲益 : 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 57-38  
543-9708

建築委員會

위원장

姜基世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 강남구 신사동  
573-2 544-4723

都市環境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金漢根 : 한중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0-8 (신  
성개발빌딩 302호) 567-4695

간사

趙成龍 :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735-5  
555-5197

위원장

吳基守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5 / 마포구 상수동  
160-43 324-7200

尹始德 : 윤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105-59  
603-3552

朴暎緒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6-1101 학교 231-7121 택 590-4301

朴吉龍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성북구 정릉동 861-1  
914-3141 교 564

延濟振

設計·監理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金昶一 :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연건동  
187-1 762-9681

간사

李壽衡 : (주) 원일종합건축사사무소 / 동작구 대방동  
339-7 814-4416

위원장

黃圭泰 : 극동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445-3  
567-2620

朴性圭 :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 서초구 방배본동  
752-16 599-6278

李文雨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730-6510

李珪杓 : 종합건축사사무소엄·이건축 / 종로구 평창동  
66-4 736-3129

蔣應在 : 원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산구 한남동  
722-16 793-4977

設備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朴容漢 : 성아건축사사무소 / 중구 을지로 2가 148-31  
(성아빌딩 2층) 266-2032

간 사

曹永民 : (주) 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서초동 85-1 (금성빌딩 301호) 547-7722

위 원

李永洙 : 세한설계콘설탄트 / 동대문구 용두 2동 103-38 (동우빌딩 301호) (922-8830

孫章烈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성동구 행당동 17 292-5366

金相旭 : 김상옥방재기술연구소 / 성동구 송정동 81-7 (동방빌딩 309호) 466-1119

李鍾鎬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설비 실장 / 대전시 중구 장동 대덕연구단지 (042) 822-9703

李相鎬 : 한일전기설비연구소 / 종로구 수송동 12(극동해운 빌딩 602호) 735-8252

施工 및 材料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韓鍾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730-9922

간 사

張基化 : 장기화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1 (한양빌딩 205호) (0345) 82-5711

위 원

黃昌九 : 황창구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46-3 (0333) 2-2224

劉永鳳 : 건축사사무소 창일사 / 관악구 신림동 1433-5 878-5817

金海鎔 : 국립건설시험소 건축시험과장 / 동대문구 휘경동 43-87 244-0951 교 500

吳昌熙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 성동구 행당동 17 294-9111 교 2024

趙元玟 : 일진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방배동 450-25 587-5081

構造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全相伯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잠원동 28-1 (동산빌딩 404호) 549-2101

간 사

李昌男 : 센조구조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4 (동북빌딩 908) 783-8449

위 원

車東明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 건축 / 강남구 논현동 81(봉호빌딩 303호) 549-6000

威性權 : 종합건축사사무소 협화건축 / 서초구 서초동 1330-16 568-9004

唐鐵鎬 :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 성북구 모전동 93-1 446-9121 교 2725

李仁世 : 건축사사무소 서울구조 / 서초구 도곡동 543-3 568-8317

李利衡 : 한양대학교 / 성동구 행당동 17 292-2111

室內디자인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曹龜鉉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산구 한남동 683-130 (조화빌딩 102호) 795-2497

간 사

金麟 : 건축사사무소 가전 / 강남구 논현동 58-5 (세일빌딩 401호) 545-5692

위 원

金琪碩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 종로구 동숭동 1-105호 (샐터빌딩 4층) 744-8221

李順赫 : 이화여자대학교 생미과 / 서대문구 대현동 11-1 362-6251

池順 : (주)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견지동 65-1 (천마빌딩 501호) 734-0161

劉永培 : 세종대학교 산업미술과 / 성동구 군자동 98 467-5121

吳壽永 : (주) 교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당산6가 340-4 634-3961

建物에너지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李鍾寬 : 한국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319-33 478-2678

간 사

李楠浩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태양에너지 연구실 / 충남 대전시 중구 장동 대덕연구 단지 (042) 822-9703

위 원

李明浩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동작구 흑석동 221 813-3811

李璵會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서대문구 신촌동 134 392-0131

朴孝珣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태양에너지 연구실 / 충남 대전시 중구 장동 대덕연구 단지 (042) 822-9703

姜哲求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783-4011

傳統建築分科委員會

분과위원장

朴泰壽 : 태창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통인동 134-1 736-4702

간 사

張順鎬 : 삼성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청담동 134-20 546-3728

위 원

朱南哲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 성북구 안암동 5-1-2 94-4381

**'88년도 각 위원회 委員**

李應默 : 건축사사무소 세한 / 종로구 내수동 20  
738-7206  
金斗憲 : 문화재관리국 / 종로구 창성동 117 725-5281  
閔庚民 : 예그린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반포동 50 (백빌딩  
302) 584-2153  
池浩卿 : 삼원건축사사무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40-1 (051) 53-1789

**淨化對策委員會 (회원업무조정대책위원회)**

위원장

鄭孝煥 : 정·이화·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구의동  
252-16 445-5105, 444-5101-3

위원

朴來運 : 우신건축사사무소 / 도봉구 번동 449-5  
902-7896  
李在喆 : 제일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98-5  
696-1785  
姜成燁 : 공진건축사사무소 / 구로구 시흥동 883-15  
802-1502  
趙正相 : 건축사사무소 요셉건축 / 강남구 논현동  
254-4 545-5045  
金相奎 : 무에서로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도곡동  
552-14 552-0880

**特別銓衡對策委員會**

위원장

金椿培 : 성미건축사사무소 / 중구 무학동 11-2  
252-6507

간사

金享培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 / 영등포구 당산  
3가 387-3 633-9823

위원

金基完 : 김기완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81-1  
602-2636  
金理基 : 건축사사무소 부민 / 강남구 논현동 242-30  
545-2163  
崔相嫻 : 최상혁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상봉동 137-1  
433-1902  
安永濬 : 안영준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198-1  
(0351) 42-4208  
俞容濬 : 유용준 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81-1  
603-0422  
沈基燮 : 청송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320-7  
478-5242  
金榮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극 / 서초구 방배본동  
811-1 591-1237

**緊急對策協議會**

간사

朴成圭 :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 창, 합성, 고려건축 /  
중구 인현동 2가 192-20 (신성빌딩 310호)  
267-7826

위원

李丞雨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765-0836  
金源安 : 동남건축사사무소 / 도봉구 수유동 176-71  
994-1551  
崔雲東 : 오건축사사무소 / 서대문구 연희동 138-26  
333-2510  
金正澈 : (주) 정립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연건동  
187-1 762-9681  
李相守 : (주)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783-5301  
金奉勳 :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신 / 종로구 청진동 285-1  
734-0313  
許 恪 :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당산동 1가  
308-2 633-9657  
金大植 : 대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1167-5  
585-9971  
安仁模 : 한가람건축사사무소 / 중구 다동 131 (삼덕빌딩  
205) 777-3374  
李太熙 : 한남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1  
545-9457  
徐廣圭 : 서광규건축사사무소 / 구로구 시흥동 883-15  
802-0411  
金仁錫 : 일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본동 792-10  
593-7490  
金一榮 : 정·이화, 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구의동  
252-16 (성지빌딩 602) 444-2335  
朴商浩 : 석림, 고미, 삼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602) 734-6371  
金亨仁 : 세한건축사사무소 / 도봉구 수유동 191-27  
903-4442  
安將元 :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 / 은평구 녹번동 82-1  
354-3966  
李榮一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737-2492

**事務改善委員會**

위원장

金昌瑞 : 종합건축사사무소 협화건축 / 강남구 서초동  
330-16 568-9004

위원

片基奉 : (주) 동남아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다동 131  
778-0429  
柳春秀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 동작구 사당동 1031-28  
587-2020

設計競技運榮委員會

위원장

韓鍾燮 : 한중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0-8  
566-1654

위원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 성북구 성북동 330-542  
741-3656

安秉義 : 종합건축사사무소 황건축 / 강남구 삼성동  
34-9 545-9500

顧問辯護士 및 諮問稅務士

고문변호사

李載仁 : 변호사 이재인법률사무소 / 중구 태평로 2가 340  
777-1177

자문세무사

朴永緒 : 신우 세무법인 / 강남구 신사동 577-5  
(영도빌딩 406호) 547-7783~6

제 3 차 아시아 建築士大會執行本部

大會執行本部

본부장

宋基德 : (주) 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용산구  
서계동 209(농심빌딩 3층) 714-7938

부분부장

金知德 : (주)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32-40 562-7549

위원

金漢根 : 한중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1동 820-8  
(신성빌딩 405호) 567-4695

李廷根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 종로구 동숭동  
1-132 764-3072

姜基世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 강남구 신사동  
573-2 544-4723

金榮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 / 서초구 방배본동  
811-1 591-1237

田鳳秀 : 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종합빌딩 1층) 744-9953

朴奎永 : 오성주택 / 종로구 홍지동 62-20 730-7311

李文雨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피어선빌딩 408호) 730-6473

安秉倫 : 홍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구의동 246-16  
452-1971

韓鍾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피어선빌딩 506호) 730-9922

張基化 : 장기화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1  
(한양빌딩 205) 82-7596

趙載元 : (주)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대우증권빌딩 6,7층) 782-7596

金宇成 : (주) 아키프렌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0-8(신성빌딩 402) 553-5307

李利衡 : 한양대학교 건축과 292-2111

참여지도위원

金枝泰 : 삼아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동교동 162-16  
(남강빌딩 302호) 393-6536

吳雄錫 : 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43-7  
(한빌딩 205) 566-2101

企劃委員會

위원장

金漢根 : 한중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1동 820-8  
(신성빌딩 405) 567-4695

부위원장

李廷根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 종로구 동숭동  
1-132 764-3072~4

위원

金麟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전 / 강남구 논현동 58-5  
(세일빌딩 401호) 545-5692

金春雄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718-  
13(대남빌딩 3층) 562-9835

金漢一 : 한중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1동 820-8  
(신성빌딩 405호) 567-4695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 서초구 방배동 924-19  
(환빌딩 501호) 583-1941~2

崔東奎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탑 / 종로구 내자동 198  
(서라빌딩 603, 601호) 738-4036, 8701

협의위원

金成國 :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 마포구 상수동 72-1  
334-0151

財政委員會

위원장

姜基世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 강남구 신사동  
573-2 범빌딩 (내) 544-4723, 3106

부위원장

金榮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 / 서초구 방배본동  
811-1 591-1237

위원

金昶一 :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연건동  
187-1 762-9681

尹錫祐 : (주) 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765-0837, 0836

李永熙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서초동 1308-5  
568-7863

韓鍾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피어선빌딩 506호) 730-9922,

## '88년도 각 위원회 委員

### 進行委員會

위원장

金知德 : (주)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32-40 562-7549

부위원장

田鳳秀 : 진우·구조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종합빌딩 1층) 744-9953

위원

朴奎永 : 오성주택 / 종로구 홍시동 62-20 730-7311

趙仁淑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 강남구 역삼동 653-2 568-3128

權五湜 : 대립엔지니어링 (주) /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783-0161

任尚源 : 삼화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성산동 275-1 323-5057

朴時翼 : 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진신빌딩 402호 633-8885

崔明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산 / 중구 장충동 2가 21번지 277-6174

池 淳 : (주)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견지동 65-1 (천마빌딩 501호) 734-0161

### 弘報涉外委員會

위원장

李文雨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피어선빌딩 408호) 730-6510, 6473

부위원장

安秉倫 : 흥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구의동 246-16 452-1971

위원

姜純一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718-2(대남빌딩 3층) 568-7423

姜哲求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오성빌딩 901호) 783-4011

朴康平 : 건축사사무소 삼방 / 서초구 방배동 837-16 590-2569

朴性圭 :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 서초구 방배본동 752-16(삼우빌딩 3층) 599-6278, 6277

尹錫祐 : (주) 종합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 109-1 765-0836

李相憲 : 대우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창전동 6-136 393-2572

鄭正治 : 건축사사무소 합정 / 강남구 삼성동 1-4 (해운빌딩 305호) (546-8189)

### 展示委員會

위원장

韓鍾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피어선빌딩 506호) 730-9922, 738-9944

부위원장

張基化 : 장기화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1 (한양빌딩 205호) 82-5711

위원

金海銓 : 국립건설시험소 건축시험소 / 동대문구 휘경동 43-87 244-0951

黃昌九 : 황창구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46-3 2-2224

劉永鳳 : 건축사사무소 창일사 / 관악구 신림동 1433-5 878-5817

吳昌熙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 성동구 행당동 17 292-2111

한세기 : 벽산금속 (주) / 중구 을지로 3가 296-2 273-6961~3

### 정보리委員會

위원장

趙載元 : (주)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대유증권빌딩 6,7층) 782-7596

부위원장

金宇成 : (주) 아키프렌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0-8(신성빌딩 402호) 553-5307

李利衡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 성동구 행당동 17 / 292-2111

위원

朴英基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 서대문구 신촌동 134 392-0131

沈愚甲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 관악구 신림동 산56-1 886-0101

俞元在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 강남구 신사동 573-2(범빌딩 내) 544-4723, 3106

朱南哲 :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 성북구 안암동 5가 1-2 94-2641, 50

安將元 :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 / 은평구 녹번동 82-1 (신아건축) 354-3966

화합으로 사회안정, 안정으로 88성공 민주화합